

# 리아호나



## 연차 대회 말씀

낮아진 전임 선교사들의  
연령 기준  
두 개의 성전 신축 발표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  
소개



제182차 반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모든  
합당하고 능력을 갖춘 형제는 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19세가 아닌 18세부터 선교 사업에  
추천될 수 있음을 기쁘게 발표하는 바입니다.”  
몬슨 회장은 또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며  
능력을 갖추었고 합당한 자매들은 21세가 아닌  
19세부터 선교사 추천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기쁘게 발표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WALTER RANE, 복사 금지

### 다 충만함을 받고, 월터 레인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마가복음 6:41~42)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태복음 14:21)





신앙의 발걸음,  
마이클 티 맘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 무서워하여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26~29)



# 연차 대회 2012년 11월호 목차

제36권, 제11호

##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쿠엔틴 엘 쿡 장로
- 10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앤 엠 딘
- 12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
- 15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세인 엠 보웬 장로
- 18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 21 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5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6 훌륭한 부모가 됨  
엘 톨 페리 장로
- 29 열심히 노력하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32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래리 에코 호크 장로
- 34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로버트 시 케이 장로
- 37 성전 표준  
스코트 디 화이팅 장로
- 39 신앙의 시련  
닐 엘 앤더슨 장로
- 43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신권 모임

- 47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51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서  
용맹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케리 이 스티븐슨 감독
- 54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조심하라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 57 신권에서 오는 기쁨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0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8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72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5 속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78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린다 케이 버튼
- 81 마음을 다해 배움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83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86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90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93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96 구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러셀 티 오스구토프
- 99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 101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다니엘 엘 존슨 장로
- 104 성찬의 축복  
돈 알 클라크 장로
- 106 주께로 돌이켰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10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상호부조회 총회

- 11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린다 케이 버튼
- 115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완전히  
깨어나도록  
캐롤 엠 스티븐
- 118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린다 에스 리브즈
- 121 보살피는 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5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26 교회 소식
- 128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제182차 반연차 대회 요약

##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케빈 알던컨 장로, 폐회 기도: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음악: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과 리차드 엘리엇.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윌버그 편곡, Oxford 출판; “Lord, I Would Follow Thee,” 영어 찬송가, 220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쪽, 호프헤인스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게릿 더블유 공 장로, 폐회 기도: 호세 엘 알론소 장로. 음악: 유타 주 베니온과 테일러스빌 지역 스테이크의 청년, 청년 연합 합창단; 지휘: 리아 타렌트;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Arise, O Glorious Zion”, 영어 찬송가, 40장;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페리 편곡, 미출판;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이 즐겁고 기쁜 날”, 찬송가, 38장, 허프 편곡, 미출판

##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제이 이 젠슨 장로, 폐회 기도: 패트릭 키아론 장로. 음악: 유타 주 옥든 지역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 지휘: 스티븐 피 쉐크 형제님과 데렉 펄치.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스.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퍼치 편곡, 미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쉐크 편곡, 미출판

## 2012년 10월 7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말린

케이 젠슨. 폐회 기도: 키스 알 에드워즈. 음악: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즈워스.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가시밭 험한 길”, 찬송가, 8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웨인 워비, 독창);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구주 내 곁에 계시면”, CSMP, 셸리 디포드, 카든 편곡, 미출판; “If the Way Be Full of Trial, Weary Not”, Songs of Zion(1912), no. 158,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2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폐회 기도: 래리 더블유 기본스. 음악: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켓츠. “The Day Dawn Is Breaking”, “영어 찬송가, 52장, 머피 편곡, 미출판; “오늘 내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윌버그 편곡, Jackman 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린다 케이 버튼. 개회 기도: 마리아 토레스, 폐회 기도: 멀린다 바로우. 음악: 솔트레이크 보네빌,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머레이 유타 청년 성인 독신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자매 연합 합창단. 지휘: 에밀리 와들리. 반주: 린다 마켓츠.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쪽과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셸리 디포드 편곡, 미출판. 매들리;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비브 편곡, Larice 출판

##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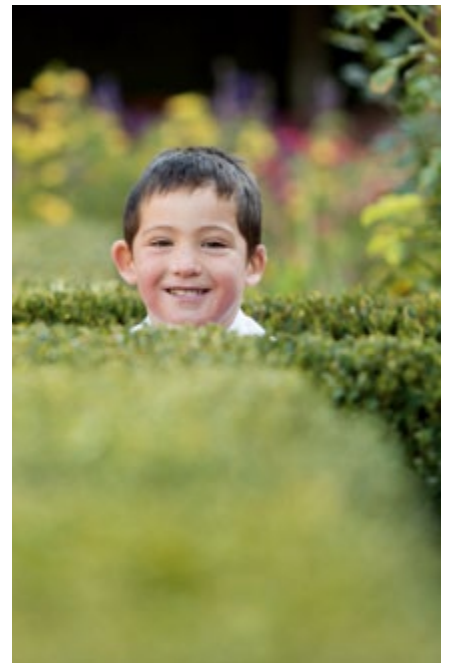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데릭 이스라엘슨  
뒤 사진 촬영: 레슬리 닐슨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턴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코디 벨, 레슬리 닐슨, 웨스턴 콜튼, 사라 젠슨, 데릭 이스라엘슨, 스캇 데이비스, 크리스티 조던, 랜디 콜리어, 로이드 앨드리지, 카라 폴: 보츠와나: 존 헨츠먼; 브라질: 프란시스코 플라비오 디아스 카네이로; 에스토니아: 야만다 로빈슨; 그리스: 데이비드 엘 마워; 이탈리아: 크리스토퍼 딘; 멕시코: 카를로스 이스라엘 구티에레즈 로블레스; 모잠비크: 대니얼 오즈번; 폴란드: 로이스 젠슨; 스코틀랜드: 존 제이 그레이엄; 스페인: 앤토니 가르시아 코리우스; 대만: 대니 찬 라





2012년 11월호, 제49권, 제11호  
리아호나 104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자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라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장:**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앤서니 디 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장:**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장:**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일리사 젠데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베헤트,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홀리튼, , 민디 라예 프리드먼, 히카리 로프트스, 리아 맥클러내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톨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캐리 린 시 해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스캇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구  
**배부 책임자:** 에반 할슨

**통 관:** 제552호, 제49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mailto: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창간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12 Vol. 36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51  
닐 엘 앤더슨, 39  
다니엘 엘 존슨, 101  
델린 에이치 옥스, 4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6  
돈 알 클라크, 10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47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 57  
라셀 엠 벨슨, 18  
라셀 티 오스호토프, 96  
레리 에코 호크, 32  
로버트 디 헤일즈, 90  
로버트 시 게이, 34  
리처드 지 스코트, 93  
린다 에스 리브즈, 118  
린다 케이 버튼, 78, 111  
마커스 비 내쉬, 99  
보이드 케이 패커, 75  
세인 엠 보웬, 15  
스코트 디 와이팅, 37  
앤 엠 딕, 10  
앤소니 디 퍼킨스, 54  
엘 톰 페리, 26  
엠 라셀 블라드, 29  
윌터 에프 곤잘레스, 81  
제프리 알 홀런드, 83  
캐롤 엠 스티븐슨, 115  
쿠엔틴 엘 쿡, 6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12  
토마스 에스 몬슨, 4, 68, 86, 110  
헨리 비 아이어링, 60, 72, 121

**주제 색인**

가르침, 18, 96  
가족 역사, 93  
간중, 68, 106  
감사, 110  
개종, 6, 54, 81, 96, 106  
결혼, 26, 43, 47  
검손, 34, 72  
계시, 60  
기도, 86  
기독교, 90  
기쁨, 21, 57  
물문경, 32  
배움, 10, 96  
봉사, 12, 29, 57, 72, 78, 101, 110, 115, 121  
부활, 15  
사랑, 10, 78, 83, 118  
사망, 15  
상호부조회, 111, 115, 121  
선교 사업, 4, 18  
선택의지, 51  
성신, 12, 81, 99  
성약, 54  
성전, 4, 12, 37, 93  
성찬, 104  
소망, 15

속죄, 6, 75, 104, 111  
순종, 101  
신권, 47, 51, 54, 57  
신앙, 39, 72, 99, 111  
역경, 39, 110, 115  
영감, 86  
예수 그리스도, 15, 18, 75, 99, 111, 118  
외설물, 6  
용기, 51, 68  
우순순위, 21  
의무, 115  
이스라엘의 집, 32  
일, 29  
자녀, 15, 43  
자애, 121  
재능, 60  
장결, 6, 39  
제자됨, 21, 29, 78, 83, 90, 101  
청소년, 60  
충성심, 83  
취업, 47  
치유, 81  
표준, 37  
헌신, 51  
활동 촉진, 68  
회개, 34, 75  
회복, 18  
희생, 3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의 영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거기 뒤에 몇 개만 빼고 말합니다. 발전할 여지가 있네요. 그 자리는 교통 체증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은 대회가 열리는 참으로 훌륭한 날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합창단이 감명 깊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합창이나 오르간이나 피아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나는 네가 받은 모든 칭찬과 네가 취득한 모든 학위와 네가 한 모든 일을 좋아한다. 내가 유일하게 안타까운 점은 내가 계속 피아노를 치지 않은 것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그랬더라면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반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6개월 전에 모임을 한 이후로 새로운 성전 세 곳이 헌납되었고, 성전 한 곳이 재헌납 되었습니다. 5월에는 제가 직접 아름다운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을 헌납하고 관련 문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그 경축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오랫동안 기다려 온 브라질 마나우스 성전을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하셨고, 9월 초에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새롭게 단장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을 재헌납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제가 27년 여 전에 헌납했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에서 아름다운 브리검시티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지은 그 어떤 건물도 성전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전 139곳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27개 성전이 발표되었거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과 그 건물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드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성전 두 곳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애리조나 투손, 페루 아레키파 성전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성전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다른 사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교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몇 해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합당하고 능력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부 국가의 형제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보여 줄 때, 18세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형제가 명예롭게 봉사하고, 또한 의무 사항인 군 복무와 그 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세 선교사들과 관련한 실례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들은 그들이 순종적이고 충실하며 성숙할 뿐 아니라,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다른 나이 든 선교사들만큼 능숙하게 선교 사업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충실함과 순종, 성숙함 덕분에 우리에게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형제에게 이른 시기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모든 합당하고 능력을 갖춘 형제는 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9세가 아닌 18세부터 선교 사업에 추천될 수 있음을 기쁘게 발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형제가 이렇게 일찍 선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또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신권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부터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선교 사업 시작 연령 뿐 아니라 자매의 선교 사업 시작 연령에 대해서도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며 능력을 갖추었고 합당한 자매들은 21세가 아닌 19세부터 선교사 추천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기쁘게 발표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라는 것을 공표하며, 합당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을 갖춘 모든 청년 남성은 봉사하라는 이 부름에 응하라는 권유를 전해 드립니다. 많은 자매들 또한 선교 사업을 나가지만, 그들이 청년 남성들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자매들이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한다는 점을 자매 여러분에게도 알려 드리며,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 든 부부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여건이 되며, 건강이 괜찮다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함께 봉사할 때 두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를 통한 전해질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의 영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교회의 일부 회원은 자신이 엘마의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몬** 스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선교 사업에 관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발표가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1960년에 청남들이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당겨졌을 때 느꼈던 흥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갓 부름 받은 스무 살짜리 선교사로서 영국 선교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 온 첫 번째 19세 선교사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스무 살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더 많은 19세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충실한 선교사였으며, 선교 사업은 진척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롭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구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더 큰 수확을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잘 준비되었습니다. 경전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가 봉사를 준비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모든 교회 회원이 처했던 문제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문화가 의로움이나 영적인 헌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유사 이래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물론경에서 엘마 이세는 백성이 의롭지 못하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 직분인 대판사직을 사임하고 선지자의 부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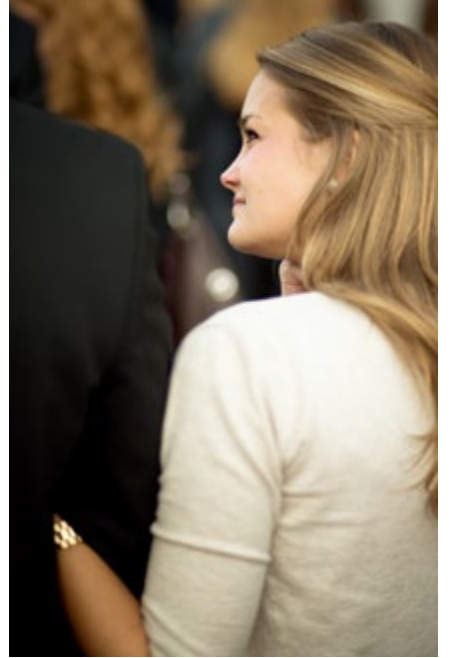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심오한 성구에 속하는 엘마의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sup>2</sup>

전 세계 현지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회원들, 특히 청소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두 가지 걱정을 표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불의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부 회원들이 교회에 너무 무관심하고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구주를 따르고 깊고 영속적인 개심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수 세기 너머로 울려 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회복과 영적 은사들, 명백한 하늘 축복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 경륜의 시대에 받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엘마가 제기한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합니다.

1943년, 에즈라 테프트 벤슨이 갖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sup>3</sup>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은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게, 회개야말로 이 세상의 질병에 대한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sup>4</sup>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 타락은 심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저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현대] 문화가 해롭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sup>5</sup> 매일의 문화에 담긴 음악, 오락, 예술, 그리고 기타 매체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묘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크게 존경받는 한 침례교 신학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문명 전체의 영적 면역 체계는 손상되었다.”<sup>6</sup>

교회의 일부 회원은 자신이 엘마의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나 상처, 환멸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sup>7</sup>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고 헌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은 꼭 큰 죄나 범법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힘을 쏟는 데 시간을 거의 다 써 버립니다. 격렬한 문화나 정치적 견해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기 교회 지도자의 결점을

확대하고 과장하며, 심지어는 만들어 내기까지 하는 인터넷 자료에 몰두합니다. 그런 다음, 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취하려면 반드시 경전에 몰두해야 합니다.<sup>8</sup>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받은 감정이나 분노, 또는 환멸감을 치유하는 향유 역할을 합니다.<sup>9</sup> 어떤 이유에서든 헌신이 줄어들면, 해결책 중 일부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sup>10</sup> 헌신과 회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기독교 작가 시 에스 루이스는 이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용서를 약속하지만,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픈 걸 알아야 의사 말을 듣기 마련이다.”<sup>11</sup>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러분이 침례받기 전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중립 지대에 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가입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중립 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절대로 주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sup>12</sup>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비의 팔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퍼져 있다”<sup>13</sup>고 역설합니다. 그런 후 이렇게 날카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흠 없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실한 부친을 따르지 않다가 자신에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하며,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극적으로 알게 된 엘마의 이야기에는 힘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헌신을 약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특히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는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심각합니다. 첫째는 불친절과 폭력, 가정 내의 학대이고, 둘째는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종종 헌신을 약화하는 선택에 앞서 나타나며, 그런 선택을 내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가정 내 폭력, 학대, 공손치 못한 행위와 무례는 성인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으셨으나 특히 어머니를 대하시는 면에서는 눈에 띈 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내가 남편들 때문에 흘린 모든 눈물에 관해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된다.]”<sup>14</sup> 자라난 환경이 어떻든, 또 부모가 학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sup>15</sup>

사회 내 예의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친절과 예의의 토대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대중이 지닌 일반적인 태도가 가정 파괴에 비례하여



나빠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과 영성을 유지하는 기틀입니다. 가족은 종교적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sup>16</sup>는 말은 사실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은 구주께서 세우신 표준에 어긋납니다.<sup>17</sup>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우리는 성적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sup>18</sup>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는 영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헌신을 잃게 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은 종종 해로운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합니다. 저는 최근에 데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함께 아마존 밀립 마을에 머무는 동안, 작고 소박하게 지은 몇몇 오두막에조차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외딴 지역에서도 훌륭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성욕을 자극하는 영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지상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외설물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열다섯 살인 아론 신권 소유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인터넷 시대에 젊은이들이 불순하고 외설적이기조차 한 영상에 거의 무심결에 노출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사회에서 대체로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 대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즉 이런 원리를 어기면 건강이나 행복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청소년 흡연, 약물 복용, 알코올 소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외설물이나 부도덕에 대해 항의도, 심지어 심각한 경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청년이 분석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년에 걸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정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sup>19</sup>

부모 여러분,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것만으로는 자녀에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길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책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몬슨 회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 책임은 친절과 용서, 진리와 의로움으로 가득 찬 피난처인 가정에서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접하는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음악을 걸러내고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강한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퍼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회를 떠나실 때, 오늘날의 도덕 문제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독과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가족을 돕고 영적인 원리가 가르쳐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특히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은 진지하게, 사도들은 외설물과 불순한 생각에 대항하는 가르침과 보호 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힘주어 말하기를, 어떤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해도 너무 빠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부도덕한 영상에 노출된 청소년은 자신이 이미 선교 사업과 성스러운 성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신앙이 심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앨마가 가르쳤듯이 저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sup>20</sup> 그것이



바로 구주의 속죄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신임받는 고문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 감독님과 상의해 보시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도덕성 문제가 대두될 때, 중요한 인도주의 활동이나 신조 하나에 충실하면 구주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성적인 비행은] 사소한 일’<sup>21</sup>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고는 심각한 자기기만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기가 없다.”고 제게 말합니다.<sup>22</sup> 부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기로]”<sup>23</sup> 약속합니다. 이 성약을 지키고 계속해서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개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용기 있는 노력, 헌신, 고결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본보기를 보인 역사적인 예를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 영국 선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중국에서 봉사한 스코틀랜드인 선교사이자 독실한 종교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압력에도 일요일에 열린 100미터 달리기 예선 출전을 거부하여 영국 올림픽 지도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400미터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를 거부한 리들의 모범은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를 기리는 많은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영감에 찬 말씀을 거론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sup>24</sup>

존경받을 만한 리들의 행동은 제 막내아들이 일요일에 열리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불의하고 세속적인 행동을 멀리하겠다고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학교 연감에 인용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원칙에 대한 결의와 헌신의 훌륭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선교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고, 우리 모두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sup>25</sup>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sup>26</sup> 영적인 방향을 알려 주는 인도자로서의 성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활에 질서가 없는 분은 구주의 속죄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sup>27</sup>

다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sup>28</sup>

저는 우리 각자가 지금 영을 느낄 수 있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의 속죄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4:15~19 참조.
2. 엘마서 5:26.
3.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다. 그는 1945년 5월 21일에 교회 회장이 되었다. (Deseret News 2012 Church Almanac[2012], 98 참조).
4. George Albert Smith, in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1987), 184.
5. Peggy Noonan, “The Dark Night Rises”, *Wall Street Journal*, July 28-29, 2012, A17.
6. Dr. R. Albert Mohler Jr., presiden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resentation to religious leaders, New York City, Sept. 5, 2012.
7. 니파이후서 2:27 참조.
8. 요한복음 5:39; 야모스 8:11 참조; 또한 James E. Faust,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Savior”, *Ensign*, Nov. 1976, 58-59 참조.
9. 엘마서 31:5 참조.

10. 엘마서 36:23~26 참조.
11. C. S. Lewis, *Mere Christianity*(1952), 31-32.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와 르네상스기 영어 학과장으로 일했다.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24쪽 참조; 또한 요한계시록 3:15~16 참조.
13. 엘마서 5:33.
1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5. 리차드 지 스킵트,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상도의 빛*, 1998년 7월호, 85~87쪽 참조. 일부 문화적 전통은 구주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태평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알아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교회 지도자가 신권 모임에서 전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자녀를 때릴 때 쓰던 손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는 선교사 토론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위대한 지도자로 봉사해 왔습니다.
16. “나의 집에 사람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17. 엘마서 39장 참조.
18. Ezra Taft Benson, “Cleansing the Inner Vessel”, *Ensign*, May 1986, 4 참조.
19.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1995년 9월, 상주부교회 총회에서 소개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의 첫 장,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족과 교회”의 변경을 감리했다.
20. 엘마서 13:27~30; 41:11~15 참조.
21. Ross Douthat, *Bad Religion: How We Became a Nation of Heretics*(2012), 238; 또한 엘마서 39:5 참조.
22. 폭력과 부도덕으로 가득하고,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 비판적인 문화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위즈윅스가 부드럽게 썼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상한 생각으로 채워 나쁜 말이나, 어리석은 판단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비웃음도 …… [여러분의] 유쾌한 신앙을 압도하거나 방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in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ed. Christopher Ricks [1999], 346).
23. 모로나이사서 6:3; 강조체 추가; 또한 모사이이사서 18:13 참조.
24. 이사야 40:31; Robert L. Backman, “Day of Delight”, *New Era*, June 1993, 48-49 참조.
25. 엘마서 34:32 참조.
26. 고린도전서 9:24~27 참조.
27. 힐라맨서 5:12 참조. 율리버 웬델 홈즈 이세는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보다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나는 이 세상의 훌륭한 것을 본다. 하늘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풍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고 맞바람을 맞으며 항해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항해해야 하며, 표류해서도 안 되고 닻을 내리고 정박해서도 안 된다.”(*The Autocrat of the Breakfast-Table*[1858], 105).
28. 이사야 1:18.



앤 엠 디프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런  
개심과 자신감은 근면하고 신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고**결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의로운  
교회 회원들의 모범은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구주를 바라봅니다. 충실하고 순종적이며  
순수합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받는 축복은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저와 무수한 사람의  
삶에 심오하고도,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한  
식품점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열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는데,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은 티셔츠를  
보고서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왔죠?”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제 말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콜로라도에서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티셔츠 보고 알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티셔츠에서  
“나는 물론입니다. 당신은요?”라는 글귀를  
읽었기에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글귀가 적힌 옷을 눈에 띄게  
입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자매님께서 특별함이  
느껴지네요. 교회의 모든 청년과 회원들이  
자매님과 같이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마친 후에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상에서 있었던 이  
우연한 만남을 그후로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온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과  
간증을 반영하는, 어떤 의미 있는 문구를  
제 티셔츠에 새길지를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문구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저는 제가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을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문구를  
생각해 냈습니다. “나는 물론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담대하고 희망에 찬 문구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 문구의 첫 부분인 “나는  
물론입니다.”는 자신감에 찬,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제가 식품점에서  
만났던 소녀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듯, 우리도 우리  
자신이 “물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sup>1</sup>라고 선언할 때 그랬듯이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회원인 우리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런 개심과 자신감은 근면하고  
신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 문구의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안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매 순간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다투는  
다양한 활동과 화제,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방해 요소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할 힘과  
자제력이 있고 결심이 서 있습니까? 공부나  
직장, 취미, 운동 경기 또는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만큼이나 복음 진리도 잘 알니까?  
우리의 의문을 풀기 위해 경전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흡족하게 취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합니까? 영의 확인을 구합니까?

지식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지식을 사랑했던 것은 그 지식을 의롭게  
사용할 때 오는 힘 때문이었[습니다.]”<sup>2</sup>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 모든 형제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sup>3</sup>

모든 진리와 지식은 중요하지만, 일상  
생활의 끊임없는 방해 요소 속에서도 우리는  
특히 복음 지식을 키우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sup>4</sup>  
복음 지식이 쌓일 때 자신의 간증에 대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부분은 “실천하며”입니다. 경전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애정 어린 봉사를 하고, 구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sup>6</sup> 고결하게 행동하며, 옳은지 알고 있는 일을 행합니다.

필멸의 상태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려고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구주의 구속 회생을 통해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위로가 됩니까? 진실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간증은 확고해지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는 우리의 결심이 굳건해집니다.

저는 “실천하며”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캐리건이라는 청년이 떠오릅니다. 캐리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구도자였을 때,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정속함과

표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명을 등한시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높은 도덕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 저는 진리를 찾고 침례 받은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sup>7</sup>

제 문구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매일 복음 원리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면 많은 교회 회원들이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라고 열렬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성신이 증거해 줄 때 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경험할 때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 드릴 때 옵니다.

갓 개종한 회원이든 평생 교회 회원이었던 간에, 살다 보면 이런 생생한 열정이 희미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어려운 시기에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를 때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복음 지식을 키우고 복음 원리를 더 충실하게 생활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복음 원리는 겸손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8</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종종 이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으며, 그러한 기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되살아납니다.

오리건 주 유진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모임에서 캐미 월버거 자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버거 자매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한 청년이 복음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한 데서 비롯된 힘과 축복을 증명합니다.

월버거 자매님의 딸인 브룩은 몇 년 전,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비극적인 사건으로 열아홉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월버거 자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힘들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우리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브룩이 자랄 때에는 그것이 선물인 줄 몰랐지만, 짧은 생애 동안 매년, 매 순간 그 아이는 딸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브룩은 하나님의 의로운 딸이었습니다. …… 이 선물과 특히 속죄의 가능케 하는 권능으로 저는 힘과 위안,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브룩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며, 그 아이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sup>9</sup>

저는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보내시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물론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앨마서 32장과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Ensign, Nov. 2000, 32-34)를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주**

1. 로마서 1:16.
2. 조지 큐 캐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1쪽.
3. 가르침: 조셉 스미스, 265쪽; 또한 Martha Jane Knowlton Coray, notebook,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4. 지식 가치관 경험 1번,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38쪽 참조.
5. 야고보서 1:22.
6. 모사이야서 18:9.
7. 개인 편지.
8. 누가복음 22:42.
9. 개인 편지.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며, 여러 중요한 역할과 별도의 책임을 수행하십니다.

**19** 94년에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성전을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 삼십삼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해 말에 유타 바운티폴 성전이 완공되었고, 저희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헌납되기에 앞서 어린 자녀들을 일반 공개에 데리고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성전이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성전 안을 경건하게 둘러보면서 저는 웅장한 건축 양식, 우아한 마감 솜씨, 높다란 창을 통해 반짝이는 빛, 그리고 영감을 주는 여러 그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은 구석구석까지 참으로 완벽했습니다.

해의 왕국실에 들어서는데, 여섯 살 된 막내아들 벤이 갑자기 제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는 양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니, 아들?” 하고 속삭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어린 아들이 성신의 영향력을 이처럼 강하게 느낀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저희 주변을 지나다녔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벤과 함께 성신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벤이 경험한 성스러운 느낌에 대해 얼마나 쉽게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벤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은 눈으로 본 주변의 아름다움이 아닌, 마음에 느껴진 고요하고 작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어린아이다운 궁금증 덕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인 이 성신의 은사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느낀 저는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sup>2</sup>

**성신은 누구인가?**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십니다.<sup>3</sup> 성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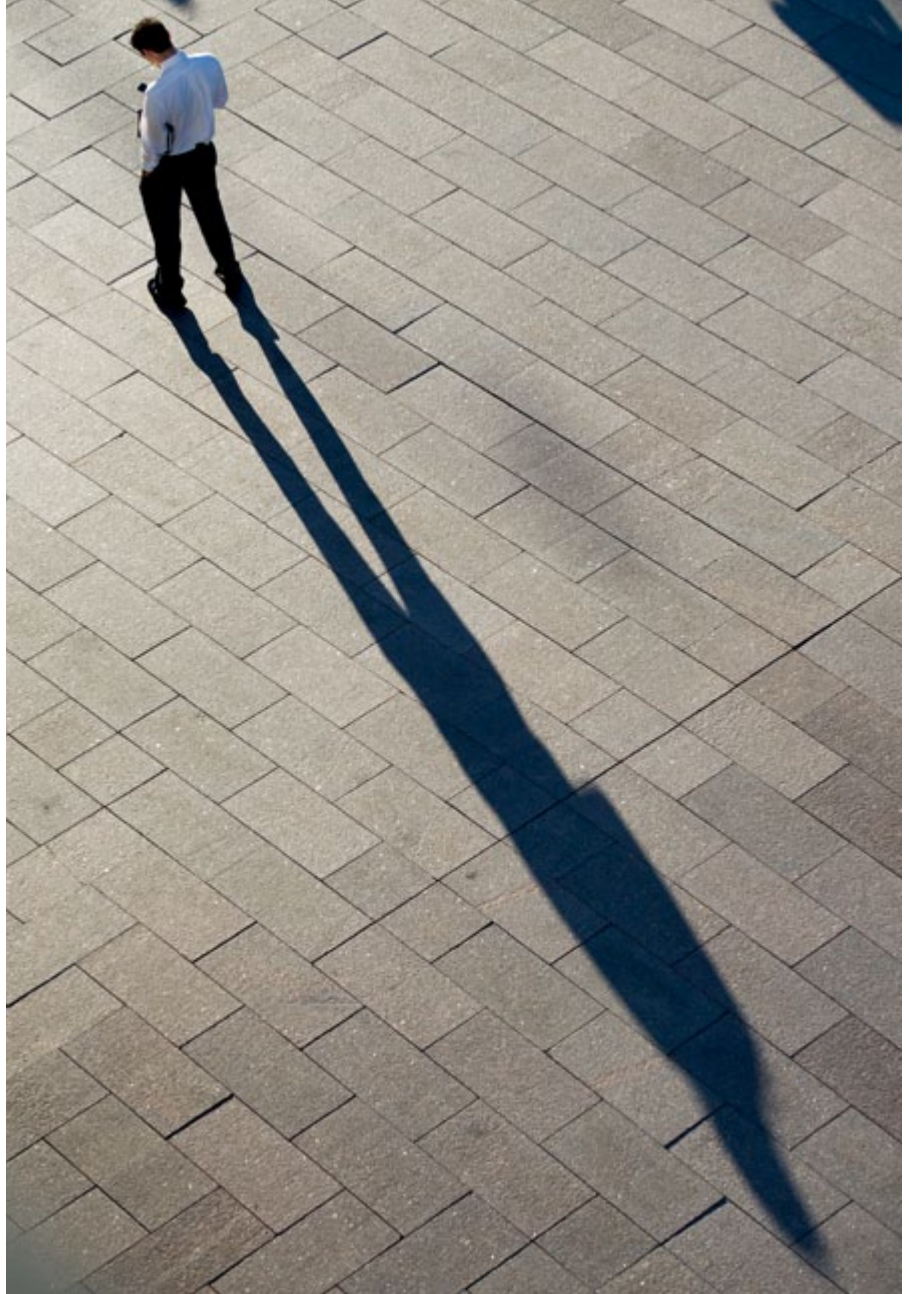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몸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성신은 영적 인격체로서 느낌과 생각을 통해 우리 영과 소통하십니다.<sup>5</sup> 성신은 영적 존재로서 개인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자라는 독특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신은 경전에서 종종 성령, 주의 영, 약속의 성령, 또는 단순히 영으로도 불립니다.<sup>6</sup>

### 성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며, 여러 중요한 역할과 별도의 책임을 수행하십니다. 성신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sup>7</sup> 모든 것의 참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sup>8</sup> 성신에게서 오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 나온 증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을 갖고 있다.”<sup>9</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은 또한 보혜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sup>10</sup> 어려울 때나 절망적일 때, 또는 단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성신은 우리 영을 고양하고, 희망을 주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sup>11</sup>을 가르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sup>12</sup>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휴일에 친척들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고, 제 아버지께서는 여러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은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자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을 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기도를 드리고 몰몬경에 나오는 인생의 목적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자 우리 각자는 성신으로부터 개인적인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을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마음속에 분명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참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안을 느꼈으며, 그때 성신에게서 온 증거는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성신은 교사이자 계시자입니다.<sup>13</sup> 우리가 복음 진리를 공부하고, 그에 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 마음을 밝혀 주며 이해력을 키워 줍니다.<sup>14</sup>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족이나 교회 회원들, 또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과 나눌 때 성신은 그들에게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신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sup>15</sup>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봉사하게 합니다. 제게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본보기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생애와 성역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조용하게 들려오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없이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달콤한 경험이나 소중한 느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sup>16</sup>

가슴 따뜻해지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하실 때 몬슨 회장님은 와드 회원인 메리 왓슨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방문을 가 보니 그 자매님은 큰 병실에 여러 환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왓슨 자매님께 다가가자 몬슨 회장님은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재빨리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왓슨 자매님께 신권 축복을 하고 몬슨 회장님은 악수로 작별을 고하고서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단순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관한 몬슨 회장님의 회고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마음 속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자네가 들어왔을 때 얼굴을 가리던 그 자그마한

부인이 있는 침대로 가 보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저는 그 환자 곁으로 가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거리며 그분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시트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 역시 우리 와드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캐슬린 맥키라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저 문으로 들어오실 때 전 제 기도의 응답으로 감독님이 절 만나 축복해 주러 오셨다고 생각했죠. 감독님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신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침대로 가시자 실망하고 말았죠. 절 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맥키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이 여기 계시는 걸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으며, 자매님이 신권 축복을 받으려고 조용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저를 자매님에게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sup>17</sup>

### 성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비록 늘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성신을 느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감 어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가슴 속에 오는 영적인 느낌으로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보다는 느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속삭임을 ‘나는 느낌을 받았어. ……’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sup>18</sup> 우리는 성신에게서 오는 이 성스러운 느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 언급된 “계시의 영”<sup>19</sup>입니다.

###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섯 살 난 아들 벤을 가르치면서 저는 아들이 성전에서 느꼈던 것, 곧 성신의 영향력과 침례 후에 받게 될 성신의 은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침례 받기 전이라도 종종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성신의 동반과 이와 관련된 모든 충만한 축복을 받을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이 안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은, 합당하고 침례 받은 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능력과 영적 은사, 더 많은 계시와 보호, 끊임없는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성결하게 되고,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으리라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의 결실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그분의 끊임없는 인도를 구할 때 받게 됩니다.

벤과 유타 바운티폴 성전에서 한 경험을 되돌아볼 때면, 감미로운 느낌과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눈에 비친 것들의 장엄함에 빠져 있을 때 곁에 있던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강한 느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부드러운 일깨움이 저에게 단순히 멈추어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영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구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성신이 실재하시며, 그분께는 신성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분의 교회에서 확인을 통해 성신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은사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Howard W. Hunter, in Jay M.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94, 5; 또한 하워드 더블유 헌터,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3쪽; *Ensign*, Oct. 1994, 2 참조.
2. 교리와 성약 121:26 참조.
3. 엘머서 12:7; 18:16~18; 교리와 성약 6:15~16 참조.
4. 니파이후서 32:5 참조.
5.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6. 누가복음 4:1, 18; 11:13; 요한복음 1:33; 에베소서 1:13; 교리와 성약 88:3 참조.
7. 니파이후서 31:18; 제3니파이 28:11; 교리와 성약 20:27 참조.
8. 모로나이서 10:5 참조.
9.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1권, 45쪽.
10. 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35:19 참조.
11. 교리와 성약 36:2.
12. 빌립보서 4:7.
13. 누가복음 12:12; 고린도전서 2:13; 교리와 성약 50:13~2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133쪽 참조.
14. 교리와 성약 11:13 참조.
15. 니파이후서 33:1.
16. 토마스 에스 몬슨, "잠잠하라, 고요하라", *리야호나*, 2002년 11월호, 55쪽.
17. 토마스 에스 몬슨,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18~19쪽 참조.
18. 보이드 케이 패커,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리야호나*, 1997년 6월호, 10쪽; *Ensign*, Nov. 1994, 60.
19. 교리와 성약 8:3; 또한 2절 참조.



세인 엠 보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감은 언젠가 흥만한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점** 은 시절에 칠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동반자와 저는 한 지부에서 식구가 일곱인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매주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래된 교회 회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우리는 그들이 침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가족에게 연락해서 집을 방문하여 그들을 가르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복음을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가족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라미레즈 자매님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유아 침례에 관해 토론했는데,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므로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에게 모로나이서에서 다음 부분을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 - 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지요, 또한 변화시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sup>1</sup>

이 구절을 읽은 라미레즈 자매님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동반자와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미레즈 자매님, 저희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러자 자매님은 “아니에요, 장로님. 그런 거 없어요. 6년 전에 우리에게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영세를 받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 신부님은 아이가 영세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고성소(로마 가톨릭교에서 영세 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뒤에 가는 장소-옴긴이)에 있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6년 동안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그런데 이 성구를 읽자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큰 중압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랍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위안을 주는 교리가 담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악한 사람들의 질서와 현세의 악과 슬픔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곧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sup>2</sup>

감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은 지 6년이 지났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밝혀 주신 참된 교리가 괴로워하는 이 여인에게 감미로운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라미레즈 자매님과 여덟 살이 넘는 자녀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담긴 명백하고 귀한 여러 다른 진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낀 감사를 가족에게 글로 써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놀랍고 참된 원리가 훗날 세계 영향을 끼쳐 길르앗의 유랑 역할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잃고 ‘왜 하필 나지?’ 하고 질문한 적이 있거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신의 신앙에 의구심을 품었던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얼마간의 희망과 평안, 이해력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셋째 아들이자 여섯 번째 자녀는 1990년 2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타이슨이라 했습니다. 귀엽고 조그만 사내아이였으며, 가족은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 그 아이를 맞아 주었습니다. 형과 누나들도 그 아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껏 태어난 사내아이 중 그 아이가 제일 완벽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8개월이 되었을 때, 타이슨은 카펫에서 발견한 분필 조각을 삼켰습니다. 분필은 타이슨의 목에 걸렸고 아이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타이슨의 형이 타이슨을 위층으로 데려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구조원이 도착하여 타이슨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대기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필요한 만큼 계시다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는 떠났습니다.

타이슨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자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던, 그러나 생명이 꺼진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 주위에는 마치 해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몸시도 밝게 빛났고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끝나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타이슨은 집에 오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관점에서 그 경험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아내와 그 시련을 함께 겪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도 없고 감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시간 동안 저는 악몽을 꾸는 듯이 느꼈고 금방 잠에서 깨어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서성거리며 다른 자녀가 모두 안전하지 확인했습니다.

죄책감에 제 영혼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도 큰 죄책감이 엄습했고,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일을 했더라면. 때로는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면 그러한 느낌을 빨리 지워 버립니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슨이 죽은 지 약 한 달 후에 던 엘라스 장로님과 접견을 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조연과 사랑에 늘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형제님이 자책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종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고 곧이어 분노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평치 못해!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 왜 하필 나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심지어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네 기분 이해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 내 기분 몰라.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저는 자기 연민 또한 매우 파괴적일 수 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은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자기 연민이 저를 휩싸려 한다는 것을 느끼자 저는 제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성스러운 경험을 통해, 주님은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제 시각은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잃은 것이 아니라 충실함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큰 축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절망에 차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희망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끝이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영의 세계는 실재합니다.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참됩니다.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앞으로 나가는 일시적인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타이슨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타이슨의 영향력을 피부에

와 닿도록 느끼게 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친절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휘장 저편은 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휘장 저편으로 간다고 해서 신뢰와 사랑, 가족의 일체감과 같은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느낌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일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유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절대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아침에 재회하기 전까지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은 영이나라.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느니라.”<sup>3</sup>

하지만 구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계속 담대할 수 있습니다.<sup>4</sup>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하신 보혜사를 통해 오는 위안을 간구하면, 쓰라리고 감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도 감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안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자녀를 잃을 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획을 다시 한 번 계시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 한 후, 차를 타고 묘지를 떠나며 그 쓸쓸한 관을 보려고 뒤돌아볼 때 느꼈던, 가슴 찢어지는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언젠가 충만한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과,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sup>5</sup>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질병과 고통을 견디어 내도록 도우실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위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공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sup>6</sup>

저는 첫째 부활의 그 밝고 영광스러운 아침에, 구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랑했던 이들이 무덤에서 나오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그들과 우리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로나에서 8:10~12.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76~177쪽.
3. 교리와 성약 93:33~34.
4. 요한복음 16:33 참조.
5. 요한복음 14:18~19.
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쪽.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선교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과 인사를 전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오늘 아침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형제는 18세로, 자매는 19세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 조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은 2년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재차 확고하게 강조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sup>1</sup> 다시 몬슨 회장은 자매에 대해서는 선교 사업이 환영할 만한 선택이지만 책임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숙한 부부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또 한 번 권유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선교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저축합니다. 부모, 가족, 친구, 선교사 일반

기금 기부자들 역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선교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봉사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선교사 본인과 미래 배우자, 그리고 자손의 영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봉사하려는 소망은 그 사람의 개종, 합당성, 준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니며, 우리와 선교사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몬들과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거나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더 이산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시길 바라며, 거기에 우리가 뭔가 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도록 권합니다.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교, 영원한 진리, 선교사들은 그 같은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선교사들은 교육, 직업,

데이트, 그리고 그 나이 때 으레 하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룹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강한 소망 때문에 18~24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미뤄 둡니다.<sup>2</sup> 더 나이가 들어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현재 세 딸 내외와 손자 한 명과 손녀 한 명, 이렇게 총 여덟 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별칭인 몰몬이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몰몬이 원래 명칭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몰몬경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경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조직하셨고 사도, 칠십인, 그 밖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신권 권세를 주셨습니다.<sup>3</sup>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 사람이 의식과 교리를 바꾸었고, 원래의 교회와 신권은 사라졌습니다. 암흑시대가 지난 후,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현재 그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존재하며 그분의 성스러운 인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sup>4</sup>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이기신 후,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sup>5</sup>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명을 따랐으며, 그들을 도와 주님의 명을





밀라노, 이탈리아

이루도록 다른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인도 하에 똑같은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 시대에 주님이 직접 다시 새롭게 하신 신성한 명을 받들어, 충만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up>6</sup>

십대 후반, 혹은 이십 대 초반인 선교사들은 세상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진리에 대한 간증이라는 은사로 축복받았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주님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은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복음을 나눕니다.

선교사들은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칩니다.<sup>7</sup> 그들은 주님의 첫 번째 후기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고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선교사들과 마주쳤거나 혹은 그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보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애리조나 주 메사에 사는 60대 중반의 개신교 신자, 제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리의 부친은 침례교 목사였고 모친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제리와 절친한 친구인 프리실라는 분만 중에 아기를 잃고 그 직후 쓰러린 이혼을 하면서 겪은 마음의 고통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홀어머니로서 고군분투하던 프리실라에게는 1남3녀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리에게 속마음을 터놓으며,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리는 온 힘과 사랑을 다해 프리실라의 삶이 가치있는 것임을 그녀가 이해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그는 프리실라에게 자신의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던 어느 날에 이 신실한 형제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는 마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세우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리는 조금 어리둥절해하며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이 느낌에 대해 생각하면서 거리를 바라보았는데, 그때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그의 집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우연의 일치”에 깜짝 놀란 제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제리는 “이봐요, 젊은이들. 잠깐 멈춰 보시오!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하고 외쳤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상기된 표정으로 두 젊은이는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제리는 그들의 이름표를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리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거리를 보니 이렇게 여러분이 보였어요. 나 좀 도와주시겠소?”

선교사들은 웃으며 “물론이죠.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프리실라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곧 선교사들은 제리와 함께 프리실라와 그녀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제리와 프리실라,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진실한 기도, 물론경 공부, 교회 회원들과 쌓은 다정한 우정을 통해 신앙을 키워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미 강했던 제리는 그 신앙이 더 커졌습니다. 프리실라의 의심과 자살 생각은 희망과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받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sup>8</sup>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조상에 대해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네 분의 조부모님, 성함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덟 분의 증조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함을 아십니까?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sup>9</sup>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방대한 가족 역사 기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회원이지만 현재 교회에 활동적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종종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sup>10</sup>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선교사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복음의 빛을 다시 가져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독을 이겨 내거나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원들의 사망률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조사한 그 어떤 체계적인 집단보다 가장 낮은 데 속했고, 수명은 더 길었습니다.<sup>11</sup>

어떤 분들은 바쁘고 정신 없이 살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방향이나 목적 없이 통렬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 즉 왜 이 지상에 있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후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능한지를 선교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선교사들은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깨달음을 갈망합니다. 진리를 과학 연구실에서 찾든,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입니다.<sup>12</sup>

배움을 증진하는 것은 현세적인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최근 독자적인 한 연구는 후기 성도가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sup>13</sup> 성경과 물론경을 더 잘 이해하고 인류의 형제애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끝없이 그러한 소망을 품습니다.<sup>14</sup> 이 세상 어디에서든 재해 피해자들에게 구호를 베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원래대로 회복된 그분 교회의 회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우리의 소중한 각 선교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2. 교리와 성약 4:3 참조.
3. 마태복음 10:1; 누가복음 6:13; 10:1; 에베소서 4:11~12 참조.
4. 교리와 성약 1:30 참조.
5. 마태복음 28:19.
6. 교리와 성약 68:8; 84:62; 112:28 참조.
7. 고린도전서 2:2; 니파이후서 25:26 참조.
8. 애리조나 메사 선교부 전 회장이었던 터블유티레이시 왓슨과 나는 개인적인 대화.
9. 제가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쓴 부분에서 여러분은 또한 교회 회원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 활발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친척, 친구 및 교회 지도자들 역시 기쁘게 도와줄 것입니다.
11. James E. Enstrom and Lester Breslow, "Lifestyle and Reduced Mortality among Active California Mormons, 1980-2004", *Preventative Medicine*, vol. 46(2008), 135 참조.
12. 교리와 성약 93:36 참조.
13. U.S. Religious Knowledge Survey(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Sept. 28, 2010), 7 참조.
14. Ram Cnaan, Van Evans, and Daniel W. Curtis, *Called to Serve: The Prosocial Behavior of Active Latter-day Saints*(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Social Policy and Practice, 2012); "Mormon Volunteerism Highlighted in New Study"(Mar. 16, 2012),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거룩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할수록 후회의 길 위에 있게 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 후회에 관하여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과 선교 사업에 관한 역사적이고 영감 어린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우리와 앞으로 올 많은 세대가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필멸의 존재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놀라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상에 그리 오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는 거의 눈 깜빡할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습니다.]"<sup>1</sup> 우리는 육신을 남겨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한 채 우리 존재가 거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생이 꼭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며, 미래는 우리 앞에 끝없이 계속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실제로는 그 길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합니다.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에 우리가 내린

선택과 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여러 소중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 말입니다.

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한 간호사는 환자들이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종종 이런 단순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sup>2</sup>

필멸의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면 종종 생각은 명료해지고 사물을 바로 보는 시각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에 관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원리들이, 그것들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고 놀랐습니다.

복음 원리는 신비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전에서 공부해 왔고, 주일학교 시간에 토론했으며, 교회 모임에서 자주 들어 왔습니다. 이 신성한 원리와 가치들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아름답고,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후회할 일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제일 보편적인 후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돌아가는] 직장이라는 쳇바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sup>3</sup>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추억을 공유할 기회를 놓쳐 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심지어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무슨 훈장마냥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취나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완전한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하신 그분의 짧은 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모임 사이에 바쁘게 다니시거나 목록에 적힌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대신, 목적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인정 많고 사려 깊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려집니다. 그분이 주위 사람들과 교체하실 때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사랑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한한 가치를 아셨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들어 올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장하기가 쉽습니다. 마우스만 클릭하면 수천 명의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기술은 훌륭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주된 방식이 우스운 사진을 올리거나 별것 아닌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활동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려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주고 진실된 시간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 내 잠재력을 실현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들려준 또 다른 후회는 자신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많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직업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성공이 이 세상에서 제아무리 우뚝 솟아 있는 듯 보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여정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보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전세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을 가르며”<sup>4</sup>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의롭게 생활하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의 일생에 걸쳐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덧없고 사소하고 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나 많이 바칩니까? 우리는 하찮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두는 것]”<sup>5</sup>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마지못해 발을 질질 끌면서,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조급해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에 불평하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물속에 발가락만 담고서 수영을 했다고 우기는 어린아이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한 간증을 선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의 삶이 있는 실례가 되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더 충실하고자 바라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여 성스러운 성약에 충실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건전한 가족 활동에 시간을 더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 역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실제로 꾸준히 행할 때, 우리 삶에는 하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구주를 따르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룩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할수록 후회의 길 위에 있게 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우리가 구주의 은혜에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집니다.

### 나 자신이 더욱 행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들려준 또 다른 후회는 다소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행복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어딘가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무언가, 즉 더 나은 가족 여건, 더 풍족한 생활, 또는 힘든 시련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더 자주 뒤를 돌아보며, 외적인 상황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하며,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제 아내 해리엇과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야외로 나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자전거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멀리 또는 빨리 달리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하며 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며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제 훌륭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매우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진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순간을 즐기세요.”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여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감미롭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시점만을 보느라 눈앞에 있는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망쳐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 음악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즐기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다양한 음과 선율, 화음을 듣고 이으며 감상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기도의 끝 부분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영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sup>6</sup>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상황이야 어떻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고 있던 간에 우리의 하루하루에는 무엇인가 누리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려 하지만 한다면, 매일매일에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눈으로는 조금 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봐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sup>7</sup>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는]”<sup>8</sup>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사드릴 만한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가] …… 더하여지리라.”<sup>9</sup>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그분이 마련하신 관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진리로, 그리고 이 필멸의 여정에 속한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sup>10</sup>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합니다.

#### 결심에 관하여

언젠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는지, 또는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몇 가지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몇 가지를 결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고자 더 진지하게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내일 하게 될 심각한 후회 중 상당수는 오늘 구주를 따를 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거나, 과거에 내린 어떤 결정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귀중한 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을 씻어 주실 수 있으며,<sup>11</sup> 죄의 짐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sup>12</sup>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과거를

뒤로하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sup>13</sup> 더 잘하겠다는 결의, 특히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나날은 빠르게 사라지며, 때때로 죽음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 것이며 언젠가 우리의 부활한 육신과 결합하여 불멸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는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다[.]”<sup>14</sup>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는 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그 영원한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을 죽음을 목전에 두기까지 기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엘마서 40:11.
2. Susie Steiner,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 *Guardian*, Feb. 1, 2012, [www.guardian.co.uk/lifeandstyle/2012/feb/01/top-five-regrets-of-the-dying](http://www.guardian.co.uk/lifeandstyle/2012/feb/01/top-five-regrets-of-the-dying) 참조.
3. Bronnie Ware, in Steiner,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
4.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1924), 359.
5. 마태복음 6:20.
6. 시편 118:24.
7. Antoine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trans. Richard Howard(2000), 63.
8. 모사이야서 26:39; 또한 교리와 성약 59:7 참조.
9. 교리와 성약 78:19.
10. 엘마서 26:35.
11. 요한계시록 7:17 참조.
12. 마태복음 11:28-30 참조.
13. 시편 24:4 참조.
14. 모사이야서 16:8; 또한 고린도전서 15:54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니스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톱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터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제이 이 젠슨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말린 케이 젠슨 장로를 그 직에서 해임할 것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를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제이 이 젠슨 장로,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에서 해임하고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와 래리 더블유 기븐스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함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외 현재 구성된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헌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훌륭한 부모가 됨

훌륭한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구할 방법은 많습니다.

**올**여름, 저는 특별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9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이정표에 이를 때, 지난 일과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90년을 살았다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큰 성취로 여겼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는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발전을 보아 왔습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전화, 비행기는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위대한 혁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찾고 나누고 활용하는 방법이 거의 매일 같이 변합니다. 이 나이에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급속한 변화에 놀랍니다. 현대의 엄청난 발전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이미 그 가운데 일부는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가치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대적이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결혼과 가족은 가정이라는 닻과 안전한 항구를 제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각자 그 가정에서 선한 영향을 받고 영원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90회 생일 기념을 고대하던 제 가족은 제가 긴 생애 동안 했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조카딸은 제가 거의 70년 전인 제2차 세계 대전 때 태평양의 사이판 섬에서 해병대로 복무하며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 여러 통을 모아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 중 하나가 특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께서 1945년 어머니날에 받아 보시도록 보내 드린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다정한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집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그분들께 영원히 감사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라며, 그 편지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의 전형적인

본보기셨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생활과 올바른 자녀 양육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1945년 어머니날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지난 4년 동안 어머니날에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제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해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고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또 한 번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차선책으로 제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셨던 작은 일들이 그립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깨끗한 셔츠와 양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셔랍을 열기만 하면 됐고,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늘 준비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는 항상 깨끗한 침대보가 깔려 있고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해 줄 이불이 적당히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편지의 처음 두 단락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매우 감성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아마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야전침대에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기에 집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보낸 제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모범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은 정말 즐거웠기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누리던 것과 똑같은 기쁨을 계속 느끼기 위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시간을 내서 가족을 행복에





데려가셨고, 우리는 어머니를 믿고 등산부터 공놀이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두 분만 따로 휴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서 떨어져 있지만, 가족생활이 몹시 즐거웠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제 행동이 어머니의 인품을 나타낼 것이기에 저는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노라 소니 페리의 아들로 불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어머니의 아들로 불리기에 늘 합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지난 4년 동안 어머니날에 보여 드리려고 계획했던 좋은 것을 어머니께 꼭 보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머니께서 하신 모든 훌륭한 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을 다해, 톱 올림.”<sup>1</sup>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자랐던 가족,

와드, 스테이크, 지역 사회의 문화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에게는 공통된 가치 체계, 기대, 관행이라는 독특한 복음 문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 문화 또는 생활 방식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각자 삶을 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아담이 지상 생활의 책임에 대해 첫 번째로 받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하여 합하는 것은 이 지구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될 뿐 아니라, 지상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것은 신권 권능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선언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전을 얻게 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대적의 영향력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해치고 파괴하려 합니다. 교묘하고 조심스럽게 위장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헌신을 공격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문화와 성약을 약화시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교회와 학교 같은 다른 기관도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잠언 22:6)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책임은 훌륭한 부모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부모라는 위대한 청지기 직분에서

훌륭한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구할 방법은 많습니다. 더 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다섯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하고, 가능한 한 자주 함께 식사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대화하고 가치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들, 청소년 지도자들, 반 회장단 및 정원회 회장단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그들이 본질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간증을 나누고,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명하고 간단한 가족 규칙과 기대치, 건전한 가족 전통 및 의례, 그리고 자녀가 집안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게 함으로써 예산을 세우고 지축하며 자신이 번 돈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가족 경제”에 기초하여 가족의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더 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제안은 교회의 문화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우리의 가족 문화는 자녀의 포레 문화, 오락 및 유명 인사의 문화, 신용 및 권리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인터넷 및 미디어 문화에 내재한 “대적의 불화살”(니파이전서



15:24)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요한복음 15:19)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침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봉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훈으로뿐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sup>2</sup>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sup>3</sup>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참된 동반자로서 조화를 이루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에 관해, 그리고 자녀들과 효율적으로 대화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하고 뾰뾰합니다. 강한 가족 문화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 또 하나의 방아막을 더하고, 세상의 영향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의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원한 자녀를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의 일과 영광을 가져다주는 데 협력하고 동참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 톰 페리가 사이판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1945년 5월 3일자 어머니날 편지.
2. Joseph Fielding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48, 153.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페** 리 장로님, 장로님은 분명 교회 전체에서 제일 젊은 90세이실 겁니다. 여러분도 장로님이 튀어 오르듯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선하고 잘 익은 토마토나 나무에서 갓 따낸 잘 익고 즙 많은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저는 60년 전 제 선친께서 유타 주 할라데이에서 조그마한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그곳에 벌통을 두어 복숭아꽃가루받이를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꽃들은 마침내 아주 크고 달콤한 복숭아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순한 꿀벌들을 좋아하셨고, 벌 수천 마리가 함께 일하며 복사꽃에서 난 꿀을 모아 달고 노란 벌꿀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벌꿀은 자연이 주는 가장 영양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영양학자들은 벌꿀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 즉 효소,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을 함유한 식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은 벌집을 다루는 일에 저를 늘 끌어들이려 하셨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벌들을 직접 돌보게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약 육만 마리의 벌들이 운집한, 잘 조직된 벌집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꿀벌은 가루받이를 하고, 꿀을 모으며, 그 꿀을 농축하여 벌꿀을 만드는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집착력은 우리 창조주께서 벌에게 부여하신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벌꿀 450그램을 생산하려면 같은 벌집에 사는, 평균 이만에서 육만 마리가량 되는 벌들은 수백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고,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여행합니다. 겨우 몇 주에서 넉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수명으로, 꿀벌 한 마리가 벌집에서 벌꿀 생산에 기여하는 양은 찻숟가락으로 십이 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비록 전체 벌꿀 양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각 꿀벌이 만드는, 찻숟가락

십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꿀은 벌집이 존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벌들은 서로 의지합니다. 몇 마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모든 벌이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 하면서 가벼워집니다.

벌집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문경에서 수천 년 전에 야벳 백성이 미대륙으로 여행할 때 꿀벌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이더서 2:3 참조) 브리검 영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주변의 척박한 사막과 같았던 황무지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옥한 분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척자들 사이에 필요한 힘찬 협동심을 고취하고자 벌집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공통된 비전과 부지런한 노력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전의 내부와 외부에서 벌집 모양을 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맥 뒷마당에서 자란 호두나무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도 벌집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징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는]”(교리와 성약 58:27)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념하겠다는 집약된 결심으로 벌집처럼 움직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 39~40)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며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주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시민을 섬긴다면, 세상에 얼마나 큰 선을 이룰 수 있을지 말입니다.

야고보의 서한에 나오듯이 봉사는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야고보서 1:27 참조)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봉사, 그중에서도 특히 화재,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하는 인도주의적 봉사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몹시 감사한, 비상 시의 대응은 서로의 짐을 가벼이 하는 한 방법으로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작은 온정에 찬 행동을 매일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모여 수백만 번에 이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리게 되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혼탁한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봉사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집약되었을 때 발휘할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치 꿀벌 한 마리가 벌집에 제공하는 찻숟가락 십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벌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수백만의 친절할 행위를 통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나타날 때 그 사랑은 신앙, 소망, 사랑이라는, 생명을 유지하는 끈이 되어 세상을 감미롭게 하고 살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꿀벌처럼 되고, 그런 헌신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특히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주중에도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단지 할 일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로 돌이켰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신앙의 씨앗을 우리 영혼의 비옥한 토양에 깊이 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엘마가 이야기했던 마음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엘마서 5:12~21 참조)

기억하십시오, 벌꿀에 필멸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구주의 마음과 같이 되려면, 우리의 간증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뒤에야 우리는 참되게 돌이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영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거나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35~37 참조) 그 대신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다운 다음 특성들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 온화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 친절하며, 위선과 간교함이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2 참조)
-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느낍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 생각이 언제나 덕스럽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 더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며,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종교적인 열광이나 광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만, 복음의 교리가 우리 가슴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개심을 향해



합리적인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에 맞는, 고결하고 일관된 행동과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고결함은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또 영적 민감성을 증폭시켜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과 영을 더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삶에 기쁨을, 영혼에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의 계명을 지키으로써 그분을 따를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 평안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매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린 소년 소녀, 청남 청녀, 독신 성인,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교회 회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한 명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 내내 마음을 신앙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치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모을 수 있는 꽃들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커지고,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봉사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즉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의 친절할 말과 행동을 통해, 봉사와 사랑에서 우리나라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82쪽)

저는 여러분이 집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만이 해 줄 수 있는 특정한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영의 속삭임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그분의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우려는 강한 동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작은 꿀벌이 벌집에 제공하는 찻순가락 십이분의 일 분량의 벌꿀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누려는 신앙심이 갖든 수만, 수백만 명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에 곱해진다면, 날로 사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올 선한 영향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단합하여 우리 가족과, 외롭고, 궁핍하고, 낙담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와 평강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 진리와 간증을 나누는 일을 포함하여 매일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영감을 구하기를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찬송가, 182장)라는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헌신적인 작은 꿀벌이 자기 일에 충실하듯이, 우리도 이 사업에 충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멕시코 시티, 멕시코



래리 에코 호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몰몬경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저는 미합중국 해병대에 자원했습니다. 기초 훈련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 판티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54명의 해병대 지원자들과 함께 막사에 있는 침상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 교관은 실전에서 단련된 베테랑 군인이었는데, 발로 막사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온갖 불경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처럼 무섭게 자기소개를 한 후, 그는 막사 한쪽 끝에서부터 신병들에게 이것저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관은 저속한 말을 내지르며 각 신병에게서 예외 없이 조롱거리를 꼼꼼하게 찾아냈습니다. 그가 열을 옮겨갈 때마다 각 신병은 명령받은 대로 묻는 말에 “네.” 또는 “아닙니다, 교관님.”이라고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차렷 자세를 하도록 지시받았기에 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제 더플백(거친 방목 직물로 짠 가방-웁긴이)을 움켜잡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제 뒤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제 물건을 살펴본 다음,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몰몬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소리를 지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앞으로 더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몰몬인가?”

저는 명령받은 대로 “네, 교관님.” 하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몰몬경을 왼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이 책을 믿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네, 교관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큰소리로 몰몬과 몰몬경을 비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침대로 다시 가서 몰몬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를 지나쳐 갔고 계속해서 나머지 신병들 모두를 불경한 말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종종 왜 그 거친 해병대 하사관이 그날 저를 그냥 놔두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간증은 두 선교사와 제사 정원회 고문의 도움으로 제가 성신을 통해 받은 소중한 은사입니다.

제가 열네 살 때 우리 가족은 리 피어슨과 보이드 캠퍼이슨 선교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웠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제사 정원회 고문인 리처드 보렌 형제님은 제게 몰몬경을 읽도록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몰몬경을 다 읽을 때까지 매일 밤, 적어도 열 쪽씩 읽어 나갔습니다.

저는 표제지에서 몰몬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맨인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읽었습니다.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소개 부분에는 레이맨인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된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이 저의 아메리카 인디언 조상에 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몰몬경은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니파이전서 2:20)으로, 주전 600년경에 이주한 백성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백성 중 일부는 후에 레이맨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미대륙 어딘가에 살았던 이 고대 주민에게 역사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성역에 관한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 여러 구절에는 이들이 점차 미대륙 전역과 인근 섬들로 퍼져 나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앨마서 63:9~10 참조) 그들의 선지자들은 많은 이방인이 결국 이 약속의 땅에 올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레이맨인에게 임하여 그들이 흩어지고 괴로움을 당하며 거의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니파이전서 13:10~14 참조)

제 증조할아버지인 에코 호크는 포니족 인디언으로, 현재의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셨습니다. 증조부가 열아홉 살일 때, 포니족은 그들의 근거지인 9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정착민에게 내 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1874년, 포니족은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클라호마 인디언 구역에 있는 작은 보호 지역으로 강제 이주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후, 12,000명 이상이었던 포니족 인구는 700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른 부족들처럼, 포니족도 흩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거의 멸종했습니다.

몰몬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맨인의 후손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 후기에 관한 부친의 시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또 그 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이다.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니파이전서 15:14)

몰몬경은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책에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64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일곱 살에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저는 모로나이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강력한 영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읽으시도록 모든 분을 향해 촉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몰몬경 백성의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몰몬경을 읽고 또 읽도록 권합니다. 몰몬경에 담긴 약속을 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십시오.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십시오.

몰몬경의 선지자인 아멜레카이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께서 사십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욘나이서 1:26)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몰몬경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버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구 주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sup>1</sup>

이것은 오래 전에 제 아버지께서 제게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제게 집안일을 시키셨고 그 대가로 용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당 50센트가 조금 넘는 그 돈을 종종 영화 보는 데 썼습니다. 그 당시 11세의 영화관 입장료는 25센트였습니다. 나머지 25센트는 개당 5센트짜리 초콜릿 바를 사는 데 썼습니다. 영화 한 편과 초콜릿 바 다섯 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습니다.

열두 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줄을 서 있던 저는 12세 요금이 35센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콜릿 바 두 개가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런 회생을 감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저는 ‘내 모습이 일주일 전에 비해 달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매표소에서 25센트짜리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표원은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세 개가 아닌, 평소처럼 다섯 개의 초콜릿 바를 샀습니다.

이 일로 한껏 신이 난 저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제 엄청난 성공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분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네 영혼을 10센트에 팔 셈이냐?” 그 말씀은 열두 살 된 제 가슴을 찢었고,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어느 저활동 멧기세탁 신권 소유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원정 경기가 잦은 출중한 팀에서 뛰는 재능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팀은 일요일에도 연습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 팀은 주요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가 신권 소유자로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sup>2</sup>이 주어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전국 대회 우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보다 가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점잖게 말한 후 감독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세속적인 것에 물들기란 무척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뜻대를 지나쳐 바라[보라]”<sup>3</sup>고 압력을 가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한잔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하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적이 하는 질문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가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가 누구관대 내가 알아야 하리요”<sup>4</sup> 그런 후 그는 영혼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죄에 대해 자기변명을 하다 보면 사탄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과 기업을 우유 한 통,<sup>5</sup> 잘못 쓴 이름,<sup>6</sup> 팔죽 한 그릇<sup>7</sup>과 맞바꿨습니다.

10센트 또는 전국 선수권 대회같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가인처럼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고쳐야 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물리치느냐” 아니면 “끝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sup>8</sup>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기뻐하시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부자 청년이 구주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으나 구주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 네게 있는 것을 다 팔[라]”<sup>9</sup>고 말씀하시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자이자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라모나이의 부친인 레이맨인 왕은 영생에 관해 같은 질문을 했으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겠느냐]? ……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sup>10</sup>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 아론을 통해 왕에게 주신 응답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sup>11</sup>

왕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하고는 겸손히 꿇어 엎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sup>12</sup>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버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변명, 자기 합리화, 변명을 위한 방어 조치, 미루는 버릇, 외모, 자만심, 비판적인 생각,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sup>13</sup>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려면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을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맹렬한 적을 맞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sup>14</sup>하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함은 서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면 죄가 되는 일도 있고, 그 반대로, 안 하면 죄가 되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때에 한 모임에 가던 도중에 이 중요한 진리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년이 길가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한 음성이 말했습니다. “멈춰서 저 소년을 도와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곧장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멈춰선 안 돼. 늦을 거야. 감리 역원이 늦게 들어갈 순 없잖아.’

집회소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가서 그 소년을 도와라”는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교회 회원 아파시에게 주며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20분 후 저는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열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소년의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아크라의 빈민촌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관리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년은 숙식비를 벌기 위해 길에서 말린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상을 마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 안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번 돈을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파시와 저는 소년이 돈 없이 돌아가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필시 매를 맞을 것이며, 그 후 거리로 쫓겨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눈에 처음 띄었을 때가 바로 이 소년에게 그와 같은 공포가 엄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년을 안심시키고 잃어버린 돈만큼을 쥐여 준 뒤, 관리인이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전에 없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둘째,





저는 우리에게 임하는 영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의 염려나 불편에 관계없이 “곧”<sup>15</sup>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구주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개심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구주께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 왔으되”<sup>16</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길을 잃고, 가장 미약하며,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sup>17</sup> “열심히 노력하여”<sup>18</sup> 다른 이들이 개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연민과 사랑으로 탄자를 받아들이고<sup>19</sup> 절망에 찬 고아들의 울음소리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애원<sup>20</sup>과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 …… 능력 있는 사람들이 …… 자신을

약삭빠른 중간자로 보기를 바랄 뿐이다.”<sup>21</sup>

최근에 한 스테이크 대회가 끝났을 때 제게 다가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은 어느 십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탄은 우리가 목숨을 이 세상의 초콜릿 바와 선수권 대회 우승에 팔아넘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며, 우리의 손이 미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땅의 보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sup>22</sup> 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니카라과에 갔을 때, 우리가 방문한 어느 겸소한 집에서 팻말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간증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 간증은 제 영혼의 보화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고, 구주께서는 그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16:26.
2. 교리와 성약 84:38.
3. 야곱서 4:14.
4. 모세서 5:16.
5. 토머스 비 마쉬의 아내와 해리스 부인 간 다툼의 중심에는 우유와 후착유(크림 성분이 많은 우유의 일부분) 문제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재료를 함께 모아 치즈를 만들기로 했다. 마쉬 부인이 우유 속에 후착유를 넣지 않고 혼자만 쓰려고 빼돌린 것을 발견한 해리스 부인은 불평했고 두 여성은 다투게 되었다. 토머스 마쉬는 이 문제를 감독에게 제소했지만, 감독은 해리스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문제는 감독에서 고등 평의회를 거쳐 제일회장단에까지 올라갔으나 모두가 마쉬 부인이 잘못된 것으로 동의했다. 이 문제로 토머스 마쉬와 총관리 역원 사이에는 앙금이 깊어졌으며, 곧이어 토머스 마쉬는 미주리 행정관 앞에서 물론들이 미주리 주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증언했다. (George A. Smith, “Discourse”, *Deseret News*, Apr. 16, 1856, 44 참조).
6.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사이몬즈 라이더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장을 보냈을 때 라이더(Ryder)는 활자체로 쓴 계시문에 자기 이름이 “Rider”라고 적힌 것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났으며, 그 일로 배도에 이르러 결국 선지자에게 타르 칠을 하고 깃털을 바르는 일에 가담했다. 라이더는 조셉 스미스가 보통 서기에게 계시를 받아쓰게 하므로 철자가 틀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Milton V. Backman Jr., *The Heavens Resound: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Ohio, 1830-1838* [1983], 93-94; Donald Q. Cannon and Lyndon W. Cook, eds., *Far West Record: Minut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30-1844* [1983], 286 참조).
7.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에서가 “떡과 팔죽”(34절)을 먹기 위해 그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을 알 수 있다.
8. 교리와 성약 19:18~19 참조.
9. 마가복음 10:21~22 참조.
10. 엘마서 22:15.
11. 엘마서 22:16.
12. 엘마서 22:18.
13. 엘마서 5:14~19 참조.
14. 엘마서 60:7.
15. 마가복음 1:18.
16. 마태복음 18:11. (한국어 성경에 누락된 부분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내용으로 대체함-옮긴이).
17. 야곱서 1:8.
18. 교리와 성약 58:27.
19. 누가복음 15:11~32 참조.
20. 조셉 스미스-역사 1:15~16 참조.
21. Neal A. Maxwell, *Deposition of a Disciple* (1976), 88.
22. 교리와 성약 19:38 참조.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성전 표준

이 교회에서 따르는 성전 건축의 높은 표준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이며 상징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름다운 유타 브리검시티 성전을 둘러보면서, 유서 깊은 하와이 라이에 성전의 일반 공개와 재헌납 및 문화 행사를 담당하는 코오디네이터로 봉사하며 경험한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대대적인 개조 공사가 끝나기 수개월 전에, 저는 성전부의 집행 책임자인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과 성전부 직원들과 함께 성전을 둘러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계약 업체의 여러 직원들도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방문 목적 중 하나는 공사의 진척 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시점에 공사는 85퍼센트 가량 진척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워커 장로님과 성전부 직원들이 공사를 점검하고 공사 감독관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차례로 방을 옮겨가는 동안 저는 한 형제님이 손으로 벽면을 훑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몇 차례 그렇게 한 후 손가락을 비벼 보고는 공사 감독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면이 거칠군요. 벽면이 거친 것은 성전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벽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세요.” 감독관은 그럴 때마다 성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 내에서 사람의 눈이 거의 가지

않을 곳에 이르렀을 때, 벽면을 지적했던 형제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는 새로 설치한 아름다운 납 유리창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든 작은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간, 너비 0.6미터에 높이 1.8미터 크기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간단한 무늬의 일부분인 5센티미터짜리 작은 정사각형 색 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정사각형은 비뿔어졌군요.” 제 눈에는 그 정사각형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측정 장치를 가지고 자세히 점검해 보니, 이 작은 정사각형이 정말로 3밀리미터만큼 비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관은 이 창문은 성전 표준에 맞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것처럼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결함 때문에 창문 하나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창문이 성전 내에서 사람의 눈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군가 그 결함을 알게 되거나 심지어 이 창문이 있는지조차 알 확률은 분명히 희박했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경험에서 배운 것, 아니 배웠다고 생각한 내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가 지난 후

완공된 성전을 둘러보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이전 방문에서 경험한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개조된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 들어서면서 정교하게 마감된 성전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습니다. “거친” 벽과 “결함이 있던” 창문에 다가가면서 제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과연 공사 감독관은 벽면을 매끄럽게 했을까? 창문은 실제로 교체되었을까? 거칠었던 그 벽면에 갔을 때 저는 모든 벽에 아름다운 벽지가 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관은 거친 벽면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말인가, 그냥 덮어 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당초 이 벽에 벽지를 바르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지를 바를 거면서 어째서 눈에도 띄지 않는, 조금 거친 벽면이 문제가 되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결함이 있는 창문이 있던 곳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닿을 듯한 아름다운 화분이 창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관은 비뿔어진 작은 정사각형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말인가, 그냥 감춰 버렸잖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식물의 잎을 제치고 창문을 보니 정말로 교체되어 있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비뿔어졌던 조그만 정사각형이 이제는 깔끔하고 반듯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이 창문 앞에 식물을 두는 것이 실내 장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져 보거나 알아볼 사람도 거의 없는데 벽면이 조금 거칠거나 창문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 하여 추가 작업을 하거나 심지어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는 시공 업체에 그토록 높은 표준을 요구했을까요?

깊은 생각에 잠겨 성전을 나서면서, 저는





재손질된 성전 외부를 올려다보다가 “주님께 기록함, 주님의 집”이란 글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교회의 성전은 공언된 그대로입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들은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지며, 성전 안에서는 성스러운 구원의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성전이 누구의 집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건축 표준을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여 드릴 뿐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부에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계시에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금과 너희의 은과 너희의 보석을 가지고 오라. 또 너희의

모든 골동품을 가지고, 그리고 골동품에 대한 지식을 가진 모든 자를 데리고 오라. …… 그리고 땅의 모든 귀한 나무[를] …… 가져오라. ……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으라.”<sup>1</sup>

이것은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가장 뛰어난 재료와 장인들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sup>2</sup>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식을 적정하게 따라 교회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육안이나 손으로는 절대 결함을 보거나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노력을 얼마큼 기울였는지,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를 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함 것도 그 안에 들어움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참으로 나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니, 이는 내가 그 안에 들어 갈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그 집이 더럽혀지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영광도 그 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기록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라.”<sup>3</sup>

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알게 될 때,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를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잘못을 고치려고 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면] ……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한다]"<sup>4</sup>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이 교회에서 따르는 성전 건축의 높은 표준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이자 상징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에 주었던 가르침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sup>5</sup>

우리 각자는 가장 훌륭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숨씨로 빚어진 기적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나이가 되어 죄와 유혹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면 자신의 성전에 개조와 보수 공사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에는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친 벽면이나, 교체가 필요한 영혼의 창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따라야 할 성전 표준은 완벽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도록 온 힘을 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결함과 부족을 제거함으로써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1. 교리와 성약 124:26~27.
- 2. 열왕기상 6~7장 참조.
- 3. 교리와 성약 97:15~17.
- 4. 교리와 성약 121:37.
- 5. 고린도전서 3:16~17; 또한 19절 참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의 시련

강렬한 불이 쇠를 강철로 바꾸듯이, 극심한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함을 유지하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10년 전, 아내 캐시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던 시절에 브라질 상파울루 인터라고스 선교부는 데이비드 매리엇 회장님이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부인 닐, 그리고 세 아들인 월, 웨슬리, 트레이스는 우리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살던 집과 하던 일, 그리고 가족들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매리엇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 회장님에게는 스물한 살 된 조지아라는 의로운 딸이 있었는데,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딸이 교회 모임 후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받은 연락으로는 조지아에게는 별일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지아의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조지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브라질에서 밤 비행기로 날아왔습니다. 다음 날, 인디애나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만난 자녀들은 조지아가 세상을 떠날 때 곁을 지켜주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때부터 그 후 여러 달과 여러 해가 지나도록 매리엇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흐느끼고, 기도하고, 조지아 이야기를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우리는 보웬 가족과 윌버거 가족의 아름다운 삶에 기뻐, 이와 비슷한 신앙에 관해 들었습니다.<sup>1</sup>

신앙이란 은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인 자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sup>2</sup>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둡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는 신권 열쇠가 있다는 지식은 신앙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며, 강화하려고 힘쓰고, 키우려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수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신앙의 시련]”<sup>3</sup>으로 지칭한 것을 밝혔으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떠올려보십시오.

“시몬아, ……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sup>4</sup>



베드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sup>5</sup>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시련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려고 계획되었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상실하게 하고 그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결의를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대개 식별하기 어렵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결점이나 취약점, 감성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극심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sup>6</sup> 남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 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토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만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sup>7</sup> 우리는 교회라는 안식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음악으로 경배하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신권 축복을 받으며, 성전에 참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sup>8</sup>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권속을 위한 피난처에 안전하게 머무르십시오.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큰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sup>9</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도덕 기준 역시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한때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던 행동[을] 이제는 …… 많은 사람이 ……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sup>10</sup>

교회 내에는 성년 초기를 한참 벗어난 독신 성인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순결의 법을 지킵니다.<sup>11</sup> 이는 신앙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찬사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sup>12</sup> 신약전서에서 구주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sup>13</sup>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도덕적 표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sup>14</sup>는 말씀처럼 직언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도 아마 그녀와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늘 충실하고,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하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가족에게도 무척 사랑받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자녀를 기다렸지만, 아직 독신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주 성전에 가는 것은 제가 영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죠. 순결의 법을 포함하여 제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어떤 축복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요.”<sup>15</sup>

다른 한 친구는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마치고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다. 그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지만 신앙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로 동성에 끌리는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최근에 그는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언젠가 가정을 꾸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생에서, 아니면 다음 생에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앞으로 올 제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위태롭게 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순결의 법]에 따라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어려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저는 좋은 건강, 복음, 사랑하는 가족, 의리 있는 친구들을 축복으로 받았죠.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sup>16</sup>

세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sup>17</sup>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두 친구, 그리고 그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을 실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sup>18</sup>

여기 우리 시대에 공통된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교회에 관한 일부 정보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든 간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985년에 플로리다에 있을 때 직장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에 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는 “Challenging Mormonism’s Roots(시험대에 오른 몰몬이즘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실린 *Time*(타임) 지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마틴 해리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에 발견된 편지를 다루었는데, 거기에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판을 얻게 된 이야기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sup>19</sup>

동료는 이 새로운 정보로 몰몬 교회가 파멸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 문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전하는 바로는, 이후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sup>20</sup> 그 일은 틀림없이 신앙의 시련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전문가들은 그 편지가 완전히 가짜임을 밝혀 냈습니다.(또 위조범도 이를 실토했습니다.) 그 사기극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만을 진심으로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몇십 년 전, 한 교회 지도자가 우리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의 신앙에 의구심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루는 열다섯 명 모두가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한 말씀의 모호한 소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원리는 수시로, 여러 사람을 통해 가르쳐집니다. 우리 교리를 깨닫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직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모로나이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말며, 나의 부친[도] ……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희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sup>21</sup>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sup>22</sup>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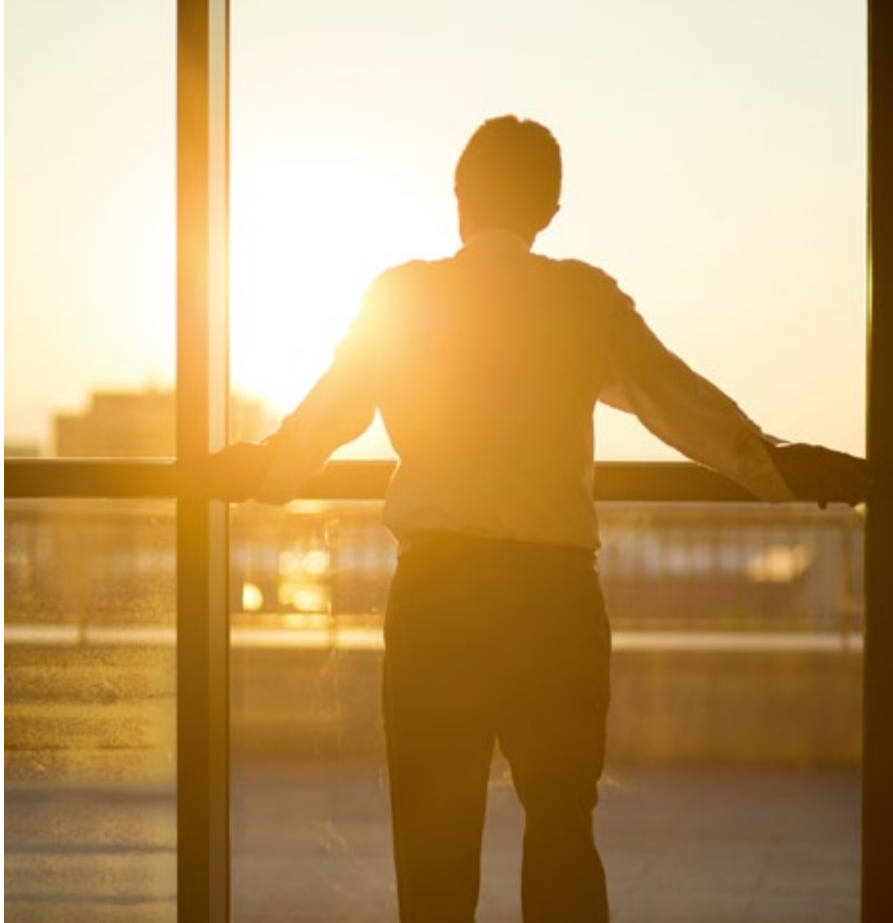
교회의 역사와 운명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기적은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신앙이라는 벽에 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sup>23</sup>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시련이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고뇌와 혼란,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련이 영적 치명타로 직결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련으로 우리가 맺은 성약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sup>24</sup>

강렬한 불이 쇠를 강철로 바꾸듯이, 극심한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함을 유지하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자신의 시련에서 배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문제에 빠른 해법이 없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저는 진정 어떻게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지를 배웠고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알게 된 방법과 그 깊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거나 아니면 훨씬 더 긴 세월이 흘러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 저는 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sup>25</sup>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금보다 더 귀하다”<sup>26</sup>고 표현했으며, 모로나이는 “너희의 신앙의] 시련”<sup>27</sup>에는 증거가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매리엇 가족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는 그들과 함께 조지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조지아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토로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삶을 기리기 위한 하얀 헬륨 풍선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가운데 조지아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자신의 신앙과 이해력이 성장했다고 말했으며, 조지아의 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약속된 증거를 조용히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의 시련이 닥치게 되며, 이는 더 큰 신앙을 가져옵니다.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위로의 확신은 바로 신앙의 시련을 겪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계속 가라. ……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sup>28</sup> 이 모든 성스러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세인 엠 보웬,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리고 앤 엠 딘,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2012년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참조.
2. 요한복음 17:3.
3. 베드로전서 1:7.
4. 누가복음 22:31~32.
5. 베드로전서 4:12; 강조체 추가.
6. 앨마서 1:25.
7. 에베소서 2:19.
8. 교리와 성약 84:20.
9. 모사이야서 18:8~10 참조.
10.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2쪽.
11. 에즈라 테프트 벤슨, “순결의 법”, *성도의 벗*, 1988년 10월호, 36~40쪽; “The Law of Chastity”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7-88 Speeches(1988), 1-5, speeches.byu.edu 참조; 또한 *복음 원리*(2009), 224~232쪽 참조.
1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3. 마태복음 5:28.
14. 요한복음 8:11.
15. 개인 편지, 2012년.
16. 개인 편지, 2012년.
17. 이사야 55:8-9.
18. 요한복음 14:27.
19. Richard N. Ostling, “Challenging Mormonism’s Roots”, *Time*, May 20, 1985, 44 참조.
20. Gordon B. Hinckley, “Lord, Increase Our Faith”, *Ensign*, Nov. 1987, 52 참조.
21. 몰몬서 9:31.
2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23.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6쪽; *Ensign*, May 1975, 65.
24. 힐라맨서 5:12.
2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요”(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1년 1월 9일), lds.org/broadcasts.
26. 베드로전서 1:7; 또한 베드로전서 4:13 참조.
27. 이터서 12:6.
28. 교리와 성약 122:9;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련이 얼마나 심하고, 실망이 얼마나 깊고,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그분은 불변하는 분으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친구로 만들었으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렬한 풀무를 지나고, 깊은 물을 건널 수도 있지만 파멸되거나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 헤어나 더 낫고 정제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Remarks”, *Deseret Evening News*, Mar. 7, 1891, 4); 또한 Jeffrey R. Holland, “Come unto Me”, *Ensign*, Apr. 1998, 16-23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누구도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단합하자는 청원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가 울면서 도움을 구하려 오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를 경험상 잘 압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자녀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러한 감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여 그분의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부름입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와드나 스테이크와 같은 한 단위 조직을 돌보는 것이지만, 사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인종, 신조와 상관 없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지도자들처럼 정치나 공공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국민이나 공무원, 민간 기관 종사자들이 내리는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특히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구주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힘이 거의, 또는 아예 없으며, 자신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것들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필요하며 성인들의 이기적인 이익보다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의사결정자들이 필요합니다.

## I.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성인들의 사악한 범죄와 이기심에 희생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에 휘말린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유괴되어 교전국 사이에서 군인으로 싸웁니다.

국제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성매매와 외설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sup>1</sup>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아동 학대 중 하나는 그들의 출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내 출생률은 25년 만에 사상 최저이며<sup>2</sup>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출생률은 여러 해 동안 대체출산율(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울기)을 밑돌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수적으로 줄어들면 문화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약해지고 급기야는 사라지고 맙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낙태 시술입니다. 낙태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4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sup>3</sup> 여러 지역에서 법률적으로 낙태가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악입니다. 임신 중 일어나는 또 다른 아동 학대는 산모의 부적절한 영양분 섭취 또는 약물 사용으로 태아에게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임 부부가 아이를 바라고 입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무수한 아이가 낙태되거나 태어나기도 전에 해를 입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출생 후에 자행되는 아동 학대나 방치는 좀 더 공공연한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8백만 명의 아이들이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는데, 대개는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그 원인입니다.<sup>4</sup> 세계 보건 기구는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이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합니다.<sup>5</sup> 세계 여러 곳에서 생활하고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 관해 보고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장만할 돈이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sup>6</sup>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초등회 역원은 외롭고 슬퍼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애정 어린 질문에 그 아이는 가냘픈 음성으로 자신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없다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sup>7</sup> 그러한 비극은 아이를 돌보는 많은 사람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대륙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방치되어 해를 입습니다. 빈곤 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 관리 수준이 낮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리적, 문화적 주변 환경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데, 심지어 이런 일은 부모의 방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에 한 후기 성도 경찰관이 경험한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경찰관은 수사를 하던 중 더러운 바닥에서 침구도 없이 함께 부둥켜안고 잠을 청하는 다섯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그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임시로 만든 침대에 아이들을 누이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쪽으로 걸어나갈 때 여섯 살쯤 된 아이가 그를 쫓아와 손을 잡으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입양해 주세요.”<sup>8</sup>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5~6)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정서적 학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교사나 또래 친구들은 물리적 상처보다 더 영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무가치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복지와 성장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sup>9</sup>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포함해 흔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위협이나 따돌림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sup>10</sup>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변화하여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II.

부모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또는 정서적 위협만큼 더 중대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아동 학대를 “끔찍한 행위”라고 부르시며,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짓밟거나 손상하는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sup>11</sup> 유타 대법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러한 사건들의 충격적인 증거들을 조사할 때면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결혼 여부와 그 결혼의 본질과 지속 기간, 더 나아가 그들이 사는 지역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와 기대치입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두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결혼은 그 무엇보다도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결혼은 아버지를 자녀의

어머니에게 결속시킴으로써 아버지를 자녀에게 이어주는 문화적 결속 장치를 제공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이들이 그러한 주된 위치에서 크게 밀려나고 있다.”<sup>12</sup>

한 하버드 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현행 법과 그 경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률과 인기 문학 작품에 드러난, 결혼에 대한 [현재의] 미국의 풍조는 이렇다. 결혼 관계는 일차적으로 배우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혼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를 타할 수 없으며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다. ……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기껏해야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다.”<sup>13</sup>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악”이며 그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게 된다면”<sup>14</sup> 더욱더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이혼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일 년 내에 이혼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sup>15</sup>

부모들이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가르침만 따랐어도 많은 자녀가 양쪽 부모 슬하에서 양육받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sup>16</sup> 아이들에게 가장 힘 있게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모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입니다.<sup>17</sup> 결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유익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결혼 생활과 목표에서 하나가 된 부모에게서 양육받으며 정서적, 개인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른바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혼은 너무 쉽습니다. 한 신중환 학자는 수십 년치의 사회 과학 자료들을 요약하면서 “평균적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결과물을 안겨 주는 가족 구조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친부모”<sup>18</sup>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고가는 “미국에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반면, 자녀의 복지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중요하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sup>19</sup>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부모와 예비 부모가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리 높여 성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유권자의 이기적인 이익과 맞서더라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에서도 희생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41퍼센트가 미혼모에게 태어났다는 최근 보고보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의 복지에 더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sup>20</sup> 미혼모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그 자녀가 결혼한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불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sup>21</sup>

미혼모에게 태어난 대다수의 아이들, 즉 전체의 58퍼센트는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sup>22</sup> 결혼하지 않은 이 남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조사 자료를 보면 그들의 자녀는 비교적 상당히 불리한 환경으로 고통받습니다.<sup>23</sup>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 관계가 중요합니다.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회 과학 자료를 보면 이 결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뉴욕타임스의 한 기고가가 전한 다음 말처럼 “동성 결혼은 사회적 실험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sup>24</sup> 때문입니다.

### III.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예 중 몇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단합하자는 청원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의 강력한 도움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청의 일환으로 저는 후기 성도뿐 아니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 특히 아이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 체계를 지닌 모든 종교인과 그 밖의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sup>25</sup>

종교인들도 순수한 어린이들은 겸손함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이라는, 신약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잘 압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3~4)

물론경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인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제3니파이 11:38; 또한 모로나이서 8:10 참조)

어린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각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Childhood Under Threat*(2004), 26 참조.
2. Haya El Nasser, “National Birthrate Lowest in 25 Years”, *USA Today*, July 26, 2012, A1 참조.
3. Gilda Sedgh and others, “Induced Abortion: Incidence and Trends Worldwide from 1995 to 2008”, *The Lancet*, vol. 379, no. 9816(Feb. 18, 2012), 625-32 참조.
4. UNICEF, “Young Child Survival and Development”, <http://www.unicef.org/childsurvival/index.html> 참조.
5.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2*(2012), 109, 118 참조.
6. *Report of Primary general presidency*, Sept. 13, 2012.
7. *Report of Primary general presidency*.
8. 제프리 알 홀런드, “예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청년 성인들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2년 9월 9일), [lds.org/broadcasts](http://lds.org/broadcasts) 참조; 또한 R. Scott Lloyd, “Zion Not Only Where, but How We Live, Says Elder Holland”, *Deseret News*, Sept. 10, 2012, B2 참조.

9. Kim Painter, “Parents Can Inflict Deep Emotional Harm”, *USA Today*, July 30, 2012, B8; Rachel Lowry, “Mental Abuse as Injurious as Other Forms of Child Abuse, Study Shows”, *Deseret News*, Aug. 5, 2012, A3 참조.
10. “End the Abuses”, *Deseret News*, June 12, 2012, A10 참조.
11. 토마스 에스 몬슨,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리아호나*, 2002년 6월호, 3쪽; *Ensign*, May 1990, 53.
12. W. Bradford Wilcox and Elizabeth Marquardt, eds., *The State of Our Unions: Marriage in America*(2011), 82.
13. Mary Ann Glendon, *Abortion and Divorce in Western Law: American Failures, European Challenges*(1987), 108.
14. David O. McKay, “Structure of the Home Threatened by Irresponsibility and Divorce”, *Improvement Era*, June 1969, 5.
15. Diana B. Elliott and Tavia Simmons, “Marital Events of Americans: 2009”, *American Community Survey Reports*, Aug. 2011 참조.
1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7. 델린 에이치 옥스,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쪽 참조.
18. Charles Murray, *Coming Apart: The State of White America, 1960-2010*(2012), 158.
19. Ross Douthat, “Gay Parents and the Marriage Debate”, *New York Times*, June 11, 2012, 32 <http://douthat.blogs.nytimes.com/2012/06/11/gay-parents-and-the-marriage-debate>.
20. Joyce A. Martin and others, “Births: Final Data for 2010”,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 61, no. 1(Aug. 2012), 10 참조.
21. William J. Doherty and others, *Why Marriage Matters: Twenty-One Conclusions from the Social Sciences*(2002); W. Bradford Wilcox and others, *Why Marriage Matters: Thirty Conclusions from the Social Sciences*, 3rd ed.(2011) 참조.
22. Martin, “Births: Final Data for 2010”, 10-11 참조.
23. Wilcox, *Why Marriage Matters* 참조.
24. Douthat, “Gay Parents and the Marriage Debate.”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그 부모가 동성애 관계를 가진 경우, 청년이 된 그 자녀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Mark Regnerus, “How Different Are the Adult Children of Parents Who Have Same-Sex Relationships? Findings from the New Family Structures Stud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1 [2012], 752-70 참조).
25. 후기 성도들은 특히 부모 역할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이에 헌신한다.(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Mormons in America: Certain in Their Beliefs, Uncertain of Their Place in Society*, Jan. 12, 2012, 10, 16, 51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권을 지닌 남성인 우리는 사회와 가정, 교회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형** 제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성인 남자나 소년들의 문제에 관해 많은 말과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인 책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Why There Are No Good Men Left*(좋은 남자가 왜 더는 존재하지 않는가), *The Demise of Guys*(사내들의 종말), *The End of Men*(남성의 종말), *Why Boys Fail*(남학생은 왜 낙제하는가), *Manning Up*(남자답게 행동하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책을 저술한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러한 분석 자료의 공통된 주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 시대의 남성과 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반하는, 모욕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Manning Up*(남자답게 행동하기)의 저자는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년들은 단지 신체적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숙녀가 되었지만, 소년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문명 사회의 거의 보편적인 관습이었다. 그들은 용기, 신체적 역량, 또는 필요한 기능에 숙달됨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남성들의 목표는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늘 그들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한 오늘날,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남편과 아버지라는 위상은 이제 선택 사항으로 변모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데 필요했던 투지, 극기심, 용기, 충성심 같은 성품이나 자질은 구태의연하고 심지어는 다소 창피한 것이 되어 버렸다.”<sup>1</sup>

우리가 칭찬해 마지않는, 여성을 위한 기회를 진작하려는 열의 가운데에는 남성과 남성의 기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한쪽이 반드시 다른 쪽을 이겨야 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경쟁으로 여기며, 이제는 여성 차례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로지 직업이 전부이고, 결혼이나 자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여야 하므로 우리에게 왜 남자가 필요냐고 주장합니다.<sup>2</sup> 할리우드 영화, 텔레비전 또는 케이블 방송 쇼, 심지어는 상업 광고에서조차 남성들은 무능하고, 미숙하며,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남성들을 문화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학생을 능가한다. 일례로,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까지 20퍼센트만이 쓰기에 능하며, 24퍼센트만이 읽기에 능하다. 한편, 남학생들의 2011년도 수능 점수는 최근 40년 내 최악이었다.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남학생이 중퇴할 가능성은 여학생보다 30퍼센트나 높다. …… 여학생들은 2016년까지 학사 학위 중 60퍼센트, 석사 학위 중 63퍼센트, 박사 학위 중 54퍼센트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 지진아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3분의 2는 사내아이들이다.”<sup>3</sup>

일부 성인 남성과 소년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책임 회피용 핑계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 끝내 성숙하지 못합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는 너무 자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야구 모자를 뒤로 쓴 채 강의실에 들어와 ‘워드가 제 과제물을 삼켜 버렸어요.’라고 [서투른] 변명을 한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법과 대학원에 가기 위한 추천서를 부탁한다.”<sup>4</sup> 영화 평론가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더 냉소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운이 좋아 배우자를 맞이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남자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료가 되어 주는 것뿐이다.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을 존중해 주듯 자신의 영역에 서 있을 그런 사람 말이다.”<sup>5</sup>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권을 지닌 남성인 우리는 사회와 가정, 교회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신뢰할 수 있고, 자녀가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후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길도는 소년과 남성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수양이 부족한 청년이 즐기지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 독신 남성이 가정을 꾸리고 이 세상에 실제로 기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인생에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외설물에 정력을 낭비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그것은 그 세상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그 세상에 속하는 모순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대학교에서 학문을 추구하고 상업, 농업, 정부, 또는 다른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술, 음악, 또는 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무역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제 집에서 여러 작업과 수리에 종사하는 기능 보유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노고와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인도에 사는 14세 소년 아마르의 하루가 담긴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아마르는 일찍 일어나 일주일 중 엿새 반 동안, 등교 전과 방과 후에 두 가지 일터에서 일합니다. 아마르가 번 돈은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어두워지면 아마르는 두 번째 일터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든 잠을 내어 몇 시간 동안 숙제를 한 후, 열한 시쯤, 바닥에 잠든 형제들 틈에 있는 자신의 잠자리로 풀썩 쓰러집니다. 아마르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아이의 부지런함과 용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마르는 제한된 자원과 여건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하면서, 가족에게 축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독신 성인,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여러분, 성인으로서의 합당한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자라나는 세대인 소년들이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성과 여러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화에 참여하는 법,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교류하는 법, 여성이나 소녀들을 이해하는 법, 봉사하는 법, 활발해지고 오락을 즐기는 법, 심하게 중독되지 않으면서 취미를 추구하는 법, 잘못을 고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제 말씀을 듣는 분이 어디 계시든, 모든 분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 1:6)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용기를 내고 온 힘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훌륭하고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신권과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곳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곳은 바로 여러분의

정원회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회원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면서 봉사도 하는 정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정원회 회원과 그 가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원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교 사업을 고려하십시오. 청남 여러분,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열일곱이나 열여덟 살 때까지 선교 사업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는 소속 회원들이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이해하고, 장로로 성임될 준비를 하며, 성전 의식을 이해하고 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벨기세텍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선교사가 물문경을 잘 알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선교 임지에 가도록 부모가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원회들은 각 와드와 지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구주께서 하신 요청은 주로 신권 소유자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입니다. 청남들의 뛰어난 참여를 포함하여 우리는 이 노력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리오그란데(스페인어) 와드의 아론 신권 정원회는 함께 모여 누구를 교회로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를 협의한 다음, 무리를 지어 저활동 회원 한 명 한 명을 방문했습니다. 저활동이었던 한 청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제가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니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정원회 회원들은 한 청남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유하면서 다른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러

가는 데 같이 가자고도 했으며, 또 그 청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교회에 오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청남이 즉시 정원회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도전적이면서도 자극이 되는 또 다른 신권 사업은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입니다. 조만간 도착할 제일회장단 서한을 기다리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임무와 더 높은 비전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원회는 또한 서로 지지하는 형제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젠가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회원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날이야말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 회원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저의 형제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경계적이든,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sup>6</sup>

우리가 온 힘을 다하더라도, 일이 항상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불어 닥칠 수 있는 “역경의 바람” 중 하나는 실직입니다. 초기의 교회 복지 책자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일이라는 유산을 상실했으므로 고결성 면에서 욕이 시험받았듯이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며칠이면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던 역경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심지어 몇 년이 되면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간다. …… 그의 영혼이 주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도 좌시만 하고 있다면 교회는 일요일에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희망을 품을 수 없다.”<sup>7</sup>

2009년 4월, 감리 감독단 보좌였던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님은 실직한 동료 회원을 도우려고 행동을 취한 모범적인 정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타 주 센터빌에 있는 필의 자동차 정비소는 신권 지도력과 정원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필은 장로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불행히도 정비소가 재정난을 겪게 됨에 따라 필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필이 실직했다는 것을 들은 레온 올슨 감독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이 직장을 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은 정원회의 일원이자 형제였고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필이 개인 사업을 해도 될 만큼의 기술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정원회 회원이 정비소로 사용하도록 그의 낡은 헛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원회 회원들은 정비소에 필요한 도구들과 장비들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원회의 거의 모든 회원들이 최소한 그 낡은 헛간을 청소하는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 필과 이야기해 본 후에, 그들은 그 계획을 정원회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헛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한 후, 도구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필의 정비소는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원회 형제들이 위기 시에 도움을 준 덕분이었습니다.”<sup>8</sup>

물론,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되풀이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sup>9</sup> 갈수록 결혼의

중요성과 목적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결혼 관계를 강화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걷을 것” (교리와 성약 68:28) 가르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경에 분명하게 나오듯이 자녀가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도록, 즉 주님께 개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사이야서 5:1~12; 엘마서 26장 참조) 상호부조회와 더불어 신권 정원회는 부모와 결혼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신권 정원회는 한부모 가족에게 신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겠지만 계속 전진하십시오.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 (교리와 성약 118:3)는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00:5~6) 우리가 여러 면에서 평범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주님이 계시며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와 신권에서 온 부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권능이 부여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43:16 참조)

교회와 세상과 여성들은 역량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기꺼이 일하며 희생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과 구원을 얻도록 돕는 남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sup>10</sup>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Kay S. Hymowitz, *Manning Up: How the Rise of Women Has Turned Men into Boys*(2011), 16.
2.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드느냐고 물어봤을 때 결혼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성공의 척도로 아마 틀림없이 학업의 완료, 경제적 독립, 정규직 일자리 등 일과 관련된 사안을 거론할 것이다. 직업, 출세, 독립.

- 오늘날 주체성의 주요한 근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Hymowitz, *Manning Up*, 45)
- 여성들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풍조를 따르라는 이런 압력은 특히 심하다. *Times of London*(*타임즈 오브 런던*)의 한 기고가는 이렇게 썼다. “우리 가족이든 선생님이든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래, 그런데 너도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랄 테지.’ 그들은 우리가 평등주의에 입각한 새롭고 현대적인 길을 따르라고 굳게 믿는 나머지,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그들의 시각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전통적인 여성의 포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버렸다.” (Eleanor Mills, “Learning to Be Left on the Shelf”, *Sunday Times*, Apr. 18, 2010, www.thetimes.co.uk; in Hymowitz, *Manning Up*, 72) 한 40대 여성 작가는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유감을 표현한 기사에 뒤따른 몇 가지 반응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남자가 필요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당신은 자존심도 없나요?” “당신은 상호 의존 정신을 완전히 새로운 저차원으로 끌고 가네요.” “내 딸이 당신 반만큼이라도 남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란다면 나는 아이를 잘못 키운 걸로 믿을 겁니다.” (Lori Gottlieb, *Marry Him: The Case for Settling for Mr. Good Enough*(2010), 55)
- 다행스러운 소식은 교양 있는 청년 성인을 비롯한 사람들 대부분이 결혼과 가정을 반대하는 메시지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에서는 대졸 백인 여성의 86퍼센트가 40세까지 결혼했으며, 이에 비해 대졸 미만인 백인 여성은 88퍼센트가 결혼했다고 한다. 대졸 백인 남성의 수치도 비슷하여, 2008년에는 그들 중 84퍼센트가 40세까지 결혼했다. 그런데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결혼은 여성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대졸 백인 여성들은 이를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보통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에 속할 것이다. …… 대다수에 해당하는 70퍼센트의 대학 1년생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필수적’이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ymowitz, *Manning Up*, 173-74).
3. Philip G. Zimbardo and Nikita Duncan, *The Demise of Guys: Why Boys Are Struggling and What We Can Do about It*(2012), e-book; the chapter “Behind the Headlines” 참조.
  4. Barbara Dafoe Whitehead, *Why There Are No Good Men Left: The Romantic Plight of the New Single Woman*(2003), 67.
  5. Amanda Dickson, “Hunger Games’ Main Character a Heroine for Our Day”, *Deseret News*, Apr. 2, 2012, www.deseretnews.com.
  6. 고든 비 힝클리,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31~132쪽.
  7. *Helping Others to Help Themselves: The Story of the Mormon Church Welfare Program*(1945), 4.
  8. 리차드 시 에틀리, “여러분에게 걸려 온 전화입니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54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34쪽.
  10. “Rise Up, O Men of God”, *Hymns*, no. 323.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감리 감독

#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서 용맹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천 청년 병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용맹스럽게 용기를 발휘하여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십시오.

오늘 밤 저는 감독으로서 이 신권 총회를 위해 전 세계에 모인,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문경에 나오는 힐라맨과 그의 이천 청년 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전 구절은 그 고대 청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후기 성도 청년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다 청년들이었고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들은 ……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sup>1</sup> 용기, 힘, 활발함, 그리고 충실함은 매우 훌륭한 특성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설명하는 첫 번째 특성인 “용맹스러운 용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고, 엘마가 말할 것처럼 “어느 때에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sup>2</sup> 이

청년들이 가졌던 확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청년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삶에서 용기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존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러한 순간 중 하나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존은 일본의 명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온 다른 많은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존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학생은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등록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일본에서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발판으로 보았습니다. 목적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존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개인 주거지 옥상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존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공지된

주소로 향했습니다.

존은 친구들과 함께 그 건물 꼭대기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한 사람씩만 지날 수 있는 좁은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음, 음악 소리, 술이 난무할수록 존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마리화나 담배를 나눠 피웠다며 학생들을 등그렇게 둘러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얼굴을 찡그리며 서둘러 두 친구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거의 조롱하듯 답했습니다. “존, 이거 아무것도 아냐. 그냥 원 안에 서 있다가 차례가 오면 피우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떠나지 않아도 돼.” 그것은 쉬운 일처럼 들렸지만, 옳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존은 자신의 뜻을 알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자신은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남아서 원형에 합류하기로 했고 다른 친구는 마지막에 존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일본 경찰들이 몰려나왔고, 그 경찰들은 서둘러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존과 그의 친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계단 맨 위로 경찰이 나타나자, 학생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서둘러 불법 마약을 옥상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계단을 봉쇄한 다음, 옥상에서 모든 학생을 일렬로 세워 놓고 한 사람씩 양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들은 그 열을 따라 걸으며 주의 깊게 각 학생의 엄지와 검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웠든 안 피웠든 그것을 집었던 사람은 모두 유죄로 간주되었고 엄청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옥상에 남았던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범죄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은 일본에서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꿈, 수년간의 준비, 장래 일본에서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남았던 친구는 입학 허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일본의 대학교에서 퇴학당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존과 함께 그날 밤 파티 장소를 떠났던 친구는 일본에서 학교를 마친 다음 미국에 있는 일류 대학교 두 군데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직업 때문에 아시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존의 용기 있는 모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존의 인생에 안긴 결과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해 일본에서 보낸 그의 시간은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졌고

이어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해 왔고 최근에는 일본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만일 존이 일본에서 그 중요한 저녁에 파티에서 떠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sup>3</sup>

청남 여러분, 존과 같이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과 창피함이 뒤따를 수도 있는, 의로운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적과의 접전은 화면 앞에서 발생하는 조용하고 고독한 전투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많은 혜택도 주지만 여러분 이전 세대는 겪지 않았던 문제들 또한 가져옵니다. 최근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십 대들은 매일 학교에서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걱정할 만한 수준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영상을 접한 청소년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서너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 미국 내각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사람은 그 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설문 조사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또래 압력인 디지털 또래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또래 압력은 자녀의 친구들과 그들이 어울리는 아이들을 초월하여 작용합니다. 이 압력은 인터넷을 통해 가정과 자녀의 침실로 침입합니다.”<sup>4</sup> 의로운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종종 마우스를 클릭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만큼이나 섬세한 일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을 때 하는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의 덕성을 가늠하는 확실한 기준이다.”<sup>5</sup>라고 배웁니다. 용감하십시오! 굳건하십시오! “거룩한 곳에서 서서 움직이지 [하십시오.]”<sup>6</sup>

청남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sup>7</sup>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용기와 의로운 행동을 행복과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계명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엔 엘덴 테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소년이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축구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교정에서 또는 동료 가운데에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신권을 존중하며 의를 수호함으로써 남몰래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에게서조차 비난과 조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도 확신을 굽히지 않으셨기에 고통과 조소와 모욕을 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서서, 구주께서 연약해지셔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임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반대와 악에도 불구하고 용맹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일어서고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충실한 추종자로서 헤아림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냅시다.”<sup>8</sup>

저는 여러분에게 이천 청년 병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용맹스럽게 용기를 발휘하여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합당한 집사, 합당한 교사, 합당한 제사가 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고 적절한 나이에 다음 의식을 받고 궁극적으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해지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오는 의로운 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sup>9</sup>

부모와 신권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 나오는 선지자가 제시한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와 ‘예’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

저는 우리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 결정하실 것을 여러분께 간청합니다.”<sup>10</sup>

이천 병사들이 그들의 지도자 힐라맨의 요청에 응하여 용맹스럽게 용기를 발휘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따름으로써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간증과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진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sup>11</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엘마서 53:20.
2. 모사이야서 18:9.
3. 연사가 들은 개인적인 이야기.
4. Joseph A. Califano Jr., *founder and chairman emeritus of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at Columbia University*, in a press release regarding the research, [casacolumbia.org](http://casacolumbia.org).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18쪽.
6. 교리와 성약 87:8.
7. 디모테후서 1:7.
8. 엔 엘튼 테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75쪽.
9. 교리와 성약 84:20.
10.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8쪽.
11. 교리와 성약 128:22.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조심하라

깊이 깨닫고 가족을 강화하여 신권의 길에 머[무십시오.] .....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세워 놓으신, 영적으로  
“조심하라”는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 비극을 피하십시오.

**제**가 청남이던 시절에 우리 가족은 차를 몰고 미국 로키 산맥을 넘어 조부모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산썩이 자라는 평원에서 시작된 길은 소나무로 덮인 가파른 경사를 올라 마지막에는 사시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산꼭대기의 목초지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모든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길은 완전히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도로의 많은 부분은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로 건설자들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난간을 만들고 “조심: 낙석 지역”이라고 쓴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써 붙인 이유를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길 아래 까마득하게 보이는 강바닥으로 바위와 자갈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종종 협곡 바닥에 찌그러진 차들도 보였는데, 그것은 조심하지 않았던 운전자들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 신권의 맹세와 성약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빨기세텍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맺었거나, 또 그렇게

될 분들입니다.<sup>1</sup> 이 성약에는 소신권과 대신권을 받으면서 시작하여 우리가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진척되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sup>2</sup>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전망을 향해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의 왕국에 이르는 길을 현명하게 설계한 분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 조심하라”<sup>3</sup>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사탄이 실제적인 존재로서,<sup>4</sup> 우리 영혼을 고통의 심연으로 끌어 내리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sup>5</sup> 신권 소유자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sup>6</sup>이 잠복되어 있어 그가 “떨어져나가기 쉽다”<sup>7</sup>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옛 사람[을] ..... 벗어 버리고”<sup>8</sup>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구원 의식을 받고, 매일 복음에 따라 생활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sup>9</sup>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 비극을 피함

신권의 길을 따라 오를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소년이나 성인도 아래로 끌려내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게 떨어지나간 훌륭한 청남, 혹은 새로 귀환한 선교사, 존경 받는 신권 지도자, 또는 사랑스러운 가족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이고 비통해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약전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신권 권능을 헛되이 사용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어릴 적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십 년을 의롭게 살아왔지만<sup>10</sup> 선지자이자 왕인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붕에서 아름다운 밤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주변에는 “조심하십시오, 다윗. 그건 바보 같은 짓이요.” 하고 외치는 도덕적인 인명 구조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해 조심하지 않고<sup>11</sup>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지<sup>12</sup> 못하여, 결국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sup>13</sup>

형제 여러분, 그렇게 강하던 다윗이 승영에 이르는 길에서 휩쓸려 가버렸다면, 우리 역시 비슷한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난간은 바로 개인적인 깊은 개심과 견실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를 잘 아는 사탄은 개심을 깨부수고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바위로 우리 신권의 길을 막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은 길을 따라서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표지판은 개심을 깨부수는 교만<sup>14</sup>과 가족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분노와 탐욕, 욕정과 같은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오래 전에 모세는 “너는 조심하여 ..... 여호와를 잊지 말[라]”<sup>15</sup>고 권고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하고 오락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속히 “주[를] …… 잇[고], …… 저 악한 자에게 이끌려”<sup>16</sup> 가고 있습니다.

### 깊이 개심하고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유혹의 낙석이 굴러 내려오는 신권의 길에 안전하게 머무르기 위해, 깊이 개심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여섯 가지 기본 원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는 것은 “사탄을 이길”<sup>17</sup>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조심할지어다. 이는 사탄이 [너]를 …… 체로 치기 원함이니라”라고 경고하시며, 기도가 유혹에 대항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sup>18</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에 열심히 귀 기울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sup>19</sup>

둘째,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 대한 연구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어떻게 간주할지 삼가 조심하여 그것들이 가벼운 것으로 여김을 받지 않게 하며, 이로써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하며,

……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지어다.”<sup>20</sup> 이런 엄중한 정죄를 피하려면 “친근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택하신 선지자의 권고를 들을 수”<sup>21</sup> 있는 교회 잡지와 웹사이트뿐 아니라 경전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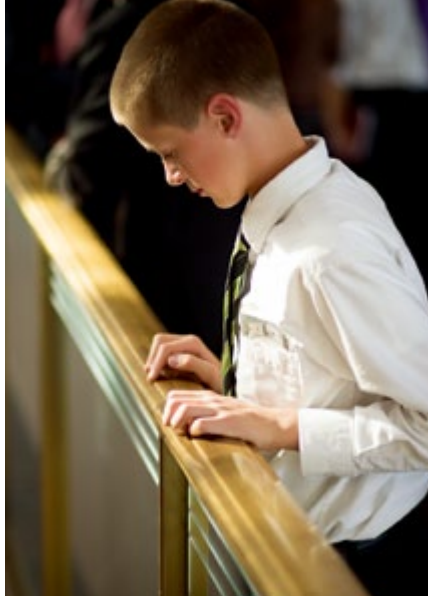
셋째,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도록]”<sup>22</sup> 준비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영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면]”<sup>23</sup> 속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회원들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할]”<sup>24</sup>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신의 충만함을 받[을]”<sup>25</sup>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인 개심과 가족 관계의 핵심은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주의하라”<sup>26</sup>고 명했습니다. 사탄은 “분쟁의 아버지”<sup>27</sup>이며 가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sup>28</sup> 하려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라도 정서적으로, 말로, 신체적으로 거칠게 대하면 우리는 신권 권능을 잃게 됩니다.<sup>29</sup> 분노를 통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가족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설득과 오래 참음, 온화함과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자애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sup>30</sup>

다섯째, 십일조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과 가족의 단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탐욕과 소유욕을 이용하여 해의 왕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가족을 휩쓸어 가버리기에,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sup>31</sup>고 권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예상하고,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고, 금식헌금을 후하게 내고, 필요한 지출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물질적으로 자립할 때 탐심은 억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sup>32</sup>

여섯째, 순결의 법을 엄격하게 지킬 때 “변하지 않는 [우리] 동반자”<sup>33</sup>인 성신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탄은 넘쳐나는 외설물로 정결과 결혼을 맹공격합니다. 간음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조심하며, 속히 회개 …… 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분은 간음한 실제 행위뿐 아니라 그에 앞서 했던 음탕한 생각까지도 포함하여 간음의 뜻을 규정하신 것입니다.<sup>34</sup> 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외설물이라는 전염병에 대해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 왔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외설물]은 성난 폭풍과 같이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한때 건전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sup>35</sup> 어떤 형태로든 순결의 법을 깨뜨리라는 유혹을 받는다면 “[도망하여] 밖으로 나[간]”<sup>36</sup> 애굽의 요셉이



보인 모범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여섯 가지 원리는 신권 소유자가 개인적인 개심과 가족 관계라는 영적인 난간 사이에서 안전하게 하늘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계속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성전 성약과 전임 선교사 봉사, 영원한 결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동등한 협력자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의롭게 관리하고 가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sup>37</sup> 신권의 길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여정입니다.

### 신권의 길에 머무십시오

저는 청남 시절로 돌아가서, 로키 산맥을 지나던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심: 낙석 지역” 표지판을 지난 다음, 제 아버지는 도로 앞 쪽에 떨어진 자갈과 돌맹이를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속력을 줄이셨고, 정지할 때에는 농구공만한 돌덩이가 획 소리를 내며 우리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낙석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려”<sup>38</sup>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절벽의 가장자리를 향해 표류하고 있다면, 떨어지기 전에 당장 멈추고 다시 올바른 진로로 돌아오십시오.<sup>39</sup> “조심” 표지판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 자신의 영혼이 망가진 채로 신권의 길 높은 곳이 아니라 협곡 맨 아래에서 드러누워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권능을 통해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가는 도로를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sup>40</sup>

예수께서는 “외식을 주의하라”<sup>41</sup>고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본인 여러분의 감독님을 만나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조심하며 죄를 삼가라”<sup>42</sup>고 단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나 주도 너희를 용서하노라. …… 너희 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sup>43</sup>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모든 소년과 성인 남성 여러분에게 깊이 개심하고 가족을 강화하여 신권의 길에 머물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기도, 경전, 의식은 개심이 깊어지게 합니다. 사랑, 십일조, 순결은 가족을 강화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세워 놓으신, 영적으로 “조심하라”는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 비극을 피하십시오.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신]”<sup>44</sup>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분투하십시오.

약속하건대, 남성들이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 조심하라”<sup>45</sup>는 신권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와 우리 가족은 분명히 해의 왕국에서 승영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기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4:33~44 참조.
2. 교리와 성약 84:38.
3. 교리와 성약 84:43.
4. 조셉 스미스—역사 1:16 참조; 또한 모세서 1:12~22 참조.
5. 힐라맨서 5:12; 또한 니파이후서 1:13; 힐라맨서 7:16 참조.
6. 모사이야서 3:19; 또한 고린도전서 2:14 참조.
7.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Hymns*(1948), no. 70

8. 골로새서 3:8~10; 또한 에베소서 4:22~24 참조.
9. 갈라디아서 3:27; 또한 로마서 13:14 참조.
10. 사무엘상 13:14; 17:45~47 참조.
11. 사무엘하 11:1~17 참조.
12. “여러분이 …… 중대한 잘못을 하기 전에는 먼저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8쪽)
13. 교리와 성약 132:39 참조; 또한 경전 안에서 “다윗” 참조.
14. 교리와 성약 23:1; 25:14; 38:39 참조; 또한 Ezra Taft Benson, “Beware of Pride,” *Ensign*, May 1989, 4-7 참조.
15. 신명기 6:12; 또한 신명기 8:11~19 참조.
16. 엘마서 46:8.
17. 교리와 성약 10:5.
18. 교리와 성약 52:12~15 참조; 또한 누가복음 22:31~32; 엘마서 37:15~17; 제3니파이 18:18~19 참조.
19. 토마스 에스 몬슨,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4쪽; *Ensign*, Mar. 2009, 6.
20. 교리와 성약 90:5; 또한 교리와 성약 41:1, 12 참조.
21. 고든 비 힝클리, “신앙: 종교의 정수”,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4쪽.
22. 교리와 성약 45:57.
23. 교리와 성약 46:8; 또한 에베소서 4:14; 교리와 성약 52:14~16; 골로새서 2:8 참조.
24. 모로나이사서 4:3; 교리와 성약 20:77; 또한 제3니파이 18:1~11 참조.
25. 교리와 성약 109:15.
26. 모사이야서 2:32.
27. 제3니파이 11:29~30 참조.
28. 모사이야서 4:14.
29. 교리와 성약 121:36~37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63:61~63 참조.
30. 교리와 성약 121:41~45 참조.
31. 누가복음 12:15; 또한 교리와 성약 38:39.
32. 마태복음 6:33; 또한 제3니파이 13:33 참조.
33. 교리와 성약 121:45~46; 또한 교리와 성약 67:11; 모세서 1:11 참조.
34. 교리와 성약 63:14~16 참조; 또한 마태복음 5:27~28; 제3니파이 12:27~30 참조.
35.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9, 62쪽; 또한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7~90쪽; 제프리 알 홀런드,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4~46쪽 참조.
36. 창세기 39:12.
37.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3 참조.
38. 교리와 성약 10:27; 또한 베드로전서 5:8 참조.
39. 교리와 성약 3:9~10; 고린도전서 10:12~13; 베드로후서 3:17 참조.
40. 엘마서 13:27~29; 교리와 성약 109:21 참조.
41. 누가복음 12:1; 또한 교리와 성약 50:6~9 참조.
42. 교리와 성약 82:2.
43. 교리와 성약 82:1, 7 참조.
44. 교리와 성약 20:22; 또한 히브리서 2:17~18; 4:14~16(296) 참조.
45. 교리와 성약 84:43; 또한 신명기 4:9; 모사이야서 4:29~30 참조.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부 또는 와드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은 책임 또는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헌신적인 신권 봉사에는 언제나 특별한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파이퍼 컵 호든, F-18이든, 또는 다른 어떤 비행기든 저는 언제나 비행을 사랑했습니다. 파이퍼 컵에 있을 때는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F-18호를 탈 때에도 곡예비행 기술의 긴장감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혹독한 현실을 실감해야 했음에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완전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불평거리를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는 누군가의 손이 얹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큰 와드든 작은 지부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늘 봉사하고, 축복하고,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권으로 봉사하는 기쁨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끼도록 합시다.

### 신권에서 오는 기쁨

비행에 대한 애정은 제 인생 전체 행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종사로서 누린 활기차고 행복한 경험보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했던 경험이 더 깊고, 더 기쁘며, 더 심오했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과 친절하신 자비를 느꼈습니다.

조종사로서 저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보았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따금 저는 비행기 조종석이 그리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그 그리움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위대한 대의와 사업의 작은 한 부분이 됨으로써 송고한 평안과 기쁨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신권 조직으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송고한 대의에 온 힘으로 헌신하는 것은 성스러운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신권이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요 권세란 것을 알며 이해합니다. 이 신권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런 정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권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이 권능으로 그분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sup>4</sup> 가져다주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설명했듯이, 신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한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그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sup>5</sup>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필멸의 존재인 우리에게 신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 의식을 집행하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고 봉사할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 모든 남성은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권 또는 신권 내의 어떠한 책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부나 세력으로도 그 권능을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그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영적 권능입니다. 신권은 우리 모두의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그 권능은 독선이 아니라 의의 원칙을 통해서만 통제되고 다루어집니다.<sup>6</sup>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참된 신권 권세와 권능의 근원이십니다.<sup>7</sup> 이 일은 그분의 사업이며, 우리는 그 일을 돕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sup>8</sup>

우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들어올리려 애씁니다.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sup>9</sup>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은 합당한 남성이라면 혈통이 무엇이든, 처한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든, 이 지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돈 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목마른 자는 누구나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올 수 있으며, 먹는 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sup>10</sup>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실수를 저질렀거나 과거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들도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영적인 교화와 정화 과정을 거치면 “일어나 빛을 발할!”<sup>11</sup> 수 있습니다. 구주이며 구주주이신 그분의 무한하고 관대한 사랑으로 눈을 들어 올리고, 깨끗하고 합당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성스러운 신권을 합당하게 소유한, 그분의 의롭고 고귀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권의 경이로움과 특권

신권의 경이로움과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들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창공으로, 구름 너머로 날아오르면서도 간식으로 나눠 준 땅콩 봉지가 너무 작다고 투덜대느라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고대 왕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날아올 수만 있다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라도 바쳤을 텐데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신권 권세와 권능에 겸손하게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권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이 기회를 눈을 들어 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의롭고 헌신적인 신권 봉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sup>12</sup>

신권의 경이로움과 특권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조직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의로움, 헌신, 그리고 신권 봉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갑니다. 신권으로 봉사하는 기쁨을 찾읍시다!

지식, 순종, 신앙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가장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나오는 신권의 교리를 알고 이를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권이 작용하는 성약과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13</sup>

다음으로, 현명해지고 그렇게 얻은 지식에 따라 계속 훌륭하게 행합니다.

### 소브라우, 브라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선지자들이 가르친 의로움의 본보기에 따라 행할 때, 신권 봉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매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새롭게 결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완전한 신앙을 이룹시다.<sup>14</sup>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한 발짝씩 온전해질 것입니다.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신권으로 봉사할 때 고귀한 지식과 평안과 영적 은사를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신권을 영예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을]”<sup>15</sup>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이 있습니다. 그 신권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Wilbur Wright, in James Tobin, *To Conquer the Air: The Wright Brothers and the Great Race for Flight*(2003), 238.
2. *Wright brothers*, in Tobin, *To Conquer the Air*, 397.
3. John Gillespie Magee Jr., “High Flight,” in Diane Ravitch, ed., *The American Reader: Words That Moved a Nation*(1990), 486.
4. 모세서 1:39.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8쪽.
6. 교리와 성약 121:36 참조.
7. 히브리서 5:4~10; 교리와 성약 107:3 참조.
8. 교리와 성약 12:8.
9. 교리와 성약 121:41.
10. 이사야 55:1 참조.
11. 교리와 성약 115:5.
12. 교리와 성약 84:88.
13. 교리와 성약 84:33~44; 121:34~46 참조.
14. 야고보서 2:22 참조.
15. 교리와 성약 4: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끄는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소망하며 또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신권 모임에 참석하여 훌륭한 가르침과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권 소유자로서 성취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은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제가 볼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아빠였던 시절, 저는 제 자녀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들은 신권을 받고 여자아이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봉사를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녀 모두 주님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개인이 다르므로 주님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 하나하나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타고난 영적 은사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게 되리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에 공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권으로

인도하는 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사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시야를 밝혀서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봉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소망하며 또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 자녀의 경우, 저는 아이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섬길 구체적인 기회를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그 미래를 눈으로 그려 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마다 그 아이가 받은 특별한 은사를 묘사하는 성구와 그림을 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림과 문구 아래에는 각 아이가 침례 받고 신권 직분에 성임된 날짜와 그때마다 갠 아이의 키도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이고 주님의 사업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알도록 돕기 위해 제가 각 아들들에게 새겨 준 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영감을 받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끄는 각 청소년의 은사와 특별한 기회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집사와 이글 스카우트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독수리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이다호 주의 사우스티턴 산자락 부근에 살았는데, 우리는 함께 도보 여행을 하다가 독수리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다”<sup>1</sup>

사실, 우리의 도보 여행은 사우스티턴 산 정상 아래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이가 지쳐서 중단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까지 가지 못한 걸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까요? 아빤 가세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너도 미안해할 거 없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올라왔다는 걸 항상 기억할 거야.” 저는 이 아이의 판 맨 위에 독수리 그림과 “독수리 날개 위에서”라는 글을 새겨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선교 임지에서 맞닥뜨린 난제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어려운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그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소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청년에게 그가 소유한 신권의 가능성을 깨닫도록 도우려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격려하는 청년이 강건한 신권 봉사자가 되기에는 너무 용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한 아들도 어릴

때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가게로 들어가 점원에게 말도 못 건넸습니다. 너무나도 소심했기에, 그 아이가 신권을 소유할 때를 그려 보며 기도하다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지만 가망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잠언에 나오는 성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sup>2</sup>

저는 그 아이의 판에 “사자 같이 담대하라”라고 새기고 그 아래에 포효하는 커다란 사자 머리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 아이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새겨 넣은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수줍음 많던 제 아들은 분명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용감하게 위기에 맞섰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을 대표하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며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청년에게도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의 수줍음 많은 상태에서 훨씬 용감한 중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신앙을 아이에게 키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종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숲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어린 소년 조셉도 영적인 거인으로 변화했습니다. 팔리 피 프랫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들을 가둔 사악한 간수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랫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혹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내가 기억하는 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잠잠하라, 너희 지옥의 악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순간도 더 살지 않겠노라. 그런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든 나든 즉시 죽으리라!’”



프랫 장로는 그 경험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주리 주 이름 모를 마을의 지하감옥에서 한밤중에 쇠사슬에 묶인 채서 있는 그에게서는 위엄과 위풍박에 보이지 않았다.”<sup>3</sup>

주님은 자신의 의로운 종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신권을 증거하고자 입을 열 때 사자처럼 담대해지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제 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여할 바를 그려 보며 기도하는 동안, 그 아이가 사람들을 사랑과 단합으로 한데 모으는 힘을 발휘하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미주리에 시온을 세우고자 애썼던 신권 장로들의 노고를 묘사해 놓은 교리와 성약의 성구가 생각났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공헌을 본 천사들은 그들을 찬미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하여졌음이니라.”<sup>4</sup>

저는 그 아이의 판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천사들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아이의 큰 능력은 학업을 마치고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그 지역 청소년에게 역경을 견디고 이겨 낼 신앙을 심어 주는 스테이크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그 청남 청년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면서 미국 도시 중심부에 시온의 전초 기지를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판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새겼습니다. 정확히 천사가 환호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모습보다는 나팔을 새기기가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신권 지도자가 자신의 와드와 스테이크, 선교부에 시온을 건설할 때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또 천사들은 여러분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돕는 청소년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입니다. 시온은 성약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청소년이 동참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아들의 판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림과 구주의 중보 기도문에 나오는 “영생은 곧 [이것이니]”라는 문구를 새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마치실 무렵, 구주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sup>5</sup>

제 아들은 세 대륙에서 신권 봉사를 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족에게 봉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 주변에서 삶을 꾸려 나갑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자주 집에 가서 아내와 어린 자녀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이 가족은 우리 부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삽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원을 자신의 것인 양 돌봐줍니다. 이 아들은 영생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주변으로 모아들여서 그들에게 영원히 둘러싸여 살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가족 안에서 화합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신권 열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열쇠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청소년이 그 영원한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선 가족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청소년의 가족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휘장 양편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원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한 판은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과 청소년의 미래와 그들이 행하도록 그분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봉사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이 이끄는 다른 청소년을 위해 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이해하고 그것을 청소년 개개인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를 알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지닌 위대하고 특별한 은사들을 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아들들뿐 아니라 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위대한 장래를 맞을지를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구했을 때 저는 제 딸들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는 중으로서 그분께 신뢰받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저는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봉사에서 비롯되며 영생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 도마를 만들어 손수 구운 빵을 얹어서 배우자를 여인 분들과 가족들에게 선물하러 함께 갔습니다. 저는 빵 도마마다 “J'aime et J'espere(쟝므에 제스페레)”라고 새겼습니다. 불어로 “나는 사랑하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도마가 독특한 영적인 선물이었다는 사실은 그 글자만이 아니라 고통이나 상실감 속에서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12년 10월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우헨링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엠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멜리 에이치 욱스



엠 러셀 팔러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배드나



쿠언틴 엠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널 엠 앤더슨

## 칠십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러스



윌터 에프 존스



엠 휘트니



도널드 엠 홀름



브렛 알 홀리스터



리처드 제이 메이허스



크레이그 시 크리스토퍼슨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알파벳 순)



마크스 에이 아이두카티스



호센 앨론조



카를로스 에이알 아야라



이안 애스 아던



머빈 에이 블랜드



데이비드 에스 백스틀리



세인 존 보웬



크레이그 에이 카인



최운환



돈 알 클라크



할 비 쿡



로렌스 이 코브리지



클라렌스 W 햄 햄 포스터



키르크랜드 W 키스 캐티스 이세



벤저민 데 호야스



존 비 힌슨



케빈 알 단컨



레리 애코 호크



스탠리 지 엘라스



데이비드 에스 존슨



앤드류 W 캄 캠벨라



에두아르도 가버뎀



로버트 시 게이



카를로스 에이 knight 고도이



크리스토퍼 클라인 이세



시스코트 그로우



제임스 에이 크럼머



폴 비 린슨



다니엘 엘 린슨



로버트 에이 린슨



패트릭 키아톤



폴 이 키커



에릭 더블유 코우파쉬케



마크스 비 내쉬



브랜트 에이치 린슨



앨런 에프 맥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앤소니 디 퍼킨스



폴 비 파이프



리파엘 에이 피로



브루스 디 포터



데이브 지 린던트



마이클 터 린우드



린 지 로런스



조셉 더블유 사터



스티븐 이 스킬노



월리스 소아레스



마이클 존 유 테



호세 에이 테제이라



후건 에이 우세다



프란시스조 제이 비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헬



윌리엄 할 위커



에프 마이클 윅스



스콧 디 와이팅



조지 애프 제볼론조



윌리엄 제이 지크



윌리엄 제이 지크



윌리엄 제이 지크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알파벳 순)



윌리엄 J 앤더슨



고이지 아이오야기



켄넌 케이 베네트



제이 데브 콘너



브래들리 디 포스터



오 만센트 하켓



페트 지 램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자이로 마자기르티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켄트 디 윅스



켄트 와이 윅스



제임스 에이 윅스

감리 감독단



제임스 에이 윅스  
제보좌



게리 이 스티븐슨  
감리 감독



톰 웨이비스  
제2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 전달되었"다고 표현했듯이, 세계 곳곳의 후기  
 성도들은 연차 대회 축복을 누렸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잠비크, 켈리마네; 에스토니아,  
 텔린; 폴란드, 바르샤바; 멕시코, 멕시코 시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만, 타이베이; 보츠와나,  
 가보로네.



구주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물하는 동안에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제 딸들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어링 형제님, 제가 조각을 배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재능 있는 스승이셨던 당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의 도움으로 조각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작은 기술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이 조각가로서의 커다란 은사와 교사로서의 인내심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늘만이 패커 회장과 같은 스승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나무판이나 키재기판에 조각하지 않고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통신 기술 덕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비용을 거의, 또는 전혀 들이지 않고도 신앙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연락이 닿는 손자 손녀 또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성취와 봉사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은 글 몇 단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물문경 성구 한두 개를 덧붙입니다. 어쩌면 니파이나 물문은 우리 글의 영적 수준이나 우리가 “가족 일지: 작은 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데 들이는 작은 노력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런 노력 덕분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적는 성구와 짧은 간증을 선정하면서 영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와 구주와 하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봅니다.

교류하는 방법은 더 있으며, 이미 여러분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 같은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랫동안 추억되고 마음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운동 경기 참여나 영화 관람같이 외관상 세상적으로 보이는 활동조차도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을 할 때 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활동을 찾는데 유용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라고 느끼는 관심 분야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안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상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열두 살에 집사가 되었을 당시, 저는 뉴욕 시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저는 뛰어난 야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브롱크스에 있는, 오래되고 역사 깊은 양키 스타디움 경기장에 데려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조 디마지오가 외야 중앙 관중석 쪽으로 홈런을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함께 간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낸 또 다른 하루로 제 삶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뉴저지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시는, 성임받은 축복사님 맥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문간에 두고 가셨습니다. 축복사님은 저를 의자로 안내하셨고 손을 제 머리에 얹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인 축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큰 소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sup>6</sup>라고 불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축복은 제 삶과 결혼 생활과 신권 봉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경험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sup>7</sup>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은사를 계시해 주신 주님 덕분에 제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인식하고 그 기회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권고하건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인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 봉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돕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타인을 이끌고 사랑하는 데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그들을 돕고 고양시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지닌 것은 하나님의 신권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소망 이상으로 그분을 섬길 특별한 은사로 우리를 준비시키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이사야 40:29~31.
2. 잠언 28:1.
3.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211.
4. 교리와 성약 62:3.
5. 요한복음 17:3~4.
6. 마태복음 5:9.
7. 교리와 성약 46:1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일 년에 두 차례씩 영감 어린 메시지를 듣고자 모일 때면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 가득 찹니다. 교회 전체의 신권 모임은 놀라운 영을 발산합니다. 컨퍼런스 센터에서 발하는 이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모든 건물에 깃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영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가 건립되기 몇 해 전,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를 둘러보던 한 방문객은 태버나클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귀 기울였으며, 태버나클 합창단이 부르는 아름다운 음악을 경청했습니다. 또 웅대하고 장엄한 태버나클 오르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연사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텐데.” 사실상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간증보다 더

큰 위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과 청남은 간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한 간증이 아직 없다고 느끼는 분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강하고 깊은 간증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간증이 작거나 간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지금도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기꺼이 간증을 나누고 그들이 변화하도록 힘써 돕는다면, 그들은 그런 간증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변화하도록 우리가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회원이긴 하지만 현재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저는 어머니와 딸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힘찬, 잊지 못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연사는 여러 진리를 거론하는 가운데서도, 여성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은 자신이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남성도 이런 면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소중하며,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활동에서 멀어졌거나 활동화 되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청하는 것이 그들이 돌아와서 완전하게 활동화 되는 확실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도울 수 있는데도 지도자들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합당하게 신권을 지닐 수 있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일화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되었을 때,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보좌였던 엔 엘덴 태너 회장을 모시고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임 중에 스테이크 회장님은 장로로 성임하기에 합당한 형제 네 명을 호명했습니다. 태너 회장님은 그 지역에 사신 적이 있었기에 그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태너 회장님은 그들의 예전 모습을 알고 기억하고 있을 뿐, 그들이 삶을 바꾸어 장로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이 첫 번째 형제를 호명하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태너 회장님은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저 형제를 좀 보세요.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스테이크 회장님이 두





번째 형제를 호명하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태너 회장님은 다시금 팔꿈치로 저를 슬쩍 찌르시더니 놀랍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형제 모두 그런 식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태너 회장님과 저는 그 네 형제를 축하해 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 교도소장 클린턴 더피는 감옥에 수용된 죄수들을 갱생시키는 노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비평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범은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군요.”

그러자 더피 교도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표범과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저는 사람과 일하며, 사람은 날마다 변합니다.”<sup>1</sup>

여러 해 전에 저는 캐나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신권 소유자가 몇 안 되는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가 그 지부를 감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부의 회원이 그곳을 감리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부에는 아론 신권 집사 직분인 한 성인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신권 승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를 지부 회장으로 불러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를 접견한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지부 회장으로 부르도록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의 아내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를 제사로 성임했습니다.

그날로 그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은 빠르게 질서가 잡혔으며, 그는 저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명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 성전에 가서 인봉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주님의 집에서 결혼했습니다.

때로 우리 형제들은 자신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결심하고 완전하게 활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권 소유자들의 나이와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생활해야

하는 바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일 때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언젠가 콜로라도 주 리드빌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리드빌은 해발 3,000미터가 넘는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고도뿐 아니라 그날 저녁 일어난 일 때문에 그 특별했던 모임이 생각납니다. 그곳에는 불과 몇 안 되는 신권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부의 지부처럼 그 지부도 선교사가 감리하고 있었으며, 또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날 밤 모임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폐회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곳을 감리하는 현지 지부 회장이 있어야 한다는 영감이 왔습니다. 저는 선교부 회장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감리할 만한 형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저는 앞쪽 세 줄에 앉아 있는 형제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중 한 형제에게 주의가 쏠리는 듯싶어, 선교부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지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접견을 하겠습니다. 폐회 찬송이 끝나면 우리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선교부 회장님은 간증을 마쳤습니다. 저는 지부의 새 회장으로 그 형제님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콜로라도 주 리드빌에서는 현지 회원이 그곳 단위 조직을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냈을 때, 또 그들의 삶이 복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교부 회장을 위한 세계 대회가 열려 교회 내 모든 선교부 회장이 그 모임을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제 선교부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왔습니다.

어느 특별한 모임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였던 엔 엘든 태너 장로님은 처음으로 영국과 서유럽 지역의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을 마치고 막 돌아오신 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접견을 통해 만난 모든 선교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선교사를 접견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침례를 주어 교회로 들어온 분들은 모두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그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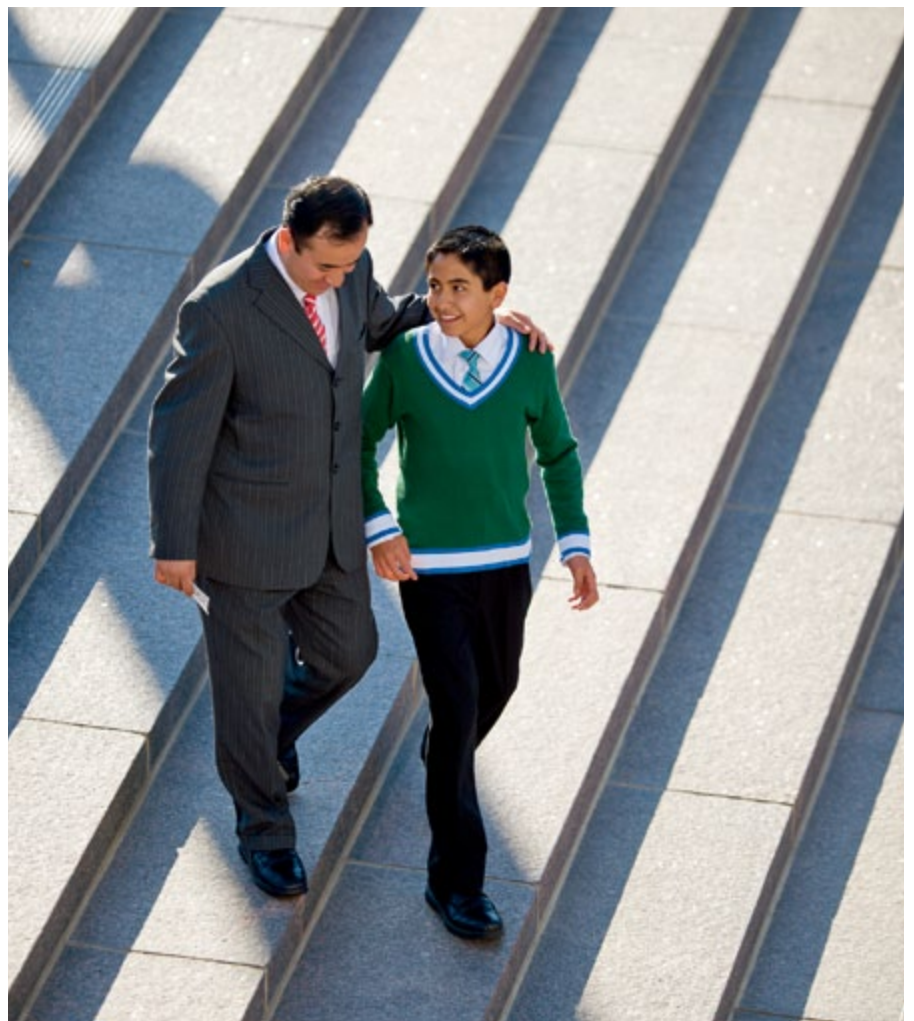
모두 전도로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태너 형제님은 그 선교사의 방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지, 다른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낡은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특히 종교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선교사는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마음속으로 그려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깨끗하게 면도하고 흰 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그 사람을 침례의 물로 인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증을 전할 능력이 제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동료, 이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닌 신권의 중요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맹세와 성약으로 신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참되고 충실해야 하며, 끝까지 이 성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sup>2</sup>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낱말은 용기입니다. 유혹에 등을 돌리는 용기, 모든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의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란 대부분의 사람에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다음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sup>3</sup>

1974년 5월에 저는 존 에이치 그로버그 형제와 함께 통가 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가 국왕을 알현할 약속이 있었으므로, 공식 모임에서 그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로버그 형제는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말을 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신하들과 더불어 참으로 물론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폐하와 신하들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왕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존 그로버그, 그대가 옳을지도 모르오.”

저는 아그립바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간증에 대해 아그립바가 했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sup>4</sup> 그로버그 형제는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의 전임 선교사로서 그분을 섬기는 수천 명의 신권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집과 가족, 친구와 학업을 떠나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처럼 쉽게 부름에 응하고 그토록 많은 것을 기꺼이 바치나요?”

우리 선교사들은 오래 전에 살았던 뛰어난 선교사, 바울의 말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sup>5</sup>

거룩한 경전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열한 제자에게 하신 다음 말씀보다 더 적절하고, 더 책임이 따르며, 더 정곡을 찌르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sup>6</sup>

절정의 시기에 그랬듯이, 이 성스러운 명령은 영화로운 약속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좌우명이 됩니다. 선교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구분하는 특징입니다. 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선포한 그대로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sup>7</sup>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 안에서 현재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들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수고를 마치고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을 대체할 사람들을 오늘 밤 교회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일하겠습니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존 테일러 회장은 그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신권을 존중하며 …… 성신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 명예롭고 성실하며 유덕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sup>8</sup>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세우신 표준에 일치하면,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sup>9</sup>라고 탄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선교사이자 영혼의 완전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sup>10</sup>

이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정의 손을 내미는 용기, 계속 시도하는 끈기,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함을 지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In Bill Sands, *The Seventh Step*(1967), 9.
2. 교리와 성약 84:33~39 참조.
3. 디모데후서 1:7~8.
4. 사도행전 26:28.
5. 고린도전서 9:16.
6. 마태복음 28:18~20.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30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72~73쪽.
9. 예레미야 8:20.
10. 교리와 성약 18:15~1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신성한 도움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막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 우리[가] ..... [가리고] 있습니다.

**리** 버티 감옥에서 깊은 비탄에 잠겨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sup>1</sup>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뇌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신성한 도움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막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를 장막처럼 가리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어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sup>2</sup>라는 심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막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대화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그분의 뜻과 시간에 귀 기울이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아시며 그분의 충실한

자녀에게서 절대 숨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살 된 제 손녀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순수함과 겸손의 힘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손녀는 가족과 함께 유타 주 브리검시티의 성전 일반 공개를 보러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의 어느 한 방에서 그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엄마, 예수님이 어디 계시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녀 일라이자는 엄마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가신 것 같네요.”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장막도 일라이자의 이해력이나 실체를 보는 시각을 흐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 가까이 계시며, 그 아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손녀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계시며,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sup>3</sup> 예수님이 그분의 집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계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주에 대해 손녀가 알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건대, 그 아이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어디선가 선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위안을 아이 같은 손녀의 마음과 정신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알고, 굶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고통이나 외로움, 혼란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그분을 직접 뵈어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 오래전에 지났더라도 일라이자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배웁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아내의 친정 근처에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저에게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의 리스 대학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제 일생의 직업적인 목표는, 제 미래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저를 멀어지게 하는 일종의 장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까지 제가 사회와 가족생활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그 학교는 나의 학교니라”라고 말하는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막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과 겸손으로 제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으며,



그분의 관심과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몇 년을 리кс 대학에서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려 노력했으며 장막이 저를 덮거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려 노력할 때, 저는 그분을 가깝게 느꼈고, 그분이 제 상황을 아시고 제 행복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에 있었을 때 품었던 세상적인 동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кс 대학교 학장으로 5년째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매력적인 이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제일회장단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하고 유쾌하게 답해 주셨지만 분명한 지침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 제가 대기업에서 받은 제의를 다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형제님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면 형제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알겠군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아셨겠지만, 직업적인 성공에 대한 제 욕망은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그분의 권유를 듣고 따르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내는 우리가 리кс 대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계시를 구해야 한다고 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했고,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음성은 “리кс 대학에 좀 더 머물러야 하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제 야망이 현실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여 계시를 받기 어렵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직 제의를 거절하고 리кс 대학에 있어야 한다는 영감 어린 결정을 내린 지 30일 후, 근방에 있던 테튼 댐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댐이 터질 것과 수백 명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언을 구하고 리кс 대학에 남아 있도록 그분의 허락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가 대학과 렉스버그에서 계속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그분은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과 삶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기 위해 자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시간을 일하며 집들에서 진흙과 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소망 때문에 제 영혼을 키울 기회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거나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잘 보여 줍니다. 주님께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렉스버그에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봉사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둘러 다음 단계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려고 고집하다가 그분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에서 교회 회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간구한 것은 확실하고 신속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sup>4</sup> 그분이 교회의 적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의 눈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제 시기에 행할 신속한 심판을 간직하고 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때가 있음이니라.”<sup>5</sup>

“당신의 때에 따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장막을 걷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곧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제 한 며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막을 씌우셨다고 느끼며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린 세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자녀를 더 낳고 싶었습니다. 두 차례나 유산하자 그녀의 애절한 기도에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시간이 몇 년 더 흐르자, 분노가 생기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막내가 등교하고 나면 텅 비어 버리는 집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sup>6</sup>라고 선언했던 마리아처럼 온전히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달래 주고 싶었던 그녀의 남편은 캘리포니아 출장에 동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남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그녀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백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벽차올라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아기를 더 갖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에 대해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께 제 모든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녀는 가족이 가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평안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심적으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채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기도는 장막을 없애고 하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두 주가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임신했습니다. 갓난아기가 돌이 되었을 때, 선교사 부름장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 그녀는 두려움을 제쳐놓고 자녀들을 데리고 국외로 나갔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그녀는 선교사 이동일에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머리에 씌우는 영적인 장막을 걷으려면, 이 젊은 어머니가 한 것처럼 하늘의 뜻에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기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의로웠습니다. 하늘은 먼저 이뤄야 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키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예비된 땅으로 돌고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영원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종종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랫동안 땀을 들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축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뜻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시기 동안 외롭거나 슬퍼하거나 조바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의 시간이 항상 우리의 시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 모두 그분을 대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간증을 전합니다. 지금 그분이 아무런 지장 없이 우리를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그분을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제 손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만큼 그분과 친숙하게 되는 일들을 먼저 행한다면, 심판대에서 그분과 재회하는 일은 더욱 기쁜 것입니다.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되며, 아무것도 우리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날이 이를 때 그분을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8</sup>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그분에 대한 친절로 여기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인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며 기쁜 기대감으로 심판의 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숨기는 장막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이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구주의 유일한 동기는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나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제 사례를 비롯하여 몇 번이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라는 당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이며, 그 사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가족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 사회나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분은 지켜보시고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주 또 오래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나아가 그분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보게 될 때 모로나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내가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쉬리다. 그리하여 나의 영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고, 내가 공중에서 승리자로 나아와,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의 기쁜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sup>9</sup>

우리가 신앙과 겸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소망으로 봉사한다면, 위대한 여호와의 심판대가 기쁨이 될 것임을 간중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분명히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1.
2. 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제3니파이 13:10; 이더서 12:29; 교리와 성약 109:44; 모세서 4:2 참조.
3.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4. 교리와 성약 121:15.
5. 교리와 성약 121:24~25.
6. 누가복음 1:38.
7. 마태복음 25:34.
8. 마태복음 25:35~40.
9. 모로나에서 10:34.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속죄

우리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죄책감이나 약점, 실패, 슬픔,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저는 유폴루 섬에 새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을 포함하여 웨스턴 사모아에서 몇 개의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 접견을 마친 후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자 작은 비행기를 빌려 사바이 섬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파알라의 초원에 착륙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우리는 같은 비행기로 유폴루 섬으로 되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바이 섬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들판 위에는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차를 타고 산호초로 이루어진 활주로가 있는, 섬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비행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무전을 통해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로 가겠다고 회신을 보냈고, 누군가가 물리파누아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길이 12미터짜리 배를 타고 사바이 섬 포구를 벗어나자 선장은 선교부 회장님에게 손전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손전등이 있었던 그분은 선장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몹시도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며 유폴루 섬까지 21킬로미터를 갔습니다. 사나운 열대 폭풍이 그 섬을 덮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에, 우리는 폭풍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물리파누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암초 사이로 난 좁은 뱃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좁은 뱃길은 해변 언덕 위의 불빛과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불빛이 어우러져야 나타납니다. 배를 조종하여 두 불빛이 위 아래로 비추도록 하면 줄지어 있는 위험한 바위들 사이로 난 수로를 통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불빛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장로가 우리를 마중하러 상륙 지점에 나왔지만, 우리가 탄 배는 바다를 건너오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우리 배의 신호를 기다리던 장로들은 아래에서 비쳐야 할 두 번째 등을 켜는 일을 소홀히 한 채 피곤함에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암초 사이로 난 뱃길은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선원이 빌린 손전등을 들고 뱃머리에 서서 앞에 바위가 있는지 살피는 가운데 선장은 전력을 다해 해변에서 비치는 위쪽 불빛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손전등에 비칠 만큼 바위에 가까이 다가가면, 선장은 극도로 긴장하여 후진을



외치며 배를 뒤로 물린 후 다시 뱃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선장은 뱃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4킬로미터 떨어진 아피아 항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사나운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처럼 캄캄했던 밤은 없었습니다.

엔진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전혀 배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배는 산더미만한 파도를 타고 겨우 올라갔다가 꼭대기에 이르면 순간적으로 프로펠러를 물 밖으로 노출한 채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프로펠러의 진동이 어찌나 심했던지 배는 건너편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전에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 팔다리를 짝 펴고 엎드려서 손으로는 화물 덮개 양 끝을 붙들고 발가락으로는 다른 쪽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마크 리틀포드 형제님은 불든 것을 놓쳐 아래쪽 철제 난간으로 날아갔습니다. 머리가 찢어지긴 했어도 다행히 난간 덕분에 물속으로 휩쓸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겨우 아피아 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는 안전을 위해 서로 결박해 둔 배들로 꽂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판에서 자는 사람들을 깨울새라

조용히 그 배들을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폐세가로 가서 옷을 말린 후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바일루타이로 향했습니다.

저는 물리파누아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렸던 장로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비쳐야 할 그 불빛이 없었기에 모두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잘 불리지는 않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대에서 밝히는 자비  
길이길이 환하게 빛나니  
우리도 불빛이 되어  
바닷가를 밝혀야 하리  
우리 작은 불빛 밝혀  
성난 파도 너머로 반짝이게 하세  
지치고 힘든 가여운 뱃사람을  
구할 수 있으리, 구할 수 있으리.

죄의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성난 파도는 울부짖네  
바닷가 불빛 반짝이길  
애타게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

형제여 돌아보라 등불 꺼지지 않게  
항구로 돌아오고자 사투를 벌이는

폭풍우에 휩쓸린 불쌍한 뱃사람  
어둠에 잃어버릴 수도 있으리.<sup>1</sup>

저는 오늘,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돌아올 길을 밝혀 줄 작은 불빛을 찾는 분들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이 필멸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 살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지] ……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sup>2</sup>

우리는 값진 진주를 통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다]”<sup>3</sup>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는]”<sup>4</sup> 중보자요 구속주가 선택되었습니다.

엘마서에서 우리는 속죄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이니 ……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sup>5</sup>

만일 여러분이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속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소하든 심각하든 간에 잘못을 범했다면, 더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기 위해 그 죄를 씻어낼 방법을 찾아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잘못을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sup>6</sup> 그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항구로 인도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3조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sup>7</sup>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버리고 바른 일을 행하여 주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써 회개하는 자의 죄가 씻겨질 수 있으며,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겨질 것입니다.[이사야 1:18 참조]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sup>8</sup>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잔혹한 형벌은 성스러운 고난의 장소인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어 골고다에서 끝난, 무시무시한 고통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은 압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꿨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sup>9</sup>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견뎌 내셨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이 한 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시입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sup>10</sup>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며 가지 않았어야 할 곳에 간 적도 있을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언젠가는 완전한 회개의 길을 따르므로써 오는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든 간에 그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구는 어쩌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일 것입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11</sup>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가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오는 누군가를,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누군가를 데려와 이 약속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생을 마칠 때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된 채로 회장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sup>12</sup>

이것이 바로 후기 성도가 전 세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우리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찬송가 “가시밭 험한 길”이란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그 찬송가에는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권고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시밭 험한 길  
찌는 더위 중에  
저 높은 곳 오르려 할 때  
있는 힘 다해야  
도달되는 저 곳  
여행 길게 생각되느냐

근심의 짐 져서  
맘에 약한 절망  
영혼 모두 피곤해질 때  
네가 진 그 짐은  
너무 무거웁고  
도움 없다 생각되느냐

맘의 고통으로  
네 가슴 아플 때  
이제까지 걸은 저 아래  
골짜기 내려다  
보고 한숨 지며  
되돌아가기 원하느냐

너의 여행 이제  
시작되어 가니  
네 마음에 낙담 말아라  
오라 손짓하는  
우리 주 계시니  
위를 보고 기뻐하여라<sup>13</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Hymns*, no. 335.
  2. 모사이야서 3:19.
  3. 모세서 6:57.
  4. 니파이후서 2:7.
  5. 엘마서 34:9.
  6. 모사이야서 16:9.
  7. 신앙개조 제3조.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00쪽.
  9. 누가복음 22:41~44.
  10. 교리와 성약 19:16~18.
  11. 교리와 성약 58:42.
  12. 요한계시록 1:5 참조.
  13. "가시밭 험한 길", 찬송가, 87장.



린다 케이 버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각자 하나님께 봉사할 때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주님의 선택 받은 종임을 매우 확실하게 보여 주는 한 가지 증거는 그분이 구주의 모범에 따라 한 번에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봉사를 베푸는 법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가 ……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sup>1</sup>고 성약했으며, 구주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sup>2</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에서도 이 똑같은 권유가 담겨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sup>3</sup>

서로 사랑하라는 권유가 들리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모범대로 한 사람씩 돌보거나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할 때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라.”

약 40년 전, 우리 부부는 금요일 저녁 데이트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신혼부부로서 두 번째로 성전에 갔던 때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자매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몸을 기울이시며 조용히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제 두려움은 사라졌고 저는 남은 성전 의식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 권유는 천사와 같은 자매님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본 다음에 봉사하는 법을 배운 회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은 다음 몇 가지 일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살 난 초등학교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도우미로 뽑힌 적이 있는데 함께 일할 친구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반에서 저를 괴롭히던 한 남자 아이]를 선택했어요. 다른 애들은 절대 그 친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sup>4</sup>

이 어린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어린이는 그 말썽쟁이 남학생이 절대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어린이는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이는 그 친구를 선택하여 반도우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5</sup>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와드에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먼저 주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청남들은 일찍 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운 날씨에도 한결같이 집회소 바깥에서 와드에 도착하는 많은 연로한 회원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차에서 휠체어와 보행기를 꺼내고 백발이 성성한 회원들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건물로 들어가도록 천천히 안내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합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았기에 그들은 구주의 다음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6</sup>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이 시행되면 이 청남들은 분명 구주와 같은 방법으로 봉사할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고 봉사하는 것은 때때로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한 영감 받은 청년은 사촌인 매디슨이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개인 발전 기록부의 필수 가치관 경험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와드 청년들을 모으고 지도자와 상의하여 매디슨이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청년들은 매디슨의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오는 활동의 일부를 대신 맡아서 끝냄으로써 그녀가 메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sup>7</sup>

이 청년들은 관대한 방법으로 먼저 지켜보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에 장차 어머니와 상호부조회 자매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잘 발전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sup>8</sup> 혹은 지켜보고 봉사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미망인을 기억하여 그분들을 와드 행사[에] ..... 모셔 올 때, ‘상호부조회 모임에 홀로 앉아 있는 자매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앉아요.’ 하고 청하는 모습에서도 ..... 느껴[진다]”<sup>9</sup>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sup>10</sup>는 황금률은 이런 것에 적용됩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봉사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요일에 내가 원기 왕성한 일곱 살짜리 아이들로 가득한 초등학교에서 아내를 돕고 있을 때였다. 초등학교의 함께 나누는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반원 중 한 아이가 몸을 웅크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는 몸이 안 좋은 것이 분명했다. 영은 내게 그 아이를 다독여 줘야 한다고 속삭였고, 나는 그 아이 곁에 앉아 무슨 일인지 조용히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 나는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주 음성 듣네’를 부르자 정말 놀라운 빛과 따뜻함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다. .... 나는 그 소녀 ..... 그리고 나에 대한 구주의 사랑에 대해 간증을 얻었다. .... 나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봉사할 때도 그분의 손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sup>11</sup>

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님은 원기 왕성한 일곱 살짜리 아이들로 가득한 초등학교 반에서 아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봉사를 베풀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이니라”<sup>12</sup>라고 가르치신 구주를 따랐습니다.

최근에 밀어닥친 홍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지켜본 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남성과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은 상가와 가옥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만사를 제쳐둔 채 피해를 입은 건물 청소와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세탁 일에 일손이 필요함을 알아차렸고 어떤 이들은 부지런히 사진과 법률 문서, 서신, 기타 중요한 문서를 닦은 후 조심스럽게 말려서 원 상태로 복원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켜보고 봉사하는 것이 언제나 편리하거나 우리의 일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켜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삶에서 그 한 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장에 문제가 있던 어린 리차드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항상 아내가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달랠지만, 그날은 제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작은 심장은 뛰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구토를 하는 바람에 침대보와 이불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켜 울음을 멈추게 한 후,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보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가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던 그 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sup>13</sup>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sup>14</sup>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방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검약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며 아내에게 선물을 사 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이 옷을 사려는 것이 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건가요?”<sup>15</sup>라고 물었습니다. 봉사할 때 그 질문을 적용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구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라고 자문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더욱 구주의 성역을 닦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질문하셨듯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sup>16</sup>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하고 기진맥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떠나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향했고, 의식 받는 그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내심 많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그날 저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실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자매가 몸을 기울여 “정말 떨려요. 이번이 두 번째로 의식에 참여한 건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했던 그 말을 어떻게 그 자매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그 자매님은 몰랐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살펴보고 계셨고, 그것은 바로 봉사였습니다. 그분은 이 겸손한 젊은 자매님이 저에게 봉사해 줄 것을 요청하게 하시어 제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였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해 주신 많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잊은 채 봉사해 준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에게 특히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지켜보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약을 지키게 되며, 몬슨 회장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제자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구주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이 시대의 선지자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20:77.
2. 요한복음 15:12.
3.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6쪽.
4. Canyon H., “A Good Choice,” *Friend*, Jan. 2012, 31.
5. 마태복음 5:44.
6. 마태복음 25:40.
7. “For Madison,” [lds.org/youth/video/for-madison](http://lds.org/youth/video/for-madison) 참조.
8. 모로나이서 7:47.
9.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5쪽; 또한 *내 왕국의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01쪽 참조.
10. 제3니파이 14:12.
11. 알 벤루원, “그 한 아이를 위해 봉사하며”, *리아호나*, 2012년 8월호, 19쪽; *Ensign*, Aug. 2012, 15; 또한 셸리 디포드,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2011 함께 나누는 시간 28쪽 참조.
12. 제3니파이 27:21.
13. 리차드 지 스코트, “결혼에서 얻는 영원한 행복”,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6쪽.
14. 마태복음 20:26.
15. 로버트 디 헤일즈,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됩”,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쪽.
16. 마태복음 20:32.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 마음을 다해 배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다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계로 와서, 만지며 보라!”<sup>1</sup> 이 말씀은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 주민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느꼈습니다. 이 계명은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느끼고 보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다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느낌들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지식의 근원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 아버지”<sup>2</sup>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지자 아비아다이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에 오는 그 느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깨닫고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sup>4</sup>

이 진리는 동화책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잘 나옵니다.

그 책에서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비밀은 …… 마음으로 볼 때만 진정으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sup>5</sup>

여든여덟 살인 토마스 코엘로 형제는 마음으로 중요한 것을 본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는 우루과이 파이산두의 충실한 고등평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코엘로 형제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명의 선교사가 그를 일으켜 집에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코엘로 형제는 선교사들이 도와주었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후에 선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강한 느낌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 느낌의 영향으로 그는 며칠 만에 물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쉽 없이 봉사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도시의 거리를 왔다갔다하는 그분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정보에 둘러싸인 우리는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필요한 지식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도 나쁜 정보도 찾을 수 있지만, 정보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식<sup>6</sup>, 곧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또 다른 근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천국의 웹을 검색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책보다 더 오래된 책인 성신의 은사”<sup>7</sup>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일 등을 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의 근원에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가만히<sup>8</sup> 천국의 속삭임을 느끼고 따르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현대 기술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볼” 것입니다. 이 천국의 웹을 검색하는 경험을 하면, 현세의 역사나 기타 주제에 관해 읽을 때에도 진리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9</sup>

이제 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죄악을 행하고 주님을 잊으면 이 천국의 웹에 접근하는 능력이 훼손됩니다. 니파이는 형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 [주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기]”<sup>10</sup>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악은 보고, 느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sup>11</sup> 기도하고 영적인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재빠르면, 그리스도의 것을 보고 느끼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큰 시련을 겪고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느낀 평화를 기억하십니까?



바르셀로나, 스페인

• 마음에 깃든 속삭임을 따르기 위해 이미 계획한 일을 변경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문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중요한 영적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더 큰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엘마는 자신의 개종담을 상기시켜 주어 자녀를 강화했습니다.<sup>12</sup> 힐라맨은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악마가 힘을 쓰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들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sup>13</sup>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베냐민 왕의 다음 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즉 이제 오 사람들,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sup>14</sup>

제가 소중히 간직하는 가장 신성한 기억 한 가지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날, 저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들을 느꼈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기억은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되며 어려운 때에는 힘이 됩니다.

혈육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식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분명히 압니다. 이 대단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힘을 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영혼에게 지금 침례를 받고 회개하며

그분께 향하도록 권유합니다.<sup>15</sup>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겪고 속죄를 치르셨다는 것을 어느 영혼이든지 보고, 느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불필요하게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sup>16</sup> 그분 덕택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볍게 하지 못하거나 없애지 못할 짐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아십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간증드립니다. 겪고 있는 고통이 중독이든, 우울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것이며 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돕는 방법”<sup>17</sup>을 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나쁜 매체의 영향이든, 가족 상황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겪는 가족과 부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sup>18</sup> 살아나셨으며,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랑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만나 껴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우리는 그 보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sup>19</sup>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그 주민들의 말에 제 음성을

보탬니다.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sup>20</sup>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거룩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18:25.
2. 제3니파이 11:15.
3. 마태복음 16:16~17 참조.
4. 모사이야서 12:27 참조.
5. Antoine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trans. Katherine Woods(1971), 87.
6. 이터서 4:13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
8.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9. 모로나이서 10:3~5 참조.
10. 니파이전서 17:45.
11. 모로나이서 7:48.
12. 엘마서 36:5~24; 38:6~9 참조.
13. 힐라맨서 5:12 참조.
14. 모사이야서 4:30.
15. 제3니파이 9:13 참조.
16. 교리와 성약 19:16 참조.
17. 엘마서 7:12.
18. 니파이후서 25:13; 또한 제3니파이 25:2 참조.
19. 니파이후서 16:10; 제3니파이 9:13 참조.
20. 제3니파이 11:15~17 참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구주께서 돌아가신 직후 남겨졌던 열한 명의 사도들에게 큰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미숙한 상태였으며 얼마나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sup>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은 사도들 곁에 충분히 오래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3년은 소수의 개종자들을 불러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경이로운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성역을 계속하도록 남겨두고 떠나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갓 성임된 장로들에게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육신으로 그들 앞에 계속 머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비통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sup>2</sup>

그렇게 잠시 그분 곁에서 배우고 나서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자 선생님이며 조인자이자 왕인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필멸의 성역은 끝이 났으며, 그분이 세우신 그 작은 교회는 멸시당하고 사멸할 운명에 놓인 듯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목격하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며 의아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구하고자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경전과는 관계없이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3년이었습니다.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신성한 경험들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울었으며, 그 무섭고 끔찍한 마지막 날 밤에 저보다 더 심하게 통곡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마치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묻는다면, 다시 기쁘게 여러분의 이전 생활로 돌아가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은 열 명의 사도 중 적어도 여섯 명이 동의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요한은 “그들이 ..... 나가서 배에 올랐[다]”<sup>3</sup>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니다. 호수로 돌아온 첫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실망하여 바닷가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그들을 부르며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한때 사도였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온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어부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을 말이었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라고 투덜거리며 대답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얘들아”<sup>4</sup>라고 불린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 낮은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sup>5</sup>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단순한 말에 사도들은 갑자기 그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3년 전에도 그들은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sup>6</sup>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던 이 갈리리 사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sup>7</sup>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며 잡은 것을 두 배에 나눠 담았으나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일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얘들아”라고 부르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sup>8</sup> 이에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sup>9</sup>



그리고 주님을 보고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베드로는 배 난간에서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갑게 재회한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전반적인 사도의 성역에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분명히 베드로 개인에게도, 위대한 반석이라 불린 이 사람이 헌신적인 봉사와 지도력을 발휘하여 장엄한 삶을 살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작고 낡은 배, 너털너털해진 그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153마리의 물고기 더미를 보시며 선임 사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sup>10</sup>

그 대답을 들으신 구주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계속 응시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이 위대한 어부는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sup>11</sup>

구주께서는 이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응시하시며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불과 며칠 전에 받았던 세 차례의 다른 질문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지금까지 단호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는 아마도 자신이 선생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그 대답에 대해 정말로 솔직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탐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간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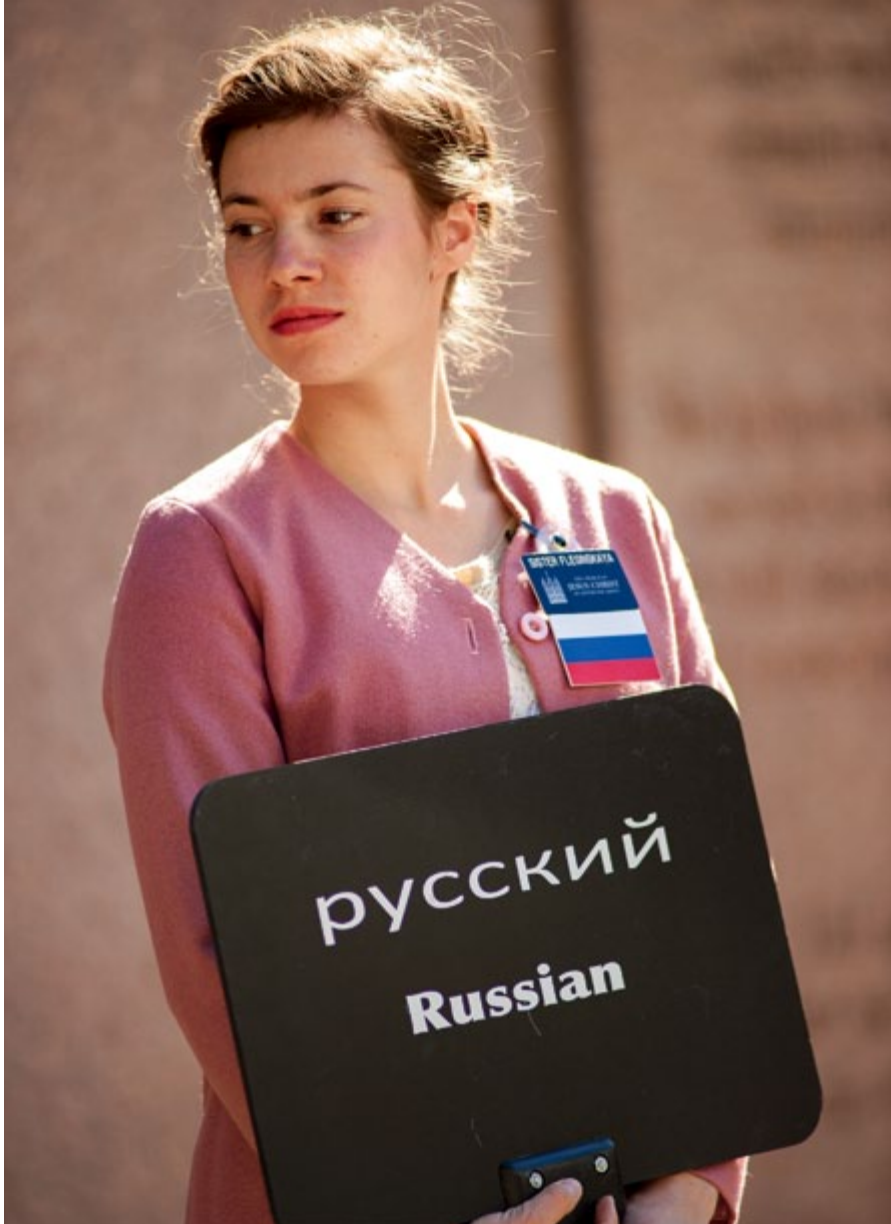
그 말에 주님은, (여기서 다시,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것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베드로야, 내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며,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리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리라. 우리의 일은 힘없는 메시지가 아니며 덧없이 지나가는 일도 아니니라. 불행하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으며, 역사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버릴 일도 아니니라.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일이니라. 그러므로 베드로, 이제 다시 한 번, 아마도 마지막으로 네게 부탁하노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충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내게 한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하라.”

그런 뒤 그분은 모든 사도를 향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헤롯과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으냐? 너희도 그들처럼 단순히 나를 죽이면 이 사업이 끝날 것이라 여겼느냐? 너희도 그들처럼 십자가와 못과 무덤이 이 모든 것의 끝이며 각자 이전의 생활로 기쁘게 돌아가면 되리라 여겼느냐? 애들이, 나의 삶과 사랑이 그보다 더 깊이 너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78 하나님께서는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필멸의 삶을 살면서 아주 미숙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이해력 속에서도 최소한 모든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 곧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sup>13</sup>는 계명을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순간에 우리가 더듬거리며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사랑의 궁극적인 특성이란 바로 변함없는 충실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sup>14</sup> 우리 주위에는 축복해야 할 이웃과 보호해야 할 자녀, 구제해야 할 궁핍한 사람들과 수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 나눠야 할 진리,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념할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힘, 속죄, 부활은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소수의 갈릴리 어부들이 두 번째로 그물을 버리고 다시 사도가 되어 “단 하나의 회당이나 갈”<sup>15</sup>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 저는 그러한 사도의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마지막 대업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한때 우리와 함께했으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몇몇 특정한 부분만을 골라 취하고서 우리 길을 떠나신 분들께, 저는 긴 밤을 수고하여도 빈 그물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와서 충실히 남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외칩니다. 확고하게 충실하라는 그

외침은 침례탕에서 팔을 직각으로 들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sup>16</sup>라고 말한 적이 있는 모든 귀환 선교사에게도 전합니다. 그 위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종자는 영원히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도 영원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장하여 선교 사업을 나가고 성전에 가고 결혼을 하게 될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대의 죄와 죄로부터 깨끗하게 남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놀라운 발표를 하시며 그것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시기에 걸쳐 충실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 귓가에 울리며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제 영혼과 존경을 다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손에 쟁기를”<sup>17</sup> 잡은 우리는 이 사업을 끝마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까지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14:9.
2. 마가복음 9:31~32.
3. 요한복음 21:3.
4. 요한복음 21:5 참조.
5. 요한복음 21:6.
6. 누가복음 5:5.
7. 누가복음 5:6.
8. 요한복음 21:6.
9. 요한복음 21:7.
10. 요한복음 21:15.
11. 요한복음 21:16.
12. 요한복음 21:17.
13. 누가복음 10:27; 또한 마태복음 22:37~38 참조.
14. 요한복음 14:15.
15. 새로 설립된 이 교회가 처한 곤경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Frederick William Farrar의 저서, *The Life of Christ*(1994), 656; chapter 62을 참조한다.
16. 교리와 성약 20:73.
17. 누가복음 9:6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므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제가 1963년 10월 4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은 이래로 49년째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49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제가 태버나클 연단에 서서 첫 연차 대회 말씀을 전한 이래로 그 세월은 여러 면에서 매우 짧았던 듯합니다.

1963년 10월 4일 이래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도 독특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문제들과 죄를 허용하는 풍조를 보면 낙심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작게 보이거나 종종 간과하는 축복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9년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겪었던 무수한 경험이 꼭 범상치 않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일들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특별한 일 같지도 않았고 평범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그 경험들은 제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삶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받은 크고 작은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sup>1</sup>라는 물몬경 니파이후서에 나오는 진리를 잘 압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크게 느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기대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sup>2</sup>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말려진 몇 분 동안,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었던 작은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제 삶에도 축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줄곧 일지를 써 온 덕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억하지 못했을 몇 가지 구체적인 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1965년 초반에 저는 남태평양 지역 곳곳에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다른 여러 모임도 개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임무로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며 지도자들과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만나는 동안 많은 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던 2월 20일과 21일에 우리는 브리즈번 스테이크의 정규 스테이크 대회를 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모임 동안에 저는 인근 지역에서 온 지방부 회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와 대화하며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날 일요일 오전 모임까지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요일 모임을 마친 후에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방부 회장의 여러 책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선교 사업에 관해, 그리고 그와 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전임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지방부 회장이 그 일로 기도하여 인도를 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었다는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그 만남은 결코기엔 특별한 일 같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이 영의 인도를 받았으며, 그 지방부 회장이 부름을 수행하는 데, 그와 그 회원들의 삶에, 그리고 그 지역 선교사들의 성공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종종 우리가 영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감과 느낌을 따라 더 많이 행할수록 주님은 그분의 일을 더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속삭임을 받으면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 전 어느 날,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옛 테저렛 체육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병원에 입원한 친한 친구를 찾아가 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아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친구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영장에서 나와 옷을 입고 그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물리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병원 수영장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친구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그곳에 갔으며, 거기에는 그 친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영장의 가장 깊은 물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자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저를 맞으러 왔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친구를 병실로 데려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훗날 저는 그 친구로부터 그날 완전히 낙담하여 자살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안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영장 깊은 곳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불행을 끝내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바와 같이 높은 곳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후 친구는 수년 동안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기의 날에 수영장에서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와 함께 친구들을 방문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도시에 사는 연로한 미망인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 자매님은 이전에 저와 같은 와드 지역에 사셨던 분으로, 이름은 젤라 토머스입니다. 당시에 그 자매님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 이른 오후에 우리는 그 자매님이 극도로 허약한 가운데서도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젤라 자매님은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우리 목소리를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자매님은 제게 축복을 줄 수 있는지 물으시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방 안에 감미롭고 평화로운 영이 임했으며, 우리는 모두 그 자매님이 지상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젤라 자매님은 제 손을 잡더니 제가 자신을 찾아와서 축복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매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영감을 받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다시 그 자매님을 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매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자매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정한 젤라 자매님에게 얼마간의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매님이나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을 주는 기회는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몹시도 추웠던 1983년과 84년 사이 겨울의 어느 토요일 밤에 아내와 저는 우리 집이 있는 유타 주 미드웨이의 산골짜기를 향해 수 킬로미터를 운전해 갔습니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31도였으므로 우리는 집에 아무 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별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집을 떠나 솔트레이크시티로 다시 향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쪽으로 간신히 몇 킬로미터를 달렸으나 그만 시동이 꺼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만큼 추위를 크게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해 가장 가까운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데, 옆으로 차들이 쌍쌍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차 한 대가 섰고, 한 젊은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스탱크의 디젤 연료가 추위로 뿅뿅해져서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친절한 젊은이는 우리를 미드웨이에 있는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이스카우트이며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그는 도울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교사 연령쯤 되어 보여서 저는 그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다음 월요일 아침에 저는 그 젊은이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쓴 책 중 한 권에다 선교 사업을 다른 장들에 모두 밑줄을 친 후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젊은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지만, 사는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오랜 소망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편은 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유타 프로보 성전의 기도 명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의 마음이 좋은 쪽으로 감화되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되찾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추운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젊은이와 좀 더 대화를 나눈 후, 아내와 저는 그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로 떠나기 전에 열린 선교사 송별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추운 12월 밤에 만난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만남은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을 위해 드린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므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가 너무 작거나 사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염려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최근의 경험 하나를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일은 바로 5개월 전에 캔자스시티 성전 문화 행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이 그렇듯이 당시에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또 하나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헌납되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문화 행사와 관련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날 밤의 공연이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성전 헌납과 관련하여 열리는 모든 문화 행사에서 그렇듯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 구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각자 지역별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연이 있는 토요일 아침에, 미리 빌려 둔 커다란 시민 회관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입장하고, 어디에서 있으며, 옆 사람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1층에서 어떻게 퇴장하는지 등을 알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각자 맡은 다양한 장면을 한데 모아서 합하는 동안 그런 세세한 것을 파악해야 그날 공연을 세련되고 능숙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 공연의 성공 여부는 점보트론이라는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사전 녹화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녹화물은 전체 공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체 공연을 함께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각 녹화 장면으로 그다음 공연을 소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화물은 전체 작품을 연출하는 데 빼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보트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귀중한 연습 시간을 허비하며 기다리는 동안 기술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매달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행사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수잔 쿠퍼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획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 계획들로 옮겨 가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 우린 일정표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쪽 1층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그날 저녁에 시민 회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는 그날 있었던 곤경을 전혀 몰랐으며, 나중에야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가 보아 온 것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영화롭고도 강력한 영을 발산했으며,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 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입장하고, 어디에 서 있으며, 자기 주변의 다른 모든 공연자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듯했습니다. 예행 연습이 도중에 중단되고 그 많은 인원이 전체 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 왕국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고 지도하시면서도 한 사람, 또는 한 문화 행사, 또는 하나의 점보트론에 관해 어떻게 영감을 주실 시간을 내시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관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실 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축복을 인식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후서 2:25.
2. 교리와 성약 112:10.
3. Susan Cooper, in Maurine Proctor, "Nothing's Too Hard for the Lord: The Kansas City Cultural Celebration," *Meridian Magazine*, May 9, 2012, ldsmag.com.
4. Proctor, *Meridian Magazine*, May 9, 2012.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3천 명의 청소년들이었지요. 우리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신앙을 끌어내야 했습니다.”<sup>3</sup>

관객이 회관으로 들어오기 바로 한 시간 전에 3천 명의 청소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점보트론에 매달려 있는 기술자들이 영감을 받아 어떻게 해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이 부족해서 연습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 일을 기록한 한 분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닥이 딱딱해서가 아니라 영이 그들의 뺨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sup>4</sup>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문제가 발견되어 고쳤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청소년들은 모두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기**독교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속죄라고 알고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신권 권세가 있는 이들에게서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182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과 그분의 초대  
교회 조직을 회복하셨습니다.

경전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성신은 영으로 된  
개체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합니다.  
신화의 세 구성원은 독립된 존재이지만  
목적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교리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  
어떤 의구심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독교인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두 제자가 한 경험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sup>1</sup>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던”<sup>2</sup> 것처럼 곧바로, 즉시,  
결의에 차서 행동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세상적인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sup>3</sup>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버리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도록]”<sup>4</sup>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개심이라 부르는 이 변화는 오직 구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sup>5</sup>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면, 본성이  
변화하고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충실한 기독교인은 늘  
어려움과 실망이라는 경험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하는 고난을 맞을  
때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구주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임  
사도인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잘 알고 편하게 느끼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sup>6</sup> 라고 말하며 다른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구주의 지시대로 한 제자들은 기적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 넘쳐나는 것을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구주의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 물가로 헤엄쳐갔습니다.<sup>7</sup>

그다지 충실하지 못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충실한 모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곳으로 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분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풍성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물로 돌아온 제자들은 물고기와 떡이 풍성히 차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sup>8</sup> 하고 권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구주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sup>9</sup>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와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고취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즉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권 정위원회와 보조 조직에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선한 기독교인 이웃이 되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찾아가고 돌보는 순수한 종교적 실천을 통해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되라는 소명은 힘들고 때로 감당하기 힘들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sup>10</sup>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사와 재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영역을 넘어서서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웃과 복음을 나누는 것, 영적으로 길 잃은 이들을 구하는 것,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탕자를 사랑하는 것, 병환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것, 오해를 감내하는 것, 또는 고난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하라신 대로 말하리, 하라신 대로 하오리, 원하신 대로 되오리.”<sup>11</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후기 성도들이 하는 기독교인다운 헌신에 대해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분이나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주님을 다시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의 첫 제자들은 모두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으며 그분의 복음으로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내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다음 특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해지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이를 친절히 대하고 가엾게 여기신 그분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셨는데<sup>12</sup> 이는 그분에게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기]”<sup>13</sup>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 유혹과 고난과 박해에도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 구주께서는 평생토록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내주셨고, 궁극적으로 속죄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부활하고 영생을 상속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보살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주께서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의 문화와 신조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을 구조하고, 사랑하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구주께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는 일이든,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먼지 묻은 발을 씻는 일이든 타인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치셨으며, 이로써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 구주께서는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을 받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인내로, 우리가 옳은 길을 깨닫고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평화.** 주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가르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독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도 다른 기독교인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그것이 진실함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즉시 개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sup>14</sup> 우리의 관심도 대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sup>15</sup>

*그리스도와 같은 끝까지 견딤.*

구주께서는 평생토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의로움과 선함, 자비와 진리 안에서 그분의 지상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주의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의 일부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구주의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인 저는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sup>16</sup>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간증드립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 영생으로 이끄는 길에 와서 걸으십시오. 우리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4:18~20.
2. 마가복음 1:18.
3. 마가복음 8:34.
4. 모사이야서 5:2.
5. 이터서 12:27; 강조체 추가.
6. 요한복음 21:3.
7. 요한복음 21:3~8.
8. 요한복음 21:12.
9. 요한복음 21:15~17.
10. 마태복음 4:19; 강조체 추가.
11.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12. 마태복음 18:12~14 참조.
13. 누가복음 12:7.
14. 교리와 성약 50:24.
15. 교리와 성약 93:9.
16. 누가복음 18:22.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주 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스러운 침례 의식에 관한 숭고한 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빛은 다른 기독교 교회들이 영혼의 운명은 사망 시점의 영적 상태로 결정되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가르치던 시절에 왔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끝없는 기쁨으로 보상받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구속에 대한 희망 없이 영원한 고통을 맞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합당한 신권 권세를 통해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로 침례를 행할 수 있다는 주님의 계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그분의 말씀이 공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니다. 대리 침례는 다행스럽게도 이생에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합당한 사람을 위해 이 필수적인 의식을 제공합니다.

이 영화로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사망을 이겼으며, 그분은 합당한 죽은 자들이 대리로 모든 구원 의식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150여 년 전에 쓴 서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도들은 ……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임명된 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돌아가신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sup>2</sup> 이후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은 친척들을 위한 그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다.”<sup>3</sup>

선지자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대리 사업을 위한 열쇠를 맡겼습니다.<sup>4</sup>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sup>5</sup>라는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다음 선지자들이 받은 더 많은 계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셉 스미스 이후로 모든 선지자는 자신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모든 의식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침례 의식과 성신의 은사 의식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건강이나 성전의 거리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승영을 위해 필요한 신권 성전 의식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조상들을 찾기 위해 가족 역사 탐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 자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기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데 거리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역사 탐구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성전 의식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회원들은 성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가족 계보에 대한 가족 역사 탐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받지만, 후기 선지자들의 성스러운 권고와는 달리 그들 자신의 돌아가신 친족을 찾지 않으므로써 축복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역사를 탐구한 다음, 자신이 이름을 찾은 사람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는 사람들은 양쪽의 축복을 모두 받는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sup>6</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중요한 대리 사업에 대한 축복을 양쪽 모두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우리가 그럴 자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 축복들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조상 중 한 분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는다면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성스러워지고 더 큰 축복들이 올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자신의 조상들을 찾는 것입니다.”<sup>7</sup>

청소년 여러분,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자신의 조상을 찾는 데 몰두하고, 성전에서 성스러운 대리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준비한 다음, 성전에 가서 그분들을 대신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나이가 더 들면, 다른 의식들을 받는 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선교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각자 2,000개의 이름 색인 작업을 한 다음, 성전 의식을 위해 자신의 조상 중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을 준비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들은 새로 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으로 가는 긴 여행에 초대받았습니다. 한 청남은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냈었는데, 색인 작업을 시작하면서는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떡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나자 게임이 더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 계보 사업은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늘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가족 계보 조사를 해 왔으며, 가족들이 직접 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FamilySearch 사이트에서 의식을 예약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약하는 취지는 사람들이 각자 [직계] 존속 및 방계 혈족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도록 적절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1,200만개의 이름과 그에 따른 수백만 개의 의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수년 동안 예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발견된 조상들은 자신의 이름이 의식을 위해 승인되었을 때 틀림없이 설레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이 수행되기를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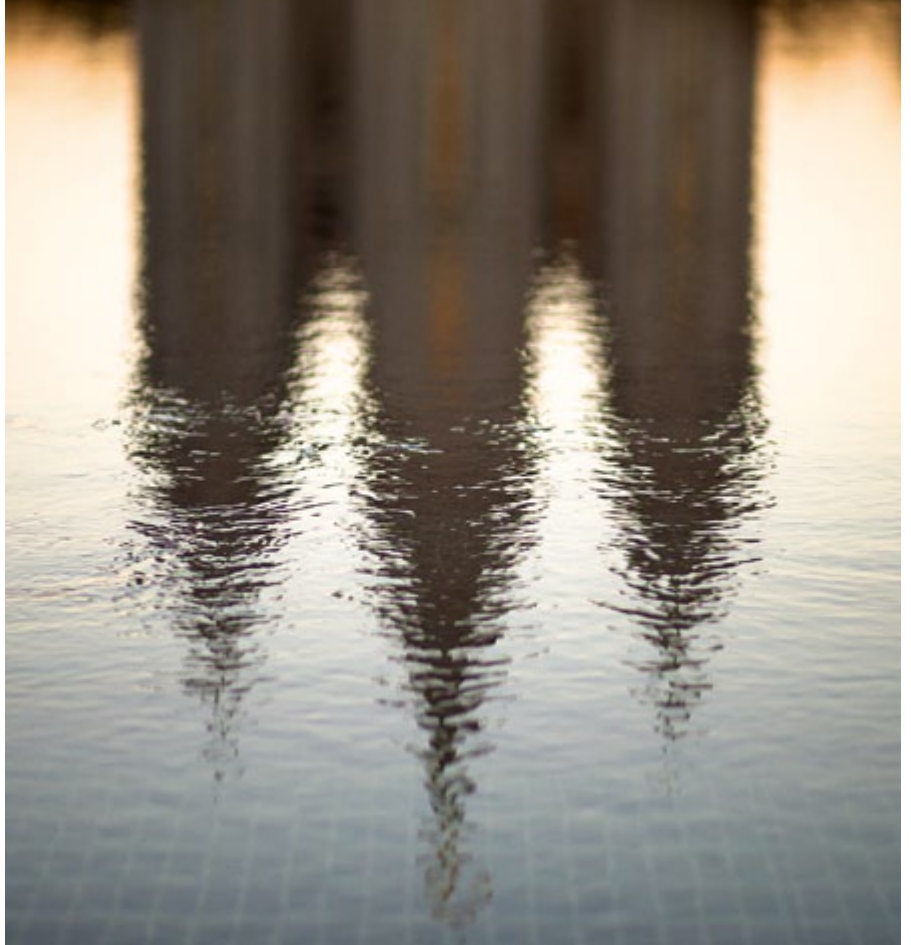
우리는 예약된 이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의 확대 가족이나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나눠 줘서 그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완수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성전 카드를 나눠 주거나 FamilySearch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름을 직접 성전에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와이오밍 주

캐스퍼에 사는 신디 블레빈스가 수년 동안 해 온 방법입니다.

블레빈스 자매님은 청소년기에 침례 받은 이래로 줄곧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계보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직계 가족이 성전 의식까지 완수하기에는 이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블레빈스 자매님은 이름들을 성전에 제출했고, 의식은 대개 집과 가장 가까운 한두 군데 성전에서 몇 주 안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조상을 위한 [대리] 사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자신의 와드 및 스테이크 친구들과 회원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렇게 해 준 것을 고마워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 지닌은 가족 역사 탐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내는 친구들과 돌아가며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면서 몇 주에 한 번씩 몇 시간을 내어 가족의 계보를 조사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집을 떠나 독립한 후, 아내는 개인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막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이다. 마이크가 쓰던 방은 내 계보 작업실이 되었다. 그 방은 기록을 정리하고 작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 삶은 이제 중요한 가족 탐구와 성전 이름 제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설레고, 어서 일을 시작하고 싶다.”<sup>8</sup>

다른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가족 역사 사무실에서 멜 올슨이 계보 협회에 제출된 최신 Ancestral File(조상 파일) 전산 기록에서 찾은 내 모든 조상의 가계도를 인쇄하여 나에게 전해 준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수년 전에 교회에서 회원들에게 권고한 4대 계보 프로그램에서 나온 기록이었다. 최초의 Ancestral File(조상 파일) 전산 보급을 위해 여러 기관에 가서 내 조상에 대한 조사 기록을 모두 수집해 컴퓨터에 전부 입력해야 하는 대작업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던 터였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훌륭하게 잘 정리되어서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되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라 그냥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행복에 겨워 울기 시작했다. …… 30년 동안 끈질기게 고생해서 탐구해 온 사람에게 이 모든 기록의 전산화는 정말로 흥분되는 일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또는 곧 엄청난 분량의 인구 조사 자료와 개인 탐구 디스크 등을 전산화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사업이며, 그분이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sup>9</sup>

저는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준 열쇠가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조상과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고 우리 각자를 그들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만큼 이 숭고한 사업의 열매를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이곳 지상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구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열심히 활용할 때, 우리의 조상은 구원 의식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의 성스러움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용감하게 도전에 맞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네브래스카의 모든 곡식을 혼자서 추수하려는 노력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콤파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요구받은 일을 달성할 것입니다.

엘리아의 영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유례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한쪽에 제쳐놓으십시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조상을 찾아보라는 속삭임은 들었지만, 자신은 계보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랑과 돕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뿐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휘장 양쪽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해야 하는 막대하고도 영적인 사업입니다. 세계 어디에 계시든 기도, 신앙, 결심, 근면, 그리고 약간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은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3:5.
2. *History of the Church*, 4:231.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2쪽.
4.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5. 교리와 성약 2:2; 강조체 추가.
6. 하워드 더블유 헌터, “성전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5~6쪽; *Ensign*, Feb. 1995, 4-5.
7. 제일 회장단 서한, 2012년 2월 29일, 강조체 추가.
8. 지닌 왓킨스 스코트, 개인 일지, 1988년 4월.
9. 지닌 왓킨스 스코트, 개인 일지, 1989년 9월 23일.





러셀 티 오스구토프  
본부 주일학교 회장

# 구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개심은 모든 복음 학습과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개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처럼 되기 위해 평생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쓴 짧은 기사가 *리아호나*와 *Ensign*[엔사인]에 실렸습니다. 이를 본 제 아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쓴 기사가 나올 때는 우리한테 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교회 잡지를 읽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하지 않았단다.” 아들은 다시 답신을 보내 자신의 열 살 된 딸이 그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엔사인을 집으로 가져와서 읽고 난 다음, 우리 방으로 와 아버지 기사를 보여 주었어요.”

제 손녀는 배우고 싶었기에 엔사인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에게 있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행동했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최근에 승인한 새로운 청소년 학습 자료는 복음을 배우고, 생활화하며, 나누겠다는 청소년들의 선천적인 소망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이 새 자료는 현재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교실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용 새로운 학습 자료에 관해서는 [lds.org/youth/learn](http://lds.org/youth/learn)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구주께서 가르치셨을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선택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으며<sup>1</sup> 항상 그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셨습니다.<sup>2</sup>

이 새로운 학습 자료는 가정과 교실에서 구주의 방법대로 배우고<sup>3</sup> 가르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매우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듯이 “와서 나를 따르라”<sup>4</sup>고 하신 구주의 권유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조 조직 및 세미나리 지도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들과 상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녀들이 교실에서, 청남들이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는 자폐증이 있는 청남 두 명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반원들에게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권유했을 때, 그 두 청남은 거절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반원이 일어나서 배운 것을 가르친 후에 자폐증이 있는 청남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남이 막히기 시작하자 그 반원은 옆에 서서 낚시줄을 해 주었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가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을 느끼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가르치신 내용뿐아니라 구주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반원이 자폐아 친구에게 한 것처럼, 구주께서는 가르치실 때 배우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sup>5</sup>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방법대로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분을 따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구주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성장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분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완전한 개심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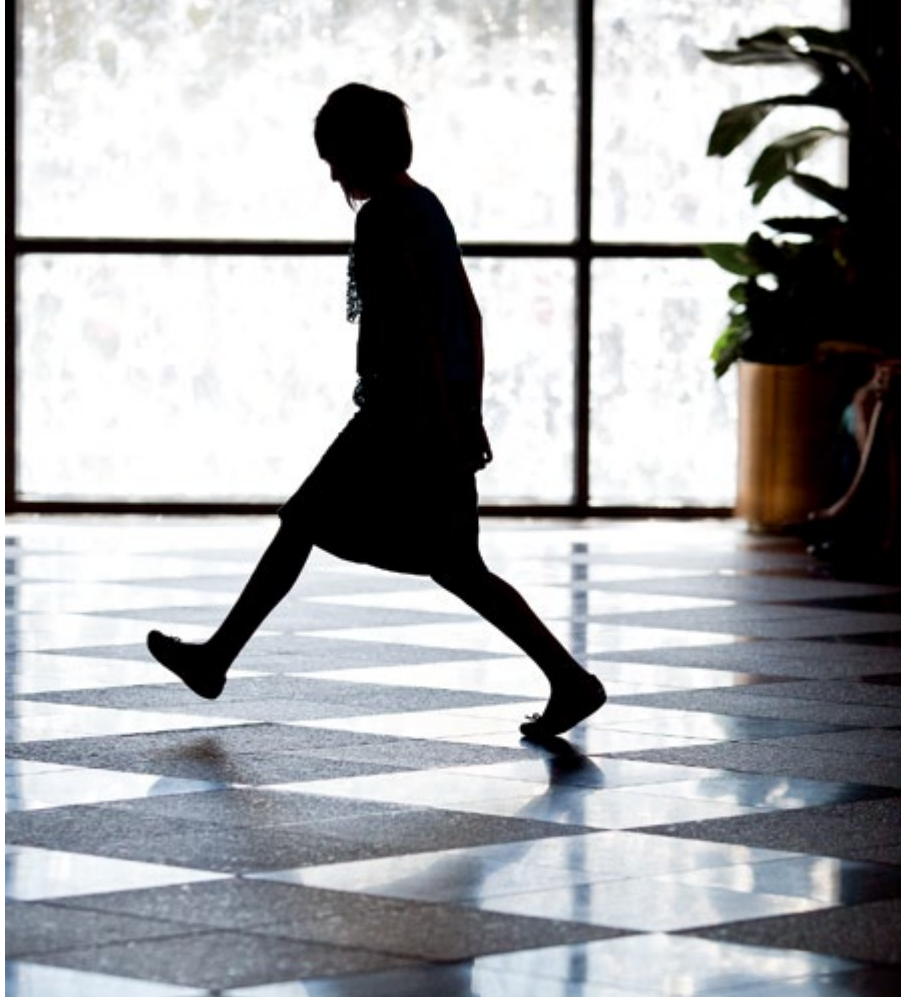
개심은 모든 복음 학습과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개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처럼 되기 위해 평생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심[하는 것] …… 행함과 됴됨이가 요구”<sup>6</sup>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심하기 위해 배우는 일은 알고 행하고 됴됨이를 다져 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심하기 위해 가르치는 데에는 주요 교리, 행동하라는 권유, 약속된 축복이 필요합니다.<sup>7</sup> 우리는 참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배우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동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교리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올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앨마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sup>8</sup>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학습 자료의 한 가지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한 청남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청남이 자신의 삶과 속죄를 연관 짓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챈 저는 그에게 용서를 느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축구를 하다가 친구의 코뼈를 부러뜨렸을 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아질까 생각했죠.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용서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속죄는 저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날 그 청남은 이 경험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그 청남은 속죄의 힘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 청남에게 이 교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남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행동했기에 속죄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sup>9</sup>

이 청남은 점점 더 개심하게 되었고, 그의 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하여 주요 교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말씀들을 자신의 생활과 연관 지은 다음, 교리에 따라 생활한 결과로 얻은 축복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성스러운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강화하고, 간증을 확립하며, 모든 사람이 완전히 개심하도록 돕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학습 자료는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저는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을 듣고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 읽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놀랍게도, 앞줄에 앉은 한 자매님이 손을 들어서 매일 이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앞으로 나와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문경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을 읽습니다.”

그 자매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방법으로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한 다음, 자녀들이 온전히 개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복음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패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매님은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욱 그 자매님을 강화하시어 그분과 같은 길을 걷도록 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개심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힘듭니다. 제 처남은 50년 동안 저활동 회원이었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돌아오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한 가정 복음 교사는 22년 동안 매달 그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싶다고 결심해야 하는 사람은 제 처남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의지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떼야 했고, 그런 후에 계속해서 한 발짝씩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함께 성전에서 인봉받고 감독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에게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새로운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보여 주었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처남은 의자에 앉은 채 제게 몸을 기울여 다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봤다면



아테네, 그리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텐데요.”

몇 주 전에 저는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회 회원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이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접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며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모임을 시청할게요.” 저는 오늘 그 청년이 시청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고 있다면, 뭔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는 개심을 위한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 분들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은 구주의 방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sup>10</sup> 우리는 한 걸음씩 그분과 가까워집니다.

이 대회를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그 발걸음을 떼도록 권합니다. 옛 니파이인들처럼 우리는 “집으로 가서,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sup>11</sup>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생활화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와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나타나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주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감으로써 모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방법대로 배우고 가르치며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개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3:1~7 참조.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는 니고테모가 한 질문에 답하셨다. 그분은 니고테모의 필요 사항에 맞게 가르치셨고, 니고테모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배우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
2. 요한복음 3:4; 조셉 스미스—역사 1:18 참조.
3. “Teaching the Gospel in the Savior’s Way,” lds.org/youth/learn/guidebook/teaching 참조.
4. 누가복음 18:18-22 참조.
5. 요한1서 4:19 참조.
6.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1쪽; *Ensign*, Nov. 2000, 33: “간증한다 함은 알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개심할 것을 권유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행함과 됴됨이가 요구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전적으로 복음 지식과 간증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개심’하도록 권유받았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축복은 받았으나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한 간증은 갖고 있으나 그 간증을 좇아 행동하지 않으므로써 개심하지 않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7. 아브라함서 2:11.
8. 모사이야서 27:24~26; 고린도후서 5:17.
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깨어 항상 힘쓰며”,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3쪽 참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어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 돕습니다. 아니면 가르침을 받고 행함을 받는 것을 기다리도록 훈련해 왔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주로 자녀에게 영적인 물고기만을 먹이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행동하고, 스스로 배우고, 확고부동하게 서도록 돕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러지도록 돕습니까?”
10. 테니스 비 노인슈완더, “살아 계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51쪽; *Ensign*, Nov. 2000, 40-42 참조.
11. 제3니파이 17:3.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복음의 길을 오르고 필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장엄한 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 근에 우리 내쉬 가족 중 몇 명은 와이나픽추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페루 산맥에 있는 고대 잉카의 마추픽추 유적 근처에 솟은 높다란 봉우리입니다.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과 험준한 낭떠러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이 어우러진 산행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과거에 몇몇 등반객이 그 좁고 가파른 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와이나픽추 산 중턱을 따라 견고한 바위에다 강한 줄을 단단히 매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줄을 잡고 올라갔고, 그 덕분에 정상까지 안전하게 올라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 엄청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이나픽추 등반로와 같이 우리가 걷는 필멸의 여정 역시 가파르고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주와 그분의 구원 능력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원리와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sup>1</sup> 그중 첫째 원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sup>2</sup>은 마치 와이나픽추에 있던 줄과 같습니다. “우리 구속주의 반석”<sup>3</sup>에게 강하고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신앙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복음의 길을 오르고 필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sup>4</sup>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장엄한 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sup>5</sup>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sup>6</sup>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sup>7</sup> 신앙은 배움을 통해 얻는 영의 확신<sup>8</sup>이며, 이것은 우리를 행동<sup>9</sup>으로 이끌어 주어,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는데, 심지어는 희생과 시련의 시기에도 그렇습니다.<sup>10</sup> 신앙은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가져다줍니다. 그와 같은 힘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들에 대한 소망<sup>11</sup>, 신앙을 확인해 주는 기적<sup>12</sup>, 현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서 받는 신성한 보호<sup>13</sup> 등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초창기 개척자인 앤 로울리 자매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미망인이었던 로울리 자매님은 신앙을 행사하여 시온으로 모이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윌리 손수레 부대 일원이었는데,

그 부대는 1856년 가을에 수북이 쌓인 눈밭을 헤쳐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의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일곱 자녀들은 말 그대로 굶주려 있었고,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 밤이 찾아오는데 저녁 끼니로 쓸 식량이 없었다. 나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무릎을 꿇었는데, 바다 여행에서 먹고 남은 딱딱한 선원용 건빵 두 조각이 생각났다. 그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너무 딱딱해서 부서지지도 않았다. 당연히 여덟 사람이 먹기에 충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 역시 오천 명을 먹이기에는 모자란 양이었으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그 일을 해내셨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나는 그 건빵을 찾아 철제 솥에 넣고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다. 곧이어 뚜껑을 덮고서 석탄불 위에 놓았다. 조금 뒤에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솥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는 음식이 넉넉했다.”<sup>14</sup>

앤 로울리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며 복음을 실천했고, 도움이 필요했으며, 기도로 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신앙 덕분에 희망으로 충만해졌고, 기적적으로 가족을 위한 양식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히 중요한 능력인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sup>15</sup> 능력을 그녀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면서도 내일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끈기 있게 “여호와를 앙망하[며]”<sup>16</sup> 희망으로 전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처럼 말합니다.

어둠에 싸인 밤에 빛으로써 이끄소서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사오니 인도하소서



내 갈길 모두 보기 원치 않으니  
발 앞에만 비추어 주옵소서<sup>17</sup>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친절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sup>18</sup>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sup>19</sup> 붙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사탄은 의심이나 두려움, 죄 같은 것을 이용해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 신앙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제 대적의 유혹을 알아차려서 물리칠 수 있도록 신앙의 장애물들을 각각 살펴봅시다.<sup>20</sup>

첫째,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에 저항하게 됩니다.<sup>21</sup> 의심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sup>22</sup>

불신앙이나 의심으로 신앙이 시들고 있다면, 고대 사도들도 “믿음을 더하[게 해]”<sup>23</sup>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이성 은 서로에게 필요한 한 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이성은 항공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비행을 계속하려면 두 개 다 꼭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기에 이성과 신앙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에 비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sup>24</sup> 비행 중인 항공기 날개 하나를 떼어 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작은 신앙을 잘 강화하여 신앙을 통해 생기는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과 이성에 닿이 되게 하십시오.<sup>25</sup> 그런 이유로 우리는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sup>26</sup>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지금 곧바로 설명할 수 없지만, 작은 건빵 두 조각으로 술에 음식이 가득 차게 한다거나, 온갖 어려움에도 단순히 신앙으로 인내하는 일과 같이, 신앙이 먼저 있어야 기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sup>27</sup>

둘째, 두려움은 구주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폭풍우가 일던 어느 날 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눈길을 돌려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곧이어 물결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sup>28</sup> 만약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에 붙어 닳치는 거센 바람과 물결에 집중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sup>29</sup>

셋째, 죄를 지으면 삶에 영의 임재함이 줄어들게 되며, 성신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행사할 영적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신앙을 행사하여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고]”<sup>30</sup>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여] ……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이[기]지 않게 하는 것”<sup>31</sup>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죄가 여러분의 삶을 더럽혔다면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십시오.]”<sup>32</sup> 그러면 구주께서 속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순결하게 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마주치는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sup>33</sup> 그분은 앤 로울러를 위해 그렇게 하였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으로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희망과 보호, 권능으로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sup>34</sup> 와이어나픽추 산길에 있던 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구속주의 반석”<sup>35</sup>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구원 능력에 연결해 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 미래는 우리 신앙만큼 밝다.”<sup>36</sup>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엄하고 희망찬 그 진리에 대해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sup>37</sup>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세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구주가 살아 계시며,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sup>38</sup>이시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sup>39</sup>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2. 신앙개조 제4조 참조.
3. 힐라맨서 5:12.
4. 교리와 성약 76:53 참조.
5. 이터서 12:3 참조.
6. Lectures on Faith(1985), 3 참조; 또한 야곱서 4:6; 이터서 12:7~220; 히브리서 11:4~400 참조.
7. 엘마서 32:21.
8. 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11:1 참조.
9. 니파이후서 25:23; 엘마서 34:15~17; 이터서 12:6; 야고보서 2:17~26 참조.
10. 이터서 12:4~6; Lectures on Faith, 69 참조.
11. 모로나이서 7:40~42 참조.
12. 경건 안내서, “신앙” 참조; 또한 물문서 9:8~21; 모로나이서 7:33~37 참조.
13. 교리와 성약 27:17; 엘마서 57:19~27; 58:10~13 참조.
14. Ann Rowley, in Andrew D. Olsen, *The Price We Paid: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e Willie and Martin Handcart Pioneers*(2006), 113.
15. 교리와 성약 20:25.
16. 이사야 40:31.
17.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18. 야곱서 4:10; 물문서 9:9 참조.
19. 교리와 성약 27:17; 강조체 추가.
20. 니파이전서 8:33~34; 엘마서 37:33; 교리와 성약 20:22 참조.
21. 엘마서 32:28 참조.
22. 모사이야서 4:9.
23. 누가복음 17:5.
24. 모사이야서 4:9~10; 잠언 3:5~7; 이사야 55:8~9 참조.
25. 이터서 12:4 참조.
26. 교리와 성약 88:118; 강조체 추가.
27. 모로나이서 7:33~38; 이터서 12:19 참조.
28. 마태복음 14:25~31 참조.
29. 교리와 성약 6:36.
30. 모로나이서 10:30.
31. 교리와 성약 136:42.
32. 엘마서 34:15~17 참조; 또한 이터서 12:3 참조.
33. 이터서 12:29; 엘마서 7:27 참조.
34. 물문서 9:18~21 참조; 또한 모로나이서 7:33~38; 엘마서 37:16~17 참조.
35. 힐라맨서 5:12.
36. 토마스 에스 폰슨, “기뻐하라”,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89쪽.
37. 야고보서 1:6~8 참조.
38. 모로나이서 6:4; 또한 히브리서 12:2 참조.
39. 히브리서 11:6; 또한 이터서 12:41 참조.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침**례의 물로 들어가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이 성약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제자임을 입증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있었던 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멕시코 북부에는 과일을 재배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 오자 과수원에 꽃이 만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곧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빛을 갖고, 장비를 교체하거나 오래된 나무를 뽑고 새로 묘목을 심고, 학교 수업료를 내야겠다는 등 가족에게 필요한 일을 해결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낙천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월 하순경 어느 월요일 오후에 난데없이 겨울 폭풍이 몰아치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다음 날 새벽 세 시까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곧 구름이 걷혔지만, 기온은 급강하했습니다. 과일을 일부라도 살려 보려고 그날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온갖 노력을 쏟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작물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수확해서 팔 수 있는 과일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세운 그 모든 멋진 계획과 부푼 기대와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끔찍한 절망감만이 남은 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제게 이메일을 보내준 분이 있습니다. 당시 치와와 콜로니아후아레스 성전 회장단 제1보좌였던 존 해치 회장님의 부인인 산드라 해치 자매님인데, 그녀의 편지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남편은 아침 의식을 취소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6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차장과 도로에 눈이 이미 치워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 봉사자들 가운데 일부 자기 소유의 과수원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 모두를 의식에 참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랬기에 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로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몸을 이끌고 황폐해진 과수원을 뒤로 하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 그들은 준비 모임 동안 깨어 있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핑계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성전에 왔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38명이나 되었습니다(의식실이 딱



찾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이 선한 사람들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집을 사랑하고 그런 힘든 날 아침이 왔을 때 찾아가기에 좋은 장소로 여긴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확할 과일을 잃은 사람 중 대부분은 고추나 콩 같은 대체 작물을 심을 만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작물을 잘 재배하면 조금이나마 소득이 생겨 내년에 다시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한 선량한 형제는 수입 한 푼 없이 한 해를 보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 형제를 보고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땅을 마련해 주었고, 고추를 심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장비를 동원해 땅도 갈아 주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한 이 사람들을 압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알기에, 저는 그들이 한 일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르는 사람은 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두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한 해 수확의 대부분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밤새도록 일한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왔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자신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돈이나 경작지 같이 당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몹시도 귀하게 여겨지는 자원을 들여가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성약을 맺는 것은 평생토록 걸어야 할 길의 시작점이며, 그 길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며, 그분이 계셨다면 하셨을 봉사를 이웃에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제자됨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며,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정의입니다.

구주께서는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곧이어 그분께서 주신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거의 매일 장애물과 역경이 닥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곧 지상 생활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서 3장 25절에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라고 나오입니다.

시험의 성격과 강도는 각기 다르지만, 어느 누구도 시험을 겪지 않고 필멸의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작물에 입은 피해 또는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질병,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 혹은 가난, 친구를 잃는 일 정도를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성과도 쓸데없는 교만을 부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하늘의 칭찬보다도 사람의 명예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명예에는 세상적인 인기나 대중의 평판, 신체적 기량이나 예술적 재능, 운동 능력, 성공과 부 등이 포함됩니다. 방금 말한 이 시험에 관해서 우리 중 일부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테브레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부가 만약 저주라면 “[하나님]이 내게 그 별을 내리시어 절대 돌이킬 수 없게 하시기를!”<sup>1</sup>

하지만 이런 유형의 시험이 앞서 말한 시험보다 더욱 강력하고 위험하며 극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시험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건디어 내느냐에 따라 제자의 자질을 키워 나가고 입증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폭풍을 건디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 시험을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영광 중에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손자 손녀 2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영원한 진리를 어찌나 잘 이해하는지, 저는 늘 놀라워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손자 손녀들에게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정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훌륭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덟 살 소년인 벤자민의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에 참석하고 성전에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벤자민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성신의 동반을 얻게 되며,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 이 성신이 늘 함께하는 화평과 기쁨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며,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극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콜로니아후아레스 성전에서,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들판에서 신앙으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헌신을 다시 확인한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실천에서 저는 제자됨의 진정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Joseph Stein, Jerry Bock, Sheldon Harnick, *Fiddler on the Roof*(1964), 61 참조.



돈 알 클라크 장로  
칠십인

## 성찬의 축복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용서받았음을 느끼고,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서 훌륭한 가족과 친구들, 교사,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어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활동적이었고, 아론 신권을 통해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청소년 때, 하루는 제 교사이셨던 제이콥 형제님께서 성찬식 동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카드에 적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카드 하나를 가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차지한 것은 전날 저녁에 이긴 농구 경기였습니다. 그다음은 경기 후에 했던 데이트를 적었고, 그렇게 목록을 채워 갔습니다. 저 아래로 밀려나 힘없는 글씨체로 적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그 카드를 썼습니다.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제게 성찬과 성찬식이 새롭게, 더욱 폭넓고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변화했고, 어서 일요일이 되어 성찬을 취하기를 가슴 설레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때면 제 카드를 보며 목록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

제 목록에서 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은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신약전서에는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만찬을 함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sup>1</sup>

예수께서는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도 성찬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sup>2</sup> 저는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저는 주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지정해 주신 성찬식에 대해 강조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sup>3</sup>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취하도록 함당하게 준비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함당하게 성찬을 취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축복해 줄 다섯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첫 번째 원리는 성찬식 때 속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 전달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로 성임되기 전까지 성찬은 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 집사 신권을 받은 일요일 오후에 나는 처음으로 성찬 전달을 하게 됐다.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집사 한 명은 내게 ‘슈미트 형제님을 잘 살펴. 깨워 드려야 할 거야!’ 하고 귀띔해 주었다. 드디어 내가 성찬 전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왔다. 앞의 여섯 줄을 그럭저럭 잘 해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별다른 생각이나 문제 없이 빵을 취했다. 그리고는 슈미트 형제님이 늘 앉으시는 일곱 번째 줄로 넘어갔다. 거기서 나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형제님이 줄지 않고 깨어 계셨기 때문이다. 슈미트 형제님은 앞줄에 앉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깊은 생각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빵을 취하시는 것 같았다.

몇 분 뒤에 물을 전달하면서 나는 다시 일곱 번째 줄 앞에 섰다. 이번에는 친구 말이 맞았다. 슈미트 형제님은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그 독일인다운 커다란 눈을 감고 계셨다. 곤히 잠들어 계신 게 분명했다. 어떻게 한담? 나는 잠시 오랜 세월의 고역과 힘든 시련으로 주름이 깊이 패인 형제님의 이마를 응시했다. 청소년 때 교회에 들어오신 슈미트 형제님은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서 갓은 펴박을 겪어 오셨다. 간중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마침내 나는 형제님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살짝 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자 형제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다. 형제님의 두 볼에 눈물이 흐르고 눈에는 사랑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조용히 손을 올려 물을 취하셨다. 비록 그때 나는 열두 살 아이였지만, 투박하게 생긴 그 형제님이 성찬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형제님은 성찬에 대해 내가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느껴 보고 싶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sup>4</sup>

슈미트 형제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 2.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두 번째 원리는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맺는지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 서로의 짐을 [지고,]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sup>5</sup>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지고]”<sup>6</sup>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sup>7</sup>

성찬 기도문은 이러한 성약을 다시 기억하게 해 줍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이 성약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 기도문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덟 살에

받았던 여든 살에 받았든 침례 받을 때 맺었던 성약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3. 성찬식 동안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다

셋째로, 성찬식 동안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서 성찬식에 참석한다면, 성찬식을 마치고 일어날 때에는 깨끗하고 정결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용서의 절차를 새롭게 합니다. 매주 일요일 집행되는 성찬은 용서의 과정을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 이생을 다하고 떠날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요일마다 자신을 깨끗이 씻어냅니다.”<sup>8</sup>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베냐민 왕의 백성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9</sup>

## 4.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원리는 성찬식 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아내 메리 앤과 저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함께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 참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모임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고, 둘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으로, 셋째,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려는 소망을 품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며,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의가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서는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을 느끼게 되리라.”<sup>10</sup>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5.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성찬을 제정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sup>11</sup> 니파이 백성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찬 기도문에도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면 항상 주님의 영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sup>12</sup>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찬을 취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에 합당하고 참된 소망을 지닌 영혼에게는 이와 같은 위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sup>13</sup>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용서받았음을 느끼고,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성찬이 중심이 된다면 항상 훌륭한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22:19~20; 강조체 추가.
2. 제3니파이 18 참조.
3.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Oct. 1929, 11.
4. *Book of Mormon Student Manual*(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1979), 417.
5. 모사이야서 18:8~9.
6. 교리와 성약 20:37.
7.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8. Boyd K. Packer, *Mine Errand from the Lord*(2008), 196.
9. 모사이야서 4:3; 강조체 추가.
10. 교리와 성약 9:8; 강조체 추가.
11. 제3니파이 20:8.
12.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13. Melvin J. Ballard, in Bryant S. Hinckley, *Sermons and Missionary Services of Melvin Joseph Ballard*(1949), 14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주께로 돌이켰고

**복음이 참됨을 아는 것은 간증의 본질입니다. 복음에 꾸준히 충실하는 것은 개종의 본질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간증을 얻는 것과, 그분과 그 복음에 개종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증과 개종이라는 주제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같이 고려할 때 우리는 귀중한 시각과 더 큰 영적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신이 우리 각자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도록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성역에서 간증과 개종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저 없이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5~17).

베드로의 대답과 구주의 가르침에 분명히 드러나듯이, 간증은 계시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이며, 그분의 모든 자녀는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모든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시[도해 보고]”(앨마서 31:5) “시험[해]” 보며, “성령의 이끄심을”(모사이야서 3:19) 따르고, 하나님께로 깨어나는 데(앨마서 5:7 참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작은 신앙”(앨마서 32:27)을 행사함으로써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증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간증은 목적과 확신, 기쁨의 원천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간증을 추구하고 얻는 것에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모로나이서 10:4 참조) 묻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마태복음 7:7; 제3니파이 14:7 참조) 간증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과, 이 후기에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구주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의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1~32)

흥미롭게도 이 위대한 사도는 구주와 함께 이야기하고 걸었으며, 여러 기적을 목격했고, 구주의 신성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개종을 불려오고 성결하게 하는 성신의 권능과 충실히 봉사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예수님께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 본연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개종하면 개인은 믿음과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며(사도행전 3:19; 제3니파이 9:20 참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의식적인 결심이 그에 뒤따릅니다.

개종은 간증의 기본 근간을 확장하고 더 깊고 넓게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회개와 순종, 부지런함과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를 통해 얻는 결과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겪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남으로써 개종할 수 있습니다.(앨마서 5:12~14 참조) 구원과 승영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교리와 성약 20:25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니파이후서 31:20)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면(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고린도후서 5:17 참조) 개종은 간증이라는 은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 자신과 사랑과 충실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 물몬경에 나오는 개종의 예

물몬경은 개종과 관련하여 영감을 주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아멜레카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움나아서 1:26)

성신의 권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에게로 와서 우리의 온 영혼을 예물로 드리는 것에는 단지 아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종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이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4:2 참조)

베냐민 왕의 백성은 그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며 외쳤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모사이아서 5:2) 그들은 베냐민 왕이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자,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고 발전하여 더 나아지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힐라맨서에 나오는 개종한 레이맨인은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고 있[고] ……

또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힐라맨서 15:5~6)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개종과 관련된 주요 성품은 마음에 큰 변화를 겪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는 의향을 지니며, 의무의 길에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충실한 영혼들은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 개종하는 것

대개 개종은 지속하는 과정이며 강력하거나 극적인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점진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동기과 생각, 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개종하는 데에는 꾸준함과 인내가 모두 필요합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주님께로 개종하는 것에서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1) 경전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선지자의 가르침과 예언을 믿는 것,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 (3) 회개, (4)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 (5) “신앙 ……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히라만서 15:7~8 참조) 이것이 개종으로 이끄는 패턴입니다.

### 간증과 개종

간증은 지속적인 개종의 시작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간증은 출발점이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강한 간증은 개종이 이루어지는 기초입니다.

어둠이라는 폭풍우와 악이 만연한, 우리가 사는 이 후기에 간증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은 중요하며 필수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과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증이 있는 일부 교회 회원들은 영적으로 흔들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닌 영적 지식과 결심만으로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증과 개종 사이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행한 선교 사업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 참으로 …… 주께서 사심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슬러]서 ……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들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니”(앨마서 23:6~8)

이 구절들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는 (1) 간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과 (2)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인,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간증과 주님께 개종한 것이 강력하게 합쳐져 굳건함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겼고, 영적인 보호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며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슬러]서 ……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기심과 교만, 불순종과 같이 마음속에 뿌리내린 “반역의 무기”를 치우려면 단순히 믿고 아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반역의 무기를 버리려면 확신과 겸손, 회개, 유순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반역의 무기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레이맨인은 그들을 가르친 선교사들이나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지도자의 성품에 개종하거나 문화적 유산이나 조상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주인 주님과 그분의 신성과 교리에 개종하였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증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얻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지속적인 개종은 우리가 받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 한결같이 헌신하는 것인데, 기꺼운 마음과 의로운 이유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됨을 아는 것은 간증의 본질입니다. 복음에 꾸준히 충실할 것은 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간증, 개종, 열 처녀의 비유

이제 간증과 개종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열 처녀의 비유의 다양한 해석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 중 다섯은 슬기로웠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하였는데, 그들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 처녀들이 사용한 등은 간증의 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은 간증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을 개종의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개종의] 기름을 담아 [간증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간증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간증의] 등불이 [약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즉, 개종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마태복음 25:4~9)

이 이야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기적이어서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일까요, 아니면 개종이라는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일까요? 계명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얻은 지식을 그러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충실한 후기 성도가 복음을 통해 받는 평안이 역경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런 질문 각각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올바르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쓸 것을 사[어]” 합니다. 이 소감에 찬 여성들은 상거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증이라는 등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개종이라는 기름을 충분히 얻기 위한 우리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름은 한 번에 한 방울씩, 즉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얻게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산을 떨며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교리와 성약 33:17)

### 간증

저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주님께로 개종할 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반역의 무기를 열성적으로 치울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등과 충분한 양의 개종이라는 기름으로부터 밝은 빛을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더욱 온전히 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이 진리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지난 이틀 동안에 전해진 메시지를 마음에 심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감에 찬 이 연차 대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충족되고 고양되었으며, 여러분 또한 이 대회의 특별한 영을 느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복음 진리가 아름답게 가르쳐지고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전해진 메시지를 마음에 심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대회의 모든 내용은 다음 달 *Ensign*[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말씀들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차 대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륙과 대양을 건너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들에게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하신 것으로 수없이 많은 분이 축복을 받았습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제85번째 생일을 기념했는데, 주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는 한 해 한 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여러 경험을 돌아볼 때, 제게 수많은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했듯이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과 여러분 모두를 섬기려 노력하는 제 발걸음을 그분의 손길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느껴 왔습니다.

교회 회장은 많은 노력이 요하는 직분입니다. 제 곁에서 봉사하시며 제일회장단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언제나 기꺼이,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도와주시는 충실한 보좌 두 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 고결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은 영감 어린 도움을 주시는, 칠십인 정원회에 속한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와드와 지부,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요청 받은 부름을 기꺼이 성취하려 할 때, 여러분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우며 돌보도록 합시다. 비판적이 되거나 판단하지 말고 관대해져서 애정 어린 친절을 모범으로 보여 주신 구주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꺼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구하고 그런 후 나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머리를 들고 기뻐합시다. 비록 우리는 갈수록 더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위험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은 배우고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스러운 교훈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우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1</sup> 이를 아는 것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그분께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그분께 큰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대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며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인 우리 또한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6개월간 모임을 휴회합니다.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6:33.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성약을 맺고,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책무에 대해 숙고하는 몇 달 동안 제 머리와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지만, 이 부름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그분에게서 왔음을 알고 있으며, 현재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전에서 “[주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그분]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sup>1</sup>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을 받고 얻은 가장 소중한 은사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딸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경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살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후일의 집합 동안에 소망의 시기를”<sup>2</sup> 예견하게 하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

…… 그들이 ……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sup>3</sup>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바로 그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법 혹은 교리를 기록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언급한 속죄를 통해 우리 각자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몇 년 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는 자녀를 잃고서도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나아갔던 개척자들의 뿌리 깊은 신앙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회 활동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 즉 골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애잔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빵 상자에 묻고서는, ‘약속의 땅이 저기 어딘가에 있어. 우리는 꼭 그곳에 갈 거야.’라고 말하며 그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까닭이었습니다.

성약과 교리와 신앙과 계시와 영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홀런드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정신을 간직할 수 있다면 아마 다른 많은 것들이 자연히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필요성이 낮은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도태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손수레에는 제한된 양만 실을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져갈 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손수레에 무엇을 실을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본질입니다. 우리 골수 안에 자리 잡은 바로 그것입니다.”<sup>4</sup>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새로운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사업이 계속 전진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상호부조회 손수레에 무엇을 반드시 실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교리를 이해할 때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소망과 신앙이 자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가족 및 가정 강화라는 중대한 필요 사항을 생각해 보았고,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기꺼이 성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해 주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약을 지킬 때 가정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저희가 승영을 향한 이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돕도록 노력할 때, 다른 보조 조직 및 신권 지도자들과 단합하여 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각자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안에 속죄, 성약, 단합의 교리를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믿는 깊고 변치 않는 신앙을 새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정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속죄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여 신회원과 오랫동안 회원이었던 분들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 “인생의 부당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sup>5</sup>**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증거하며,

저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갖은 난관과 역경에 맞서 얻은 간증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의 중심인 구주의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시련은 부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사람은 “인생의 부당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에서 고통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까? 간단히 말해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멸을 경험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올 기회를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sup>6</sup>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심은 흔히 안락과 평온보다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sup>7</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한 충실한 개척자 자매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리 로이스 위커는 17세에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존 티 모리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일 년이 갓 지난 1853년에 성도들과 함께 평원을 횡단해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처럼 궁핍에 시달렸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은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해, 19세가 된 메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태어났다. ……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두세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녁에 …… 나는 ‘그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해 겨울, 그 아이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 2월 2일에 아이는 죽었다. …… 그렇게 나는 내 혈육을



떠나보내며 고배를 맞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리의 남편도 병에 걸려 아이를 잃은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직 십대이던 나는 일가친척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편과 아이를 잃었고 내 앞에는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었다. …… 나 역시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 불현듯 [남편]이 곁에 없음을 깨닫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비통하게 울던 나의 마음속에 마치 시현처럼 내가 올라야 할 인생의 험난한 언덕이 보였고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는 그 현실을 피부로 느꼈다. 나는 몹시 침울해졌다. 대적은 우리를 공격해야 할 때를 잘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할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 나는 당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힘에 대해 싸울 수 있었다.”<sup>8</sup>

메리는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속죄를 통해 이생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모든 것, 깊은 슬픔까지도 보상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속죄에는 육에 속한 남자나 육에 속한 여자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sup>9</sup>

우리가 언제 복음 교리나 원리를 습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리나 원리를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공과에는 어린이들에게 속죄를 가르칠 귀중한 자료가 되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자녀나 손자 손녀 또는 이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자 하는, 종교가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한 [여인]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마침 지나가던 한 친절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구덩이 안으로 사다리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으며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구덩이 속의 [여인]과 같다. 죄를 짓는 것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것과

같으며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 곳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친절할 나그네가 [그 여인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빠져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동생자를 보내셨다.”<sup>10</sup> 하지만 구주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은 사다리를 내려 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구덩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sup>11</sup> “구덩이 속에 빠진 [여인이] 사다리를 올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고 속죄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원리와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sup>12</sup>

최근 저는 칠레에서 현대의 개척자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을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신 그 자매님은 혼자서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속죄 권능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진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 원리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며, 그것은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토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속죄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신다는 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sup>13</sup>

칠레에 사시는 이 자매님과 제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은 계속해서 그 길에 머무르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세계 열정적이고도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 대부분을 그 길에서 벗어나 생활해왔지만, 길을 벗어난 “그곳에” 현재 자신의 삶에서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죄 권능이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험악하고 좁은 길에 계속해서 머물 힘을 줍니다.

### 세 번째 원리. 속죄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우리 모두 옥스 장로님께서 하신 이 감동적인 말씀을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sup>14</sup>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이자 완벽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심적 고통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위해 고통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에 우리는 각자 마땅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여성분을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월을 겪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20달러짜리 지폐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럽고 헤지고 흠집이 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20달러 지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죠. 그렇게 안

보이고 닳고 해졌더라도 제게는 여전히 2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sup>15</sup>

이 여성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녀 한 사람을 위해 속죄하게 하실 만큼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는 이 여성이 아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방식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처럼 속죄를 마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소망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우리 각자가 마음 깊이 속죄의 교리를 새긴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참된 제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sup>16</sup>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sup>17</sup>이라고 선포한 이 교리를 깨닫게 될 때, 베냐민 왕의 백성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속죄가 자신의 삶에 적용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sup>18</sup> “기꺼이 ……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 그의 뜻을 행하며, ……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sup>19</sup> 성약을 맺고,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의 부당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sup>20</sup>

2. 속죄에는 육에 속한 남자나 육에 속한 여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sup>21</sup>
3. 속죄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sup>22</sup>

“그 날 후에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sup>23</sup> 속죄에 관한 이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8.
2. 구약전서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2001), 198쪽.
3. 예레미야 31:33~34; 강조체 추가.
4. 제프리 알 홀런드, “유태회의”,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8년 2월 9일, 28쪽.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쪽.
6. 욥기 38:7.
7.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2쪽; Ensign, Nov. 2000, 33.
8. Autobiography of Mary Lois Walker Morris(린다 크자버튼 소장서).
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2~19쪽; Ensign, Apr. 2012, 40-47 참조.
10. 초등학교 7 신약전서(1997), 104쪽.
11.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1954~1956), 1:123.
12. 초등학교 7, 104쪽.
1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4쪽; Ensign, Apr. 2012, 42.
14. 델린 에이치 옥스, “사랑과 율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쪽.
1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9쪽.
16. 엘마서 5:12~14 참조.
17. 모사이야서 3:3.
18. 모사이야서 4:1~3 참조.
19. 모사이야서 5:2~5 참조.
20.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52쪽.
2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2~19쪽; Ensign, Apr. 2012, 40-47 참조.
22. 델린 에이치 옥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쪽 참조.
23. 예레미야 31:33; 강조체 추가.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완전히 깨어나도록

우리는 위로하고, 강화하며, 가능하게 하고, 치유하는 속죄 권능에 의지하여, 깨어서 의무를 다하며 신앙을 갖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후, 저는 앞서 봉사했던 여성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제1보좌로 봉사했던 지나 디 영 자매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전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sup>1</sup>라고 말씀했고 저는 깨어와 의무라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경전을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전서에서 바울은 그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sup>2</sup>

물론정에서 엘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이 지는 성스러운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sup>3</sup>

영 자매님의 말씀과 이 경전 구절을 읽고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서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성약을 맺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sup>4</sup>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보이며,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약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딸이 되었기에 우리가

듣고, 읽고, 말하고, 입는 것도 다릅니다.

확인을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 즉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보호할 수 있는 신회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영향력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성약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경고를 해 주십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어느누구도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성신의 속삭임으로 먼저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sup>5</sup>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은사를 받고 영을 항상 동반하려면, 우리는 합당해야 하며 항상 깨어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온유합니까? 아니면 조용한 영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잡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점차 굳어가고 있습니까?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며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필멸의 여정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는가?]”<sup>6</sup>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많은 초기 성도들은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sup>7</sup>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을 얻고자 성전 축복을 받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부의 초기 성도들은 서부로 이동하기 전에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기 위해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끊이지 않[고]”<sup>8</sup> 성전으로 갔습니다.

나부의 상호부조회 자매였던 사라 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막연한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sup>9</sup>

그들은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마음이 변화하여 그분의 속죄 권능에 의지했으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주께서 깃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주님은 자매들이 느낀 두려움과 의심, 고통, 외로움을 느끼셨으며 그들이 겪은 슬픔과 박해, 배고픔, 피로, 상실감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sup>10</sup>

자매들은 유타에 도착했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정이 길고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매들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앙과 자신이 맺은 성약을 굳게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나부를 떠나기 전, 한 무리의 성도들은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의 집회실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우리 뒤를 따르라.”<sup>11</sup>

최근에 저는 우리 워드 청남 청년들과 함께 개척자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내가 해야 할 희생은 무엇인가? 초기 개척자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손수레를 끌고 13킬로미터를 걸어서 “여성의 오르막길”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언덕 밑에서 형제, 자매가 나뉘었고 형제들이 먼저 언덕 위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신권 형제들이 길 양옆에 늘어선 모자를 벗어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쉬웠으나 곧 깊은 모래에 빠지고 언덕이 점차 가팔라졌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안간힘을 다해 손수레를 끄는데 누군가 손수레를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져서 보니, 이웃에 사는 청년인 렉시였습니다. 렉시는 꼭대기까지 자기 손수레를 끌고 갔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서 달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꼭대기에 도달하자, 저는 제 뒤에 따라오는 자매들을 돕기







위해 달려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빴고 심장이 극심하게 고동쳐서 심장마비라는 말을 몇 번이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른 청년들이 손수레를 꼭대기에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정상에 도달한 후 우리는 몇 분간 일지애다 우리의 느낌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체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아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었다. 다시 손수레를 끌어야 할 일은 없겠지만, 나의 자매들이 절대 영적으로 처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성스러운 경험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의 의무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정 내내 제가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그 시대에 홀로 손수레를 끌어야 했던 자매들과 오늘날 혼자 계속 손수레를 끌어야 하는 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손수레 부대에 합류한 여성의 약 20퍼센트는 적어도 일부 여정에서 혼자 여행했습니다. 이들은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과부였으며, 다수는 홀어머니였습니다.<sup>12</sup>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성약을 맺은 딸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길에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을 도우려 달려갔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다가 재빨리 필요 사항을 파악하며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sup>13</sup>

그 길 양옆에는 충실하고 순종적이며 성약을 지키는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들의 신권 권능으로 우리를 고양하고 강화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면 그러한 권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손수레를 끌어야 했던 남성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많은 남성이 그 여정 중에 죽었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고향 땅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솔트레이크밸리에서 가족이 도착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약을 지키지 않아 자의로 함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을 가르치고 추구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sup>14</sup>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도록 준비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역경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필멸의 삶은 시험의 시간이며 틀림없이 닦쳐올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의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선택할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몬슨 회장님의 다음 가르침을 알기에 하나님의 딸로서 신앙의 길을 계속 정진해 나갑니다.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sup>15</sup>

영생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강화하며, 가능하게 하고, 치유하는 속죄 권능에 의지하며, 깨어서 의무를 다하며 신앙을 갖고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성약을 지키는 딸이며, 성약을 통해 권능을 받았으므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울 수 있게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가족과 가정을 더 잘 강화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구원 사업이며,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속죄 권능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의무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Zina D. Young, in *Woman's Exponent*, Oct. 15, 1877, 74.
2. 로마서 13:11~12.
3. 모사이야서 18:8~11.
4. 로버트 디 헤일즈, "정축함: 주님에 대한 경건", *리아호나*, 2008년 8월호, 21쪽; *Ensign*, Aug. 2008, 36.
5. 보이드 케이 패커,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 *리아호나*, 2012년 10월호, 35쪽; *New Era*, Apr. 2012, 3.
6. 엘마서 5:26.
7. 엘마서 5:14.
8.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29쪽.
9. 사라 디아몬 피 리치,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0쪽.
10. 마태복음 11:28.
1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0쪽.
12. Research conducted by Jolene S. Allphin from stories and company rosters; *Tell My Story, Too*, 8th ed.(2012) 참조.
13. 교리와 성약 84:88.
14. 이사야 40:31.
15.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린다 에스 리브스  
본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의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자매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힘과 간증에 놀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교회의 일 세대 또는 이 세대 회원입니다. 여러 부름에 봉사하고,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며,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많은 자매님들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현대 개척자입니다!

최근 저는 남편 멜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몰리 렌달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관광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70대인 그 사랑스러운 여성이 자녀가 없고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남독녀이며, 부모님은 여러 해 전에 작고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다른 대륙에 사는 두 명의 사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는 제게 간증하는 영에 압도되었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몰리는 나의 딸이며, 나는 그녀의 아버지란다! 몰리는 내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딸이며,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구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나사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마리아]와 [그들의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sup>1</sup>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곧바로 가지 않으셨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sup>2</sup>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 맞이하[면서]”<sup>3</sup>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sup>4</sup>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비통해하면서 집으로 달려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sup>5</sup> 슬픔에 짓눌린 마리아는 예수께 달려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sup>6</sup>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sup>7</sup>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은 경전에서 가장 동정심 많고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sup>8</sup>

사도였던 제임스 이 탈매지는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두 자매가 비탄에 잠긴 것[을] …… 보시고 예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sup>9</sup> 이것은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걱정이나, 죄, 역경, 삶의 고통으로 짓눌릴 때마다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동정심과 연민과 사랑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들은 그저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니까 지금 네가 고통을 겪는 것은 괜찮아. 네 병이 나을 거야, 혹은 네 남편이 직장을 구할 거야, 혹은 방황하는 네 자녀가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끼십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의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sup>10</sup>

구주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실까, 혹은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구주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sup>11</sup>

앞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 생각과 네 마음의 의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sup>12</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올리버에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모두 세세히 알고 계시며 그 기도를 올린 그 날 밤, 그 시각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남편은 희귀병에 걸려 몹시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의 병은 더욱 심해졌고, 저는 그가 죽어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 두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길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 마음은 외로움과 절망과 심치어는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고, 며칠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마음속의 감정을 쏟아 놓았고, 그분에게서 멀어졌던 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모두 말씀드린 후, 이것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자, 가장 감미롭고 평화로우며 사랑 넘치는 감정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이룰처럼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완쾌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남편과 저는 17세 된 딸의 침상 옆에 무릎 꿇고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는 응답이었지만, 구주께서 약속하신 사랑과 화평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 아이를 분향으로 부르고





계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주님께 벗어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경에서 가장 감미로운 부자간의 이야기 중 하나는 엘마 이세가 아들 힐라맨에게 전한 간증입니다. 엘마는 자신이 저지른 많은 죄악을 심판받으러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상상을 했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삼 일 밤낮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를 느낀 후, 그는 회개하고 구주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힐라맨에게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는 “훌륭하고 감미로운” 기쁨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각을 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는 대신, 엘마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시현을 보았고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sup>13</sup>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한 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생각할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분들의 사랑 가득한 팔에 다시금 안기기 위해 “거기 있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그분의 소중한 딸 몰리 렌달을 잊지 않으셨다고 증거해 주신 것같이, 저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죄나 약점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험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바로 그 순간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그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그분께 벗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감정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고난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매일 경전을 탐구하십시오. 거기서도 큰 위안과 도움을 찾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sup>14</sup>

“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게 한 것을 너희가 아니니,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라.”<sup>15</sup>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아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 아신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직접 느끼고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증거합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11:5.
2. 요한복음 11:4.
3. 요한복음 11:20.
4. 요한복음 11:17.
5. 요한복음 11:28 참조.
6. 요한복음 11:32. 참조.
7. 요한복음 11:33~34.
8. 요한복음 11:35.
9.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판(1916), 494쪽.
10. 엘마서 7:11~12.
11. 교리와 성약 6:22.
12. 교리와 성약 6:16.
13. 엘마서 36:14~22 참조; 강조체 추가.
14. 니파이전서 21:15~16.
15. 제3니파이 18:25; 강조체 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보살피는 자

여러분은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와 한도를 알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성들은 자매들의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친인 루시 맥 스미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sup>1</sup>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상태를 누리기 위한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이 훌륭한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그 고귀한 목표를 이루고자 서로 도우며 해 오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해 드리겠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의 단결된 봉사에 더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창기 자매들처럼 사람들을 구제하러 가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1856년, 선지자 브리검 영은 성도들에게 눈 덮인 산에서 발이 묶인 손수레 개척자들을 도우러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연차 대회에서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신앙과 종교에 속해

있고 또 그 사실을 공언한다 해도 여러분 중 어느 영혼도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소위 현세적인 일[에] ……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sup>2</sup>

이에 유타에 있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응했습니다. 공핍한 가운데서도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 용감한 자매들 중 한 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힘들여 일한 후에 그렇게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 본 적은 없었으며,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된 듯함을 느껴 본 적도 없다.”<sup>3</sup>

구조 작업이 끝나고 눈이 녹았을 때, 그 자매는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가?”<sup>4</sup>

우리 시대에 용감한 자매들이 지상 곳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앞으로 할 봉사에 대해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향한 여정에서 각각 고유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인생 역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자매이며, 여러분 개개인을 아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훌륭히 행한 일은 바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여러분이 한 자매에게 배운 봉사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로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방문 교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 엘리자베스는 저희와 시간대가 다른 주에 삽니다. 엘리자베스는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그 주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임신 6개월이었고, 의사가 딸이라고 말해 준 셋째 아이의 출산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조슈아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출혈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하고 자신도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수화기를 들려 할 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문을 열고, 상호부조회의 방문 교사 동반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 아침에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는 단순히 엘리자베스를 보러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동반자는 엘리자베스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도착하고 몇 분 후에 조슈아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와 태아를 구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예정일보다 15주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의 몸무게는 765그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있었고, 엘리자베스도 무사했습니다.

그날 루시 맥 스미스가 한 말의 일부분이





실현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충실한 한 회원이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서 하나님 왕국의 자매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와 그러한 영감 어린 봉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 베풀 수만 명의 다른 자매들은 도움을 받은 이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게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동정심을 베풀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께서 하신 감사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5</sup>

그러나 때때로 도우려 온 한 상호부조회 자매의 기적은 자매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증대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몇 시간 뒤에 그들의 감독님이 병원에 있는 엘리자베스와 조슈아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귀여운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엘리자베스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에 남아 있는 딸들을 돌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이 봉사 기회를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와드를 대변하는 감독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병원으로 가서 거기 있는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두분의 동의와 상의 없이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두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게 될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 딸을 위해 해 준 일들 덕분에 제 딸은 조그마한 딸을 처음으로 안아 보는 소중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전 세계 자매들이 구주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전하는 “신앙을 간직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조슈아와 엘리자베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과거의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일에 관해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앙을 간직할 때, 여러분은 그다지 편하지 않은 때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우라는 주님의 권고를 종종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별로 유쾌하지 않으며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봉사할 기회가 올 때, 자신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 도움을 쉽게 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를 존경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매를 맞고 길에 쓰러진 그 여행자가 모르는 사람이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길로 비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후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도움이란 것이 한 사람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생길 어떤 일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최근 경험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아마도 종종 여러분은 보살핌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질병 또는 장애로 고통받는 부모였을 수도 있고, 조부모, 자매,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은 인간적인 욕망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오는 여행자처럼,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이 혼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여행자를 여관 주인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고자 단체로 일하는 것은 주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도록 항상 권고합니다. 그러한 원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봉사하여 사랑이 커지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보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보살필 때마다 여러분은 봉사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살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우리는 필멸의 인간이기에, 그 커지는 사랑이 좌절감과 피로감으로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살피는 자의 단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성찬식에서 방문 교육 관리자 보조로



지지받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런 직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칭찬을 주신 것인지 그 여성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채던 아이 때문에 그 자매님은 예배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제자들이 방문 교육을 관리하는 것을 돕는 그 자매님께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감사해하는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단체, 곧 사랑이 깃든 단합된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조직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든지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감사해한다는 한 가지 증거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들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키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봉사해 온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을 보살필 기회를 잃는 일은 일시적인 헤어짐보다 더 큰 상실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오랫동안 알아 왔던 한 여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그 주에, 생명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남편을 보살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행복한 웃음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베푸는 사랑 어린 봉사는 매우 보람 있는 일이지만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살핌을 베푼 그 사람이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의 대가이신 주님은, 물몬경에 기록된 베냐민 왕의 다음 말씀을 통해, 보살피느라 지쳐 있는 이들에게 영감 어린 권고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 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재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sup>6</sup>

그런 다음 주님은 사랑 어린 봉사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또는 보살피는 자가]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sup>7</sup>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도우려는 소망과 분별력 있게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보며 계속 지혜롭게 봉사할 힘을 갖추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상황에 있을 때에는 이 권고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치지 직전 상태에서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 사람을 집에서 보살펴야 할지, 아니면 시설에 맡겨야 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힘든 선택을 할 때,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 맥 스미스가 자매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현명하게 이야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호된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각 자녀에 대해 세우신 목적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끝이 없어 보이는 시련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지자 조셉에게 구원의 계획의 정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sup>8</sup>

어려운 시련을 겪는 누군가를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견디도록’ 가장 잘 돕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영생의 밝은 소망을 간직하며, 자애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왕국의 자매님들이 구주와 그분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상호부조회나 초동회, 또는 청년 모임이 끝난 후 그 공과실로 들어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의 사진이나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모임에서처럼 누군가가 그 시간에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과 가치에 대한 간증을 느꼈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사진이나 “가족은 영원해”라는 말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밝은 모습에서 소망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인생살이로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여전히 타인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고, 잘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현명한 방문 교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상호부조회 회장님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보살피면서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는 보살피는 일로 지친 자에게 그만 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부드러운 권유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매들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참아 주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줌으로써 짐을 가볍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시기에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발휘하는 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초대할 때 그분이 항상 이 단체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자매들을 이 단체로 초대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이 모임에 와서 앉을 자리를 찾을 때, 그들은 “이리 와서 함께 앉아요.”라는 상냥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루시 맥 스미스가 예견한 그 미래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한 순간에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서로 보살피고 영생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날이 쌓이고 해가 쌓여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날들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무한한 속죄를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위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보살핌을 받는 이들에게 성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와 한도를 알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영은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루시 맥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25쪽.
2. 브리검 영,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6쪽.
3. 루시 미저브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7쪽.
4. 루시 미저브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7쪽.
5. 마태복음 25:40.
6. 모사이야서 4:26.
7. 모사이야서 4:27.
8. 교리와 성약 121:8.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39) 딸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은 한 가족의 신앙
셰인 엠 보웬	(15) 어린 아이들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음을 한 가족에게 가르친 셰인 엠 보웬과 그의 선교사 동반자
린다 케이 버튼	(78) 신혼이었을 때 두 번째로 성전을 방문한 린다 케이 버튼을 도와준 한 자매 (111) 평원을 횡단하던 여정 중에 남편과 자녀를 잃은 개척자, 메리 로이스 워커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12) 성전 일반 공개에서 성신을 느낀 벤 크리스티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47) 가족을 돕고 교육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인도의 한 청년
쿠엔틴 엘 쿡	(6) 일요일에 경기 출전을 거부한 영국 올림픽 선수 에릭 리들
앤 엠 딘	(10) 교회 회원임을 알리는 티셔츠를 자신있게 입은 한 청년
래리 에코 호크	(32) 래리 에코 호크의 물몬경을 발견한 교관
헨리 비 아이어링	(60) 아들마다 그 아이가 받은 특별한 은사를 묘사하기 위해 그림이 담긴 판을 새겨준 헨리 비 아이어링 (72) 성전 일반 공개에서 예수님을 찾은 헨리 비 아이어링의 손녀딸 (72) 리스 대학에서 일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을 떠난 헨리 비 아이어링 (72) 백사장장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헨리 비 아이어링의 며느리
로버트 시 게이	(34) 자신의 영혼을 10센트에 팔겠냐고 물어본 로버트 시 게이의 아버지 (34) 길가에서 울고 있던 소년을 도우라는 영감을 따른 로버트 시 게이
다니엘 엘 존슨	(101) 폭풍으로 과일 수확을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간 후기 성도들
토마스 에스 몬슨	(68) 네 명의 형제들이 신권 승진을 한 것을 보고 놀란 앤 엘든 태너 (68) 지부 회장 부름을 주라는 영감을 받은 토마스 에스 몬슨 (68) 통가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한 존 에이치 그로버그 (86) 선교 사업에 대해 제언하라는 영감을 따른 토마스 에스 몬슨 (86) 병원에 있는 한 친구를 방문하라는 영감을 따른 토마스 에스 몬슨 (86) 한 청년에게 선교 사업을 권유한 토마스 에스 몬슨 (86) 성전 문화 행사에서 응답된 청소년들의 기도
러셀 엠 넬슨	(18)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세워라”라는 영감에 따른 한 남자
러셀 티 오스구토프	(96) 자폐증이 있는 두 청년에게 자신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주일학교에 참석한 청소년들
보이드 케이 패커	(75) 서부 사모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난 보이드 케이 패커의 배
린다 에스 리브즈	(118) 남편이 병에 걸린 후 하나님께 향한 린다 에스 리브즈
리처드 지 스코트	(93) 각자 2,000 개의 이름 색인 작업을 하고 성전 사업을 위해 조상들의 이름을 제출한 러시아 청소년들
캐롤 엠 스티븐스	(115) 개척자 여행을 재현하면서 서로를 도왔던 청년들
게리 이 스티븐슨	(51) 일본의 한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난 한 대학생
스코트 디 와이팅	(37)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눈에 띄지 않는 두 개의 결함을 수정한 공사 감독관



## 낮아진 선교사 봉사 연령 기준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과 기사

**제** 182차 연차 대회 개회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남자는 18세부터 여자는 19세부터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같은 정책은 즉시 시행될 것이다.

이후 기자 회견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 변경이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영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학업, 가정환경, 건강 문제 등은 선교 사업을 나갈 시기를 고려할 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려는 이들은 18번째 생일 혹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120일 전에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업을 이수했거나, 18세가 된 후에 선교사 훈련원(MTC)에 입소할 수 있다.

선교사 지원자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선교 사업 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구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십니다.”라고 홀런드 장로는 말했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어둡고 두려움이 도사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빛과 진리, 희망,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가까이 봉사하려는 합당한 선교사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홀런드 장로는 추가로 선교부가 조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선교부에서 늘어나는 선교사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기존의 1/3로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 선교 임지에서 시행되는 12주 훈련 과정은 선교사들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news.lds.org에서 “선교사 연령 기준(missionary age requirement)”을 검색해 더 읽어 본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결정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과 청년은 이제 각각 18, 19세가 되면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네 번째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공과는 2012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준비해야 한다. 2013년 4월에는 2012년 10월 혹은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및 지방부 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더 알고 싶으면 2012년 5월호 리아호나(lds.org/liahona)의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는 교사들이 구주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더 완전히 개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교회가 2013년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을 발표하다

**교**회는 2013년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녀, 주일학교 청소년반을 위해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를 발표했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교사들이 공과를 복음 중심적인 대화처럼 진행하여 구주처럼 가르치도록 돕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르침과 배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다.

“이 교과 과정은 총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의 가장 최근 가르침을 사용하여 신앙과 개심, 간증을 강화하고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2012년 9월 12일 자 제일회장단 서한에서는 밝히고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여러 단원으로 나뉘며 각 단원은 매달 하나의 교리 주제에 집중하여 주일학교, 청녀, 아론 신권 반에서 가르친다.

각 단원에서 한 달에 하나 이상의 공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영감을 구하며 어떤 공과 개요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요청받는다.

새로운 지도서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은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독특한 필요 사항에 맞게 공과를 준비하는 방법과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돕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공과는 인터넷에서 인쇄할 수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인쇄본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말까지 모든 공과의 개요가 온라인상에서 23개의 언어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회원, 지도자, 교사들은 [lds.org/youth/learn](http://lds.org/youth/learn)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 및 현지 지도자들은 2012년 말 전까지 지도자와 교사들을 위해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

[news.lds.org](http://news.lds.org)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번호 96쪽을 참조한다.

## 새로운 도구, 회원들이 가족 이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2년 10월 8일 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회원들, 특히 청소년,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족 이름을 성전에 갖고 가도록 준비함으로써 성전의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권유했다.

더 나아가 “많은 수의 가족 이름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은 …… 필요한 의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이름들의 예약을 적절한 시기에 해지” 하도록 권유받는다.

회원들이 제일회장단의 요청에 응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경험들을 찾고 있으며, [familysearch.org](http://familysearch.org)에서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new.familysearch.org](http://new.familysearch.org)의 최근 업데이트 결과, 이제 패밀리 트리(Family Tree) 덕분에 가족 역사에 접근하는 법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는 사용자들이 (1) 공유된 가계도에서 연결하고 협력하면서 (2) 맞지 않는 데이터를 편집하고 삭제하면서 (3)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의 이름을 쉽게 제출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은 또한 “Assigning Names to the Temple(성전에 이름 배정하기)” 등의 동영상과 기타 훈련 자료들을 [familysearch.org/treetraining](http://familysearch.org/treetrain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 칠십인 회장단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는 2012년 4월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후 2012년 8월 1일부터 칠십인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웨론 크리스텐슨, 콜린 크리스텐슨 사이에 태어난 크리스텐슨 장로는 북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적이고 양육받는 후기성도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복음이 참되다고 믿었으나 칠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의 간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선교사로서 성신을 느끼려는 제 소망이 한결같아지고 복음에 대한 제 간증은 더 커졌으며 더욱 더 뚜렷해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는 물론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그의 가르침에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텐슨 장로는 2002년부터 칠십인 제일·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신권부 집행위원장으로 봉사했으며 예전에는 남멕시코 지역 회장, 멕시코 시티 동선교부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크리스텐슨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 학사 학위를, 워싱턴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소매 자동차,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으며, 여러 대학에서 객원 강사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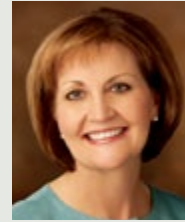
크리스텐슨 장로는 1978년 3월 28일 데보라 존스와 결혼했으며, 유타 주 홀리데이에서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 네 자녀와 다섯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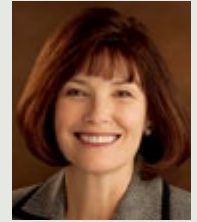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캐롤 엠 스티븐스 제1보좌



린다 케이 버튼 회장



린다 에스 리브스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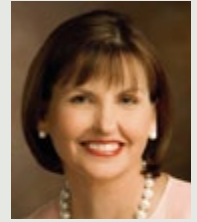
###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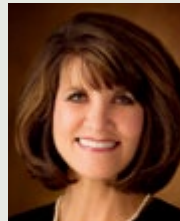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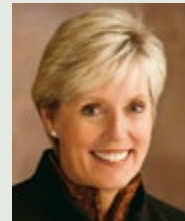


앤 엠 딘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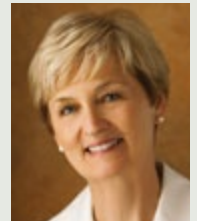
### 초등회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워험 회장



첼러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김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벅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콩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